

목종 스님(부산 대광명사 주지)
傳法은 세상을 밝히는 큰 빛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8월 12일) · 주간

제1063호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원폭, 아픈 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한중일불교도대회 13~17일 히로시마서 개최

한중일 3국 불교계가 제2차 세계대전 정전 70년을 맞아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와 일중한국제불교협의회, 중국불교협회는 9월 13일부터 17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쟁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의 불교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9월 15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각국 불교 대표단은 예불 의식을 올리고 원폭 사몰자 위령비와 원폭 공양탑, 한인 희생자 위령비를 차례로 돌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세계평화기원문을 통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 10명 중 1명은 징용된 '조선인'이었고 그 수는 7만 명에 달한다. 당사자와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한일 정부로부터 소외된 채 힘든 삶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히로시마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탐진치 삼독이 중생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절실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를 주관한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회장인 이토 유이신 스님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공생 · 화합의 세계를 원하는 불자들이 비인도적인 핵무기 사용을 근절하고, 어떠한 폭력도 부정하는 석가모니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3국 불교계의 황금 연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이에 앞서 종단협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자체적으로 추모 위령재를 개최했다.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도 추모사를 통해 "고향 산천에 울려 퍼지던 반야심경의 염불소리를 스님들이 들려주셨다. 부디 식민지에서의 서러움 다 씻어 내리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극락세계로 발걸음을 옮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종단협 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불교도들이

평화공원서 원폭희생자 추모
'희생자 특별법' 성안 발원
포교 · 수행 정진 다짐 선언
내년 대회, 4월 북경서 개최

상호 유대를 확인하고 현대와 미래 사회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서원하고 △불교도로서 다시금 기도를 소중히 생각할 것 △중생 포교에 대한 자세 재점검할 것 △다른 종교와의 대화 적극 실천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 스님,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초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밍셩 스님이 차기 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제1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2016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며,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예비회의를 통해 대회 기간과 장소, 주제 등을 결정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8회 한중일불교도대회가 9월 13~17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다. 사진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중일 3국 불교도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금강신문〉



서울에 우뚝 선 세계 최대 약사불

서울 강남에 초대형 약사여래불이 들어섰다. 대표적인 도심포교도량 능인선원은 9월 13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5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기념법회와 서울약사대불 건립식을 봉행했다. 이날 세워진 서울약사대불은 38미터의 8층 건물 높이 규모로 100톤 가량의 청동이 사용됐다. **〈관련 기사 5면〉**

사진=노덕현 기자

'정치적 멸빈자' 사면 공청회 열린다

조계종 종헌 특위, 9차 회의서 일정 확정

10월 16일, 종회 주최로
분규사 · 사면필요성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가 '종단 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9월16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가 '종단 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안'을 검토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당초 3개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 의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통합종단 이후 종단분규의 역사와 징계자 현황 △종단 화합조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종헌특위는 종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종단 안팎에서 관심이 높은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로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재가단체 등 10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내년 WFB 총회 유치 '쾌거'

WFB 이사회서 결의
내년 10월 경 개최
세계불교대학회의 등
부대행사 함께 열려



세계불교도우의회(회장 판 와나메티)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태국서 열린 제85차 WFB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WFB 총회 개최지로 진각종을 선정했다.

진각종이 2016년 제28차 WFB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를 유치키로 결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불교도우의회(회장 판 와나메티 · 이하 WFB)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태국서 열린 제85차 WFB 집행이사회서 내년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를 진각종이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WFB 판 와나메티 회장은 "진각종이 개최하는 내년 총회가 성공적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유치를 위해 진각종 통리원장인 회정 정사와 회성 현정원장 등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

내년 10월경으로 예정된 총회 기간 동안 본 대회인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뿐만 아니라 제19차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WFBY), 제11차 세계불교대학회의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진각종은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서원하며 1958년 태국서 열린 제5차 WFB 총회에 참석했으며, 2008년 일본서 개최된 제24차 WFB 총회부터 정식 가입했다.

한편 WFB는 1950년 5월 25일 스리랑카 콜롬보서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됐다. 상좌부, 대승, 밀교가 중심이 된 아시아, 유럽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등 27개국 대표 200여 명이 모여서 창립됐다. 상좌부가 주축이 됐고, 특히 스리랑카에서 WFB 창설과 총회를 주도했다.

WFB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서 250개의 지역센터를 두고 출재가를 초월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불교도 연합단체이다. 김주일 기자

네팔 재건 '장기프로젝트' 시작된다

지구촌공생회, 3년 간 20개 학교 건립 추진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구촌공생회가 네팔 장기재건프로젝트 실시에 나선다.

지진발생 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NGO (사)지구촌공생회는 6차 긴급구호 및 모연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본격 재건활동을 앞두고, 현지 우기 동안 실시한 교육시설 피해조사 바탕 '향후 3년간 20개 학교 건립'이란 큰 서원을 세웠다.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이하 공생회)는 9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너진 네팔을 위한 3년간 약속-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간 긴급구호활동을 벌인 신두팔촉 지역에 2016년부터 3년 간 산골학교 20개를 건립뿐 아니라 도서관 · 책상 · 캐비닛 · 학용품 등 기자재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다.

네팔 지진 피해로 인해 현재까지 약 8천 7백여 명이 사망하고 2만 3천여 명 부상자가 발생했다. 학교 피해도 심각하다. 총 7천 8백여 학교서 3만 6천여 교실이 붕괴됐으며, 특히 최대피해지역인 신두팔촉 지역은 6백 23개 학교 5,166개 교실 중 89%가 파손돼 사용 불가한 상태다.

공생회는 "5월 31일 각 지역 학교서 공식 수업을 재개했지만 최소 96만 명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실정이다. 산간지역 아이들은 카트만두 등에 위치한 학교에 가기 위해 마을을 떠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면 아동착취, 인신매매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학교 건립 및 보수 외에 기자재도 함께 지원해 붕괴된 교육 인프라 재건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립될 학교는 마을회관으로도 겸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생회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및 주민들을 위한 교육 · 보건 · 문화 공간으로써 종교와 전통문화 보존 및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하고 있다.

네팔 바그마티구와 신두팔촉-3 지역에 지어질 20개교는 학교당 5칸씩 약 45평 이내 규모로써 약 5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총 10억의 대규모 예산으로 불교계 안팎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이사장 월주 스님은 사무총장 덕림 스님이 대독한 호소문을 통해 "화엄경에 '애민중생여적자(愛民衆生如赤子)'란 말이 있다. 중생을 돌볼 때는 갓난아기처럼 살뜰히 돌보고, 고통 받고 소외된 자부터 살피란 뜻"이라며 "네팔 강진 피해도 안타깝지만 회복할 힘과 의지가 부족한 것에 더 큰 아픔을 느낀다. 더 많은 불자와 후원자들의 관심으로 네팔 산골학교를 다시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서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생회는 2008년 네팔지부를 설립하고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운영 등 교육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네팔 룸비니 지역에 스리아다샤 송명례초교, 스리마하락시미초교, 스리파슈파티 영화초교, 스리칼리마이 선원사초교와 다딩 지역 스리시데슈 공립학교를 건립한 바 있으며, 보우더지역에는 빈곤지역 아동 방과후수업 및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한 '공생 청소년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영어 랩부터 합창 · 연극까지 학인 스피치 대회 '눈길'

조계종, 15일 첫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예선

학인 스님들의 외국어 실력에 한 번 놀라고, 회색 장삼 속에 숨어 있는 재기 넘치는 '끼'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예선을 개최했다.

개인과 단체팀 총 166명이 참여한 예선에서 학인 스님들은 랩과 연극, 합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외국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예선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영어 단체 경연. 동국대 서울캠퍼스 1팀은 발우공양 절차를 영어로 차분히 설명했다.

2팀은 'SHOW ME THE BUDDHA'라는 표제로 영어 랩배틀을 펼쳤다. 한 학인 스님이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비트박스를 넣고 '붓다 크루'와 '달마 크루' 양 팀이 나와 불교 교리를 서로 랩으로 설명해 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탐 · 진 · 치'를 주제로 영어 연극을 진행했다. 학인 스님들의 영어 실력이 깔끔한 구성과 호연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2팀이 참가한 봉녕사 승가대학 역시 무상 등의 주제를 토크와 합창 등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27명이라는 최대 인원이 참여한 운문사 승가대학의 경연은 한편의 예술 공연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초반에는 마임과 현대무용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후반부는 '자비송' 합창이 장엄하게 이어졌다.

예선 심사 결과 개인 13명(중국어 2명, 일본어 2명, 영어 10명)과 단체부 6팀(영어 5팀, 중국어 1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지난해 염불대회에 이어 이번 외국어 스피치 대회도 사미니 스님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개인부문은 9명의 사미니 스님이, 단체 부문은 운문사, 봉녕사 등 4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교육원은 발표와 연출 등을 별도로 교육해 결선에서는 더욱 완벽한 내용을 선보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국장 진광 스님은 "리허설 등을 통해 참가팀들의 내용을 보완했다. 결선 진출자들에게도 P.T, 무대 연출 등을 전문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한달 뒤에서 있을 결선에서는 완성도 높은 경연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 단체 총166명 참가해 경연
랩 · 연극 통해 외국어 실력 뽐내
개인 13명 단체 6팀 결선 진출
운문사 · 청암사 등 사미니 '강세'
내용 보완, 오는 10월 14일 결선

한편,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경연대회' 결선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대상인 총무원장상 개인 1명과 단체부 1팀에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인 교육원장상 개인 2명과 단체부 1팀에 150만원의 상금을, 우수상 개인 2명과 단체부 2팀에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예선 참가자 전원에게도 장려상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은 9월 15일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예선전을 개최했다. 사진은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단체 경연 모습. 최대 인원인 27명이 참여했다.

전국 비구니회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

열린비구니모임, 육문 스님 후보 추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차기 회장 선출이 선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비구니모임(이하 열린비구니)과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정상화비대위)는 9월 16일 군위 법주사에서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 육문스님 후보 선포식 및 추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 · 사진)을 추대했다.

앞서 육문스님후보추대위원회는 법주사 설선당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 후보에 육문스님을 추대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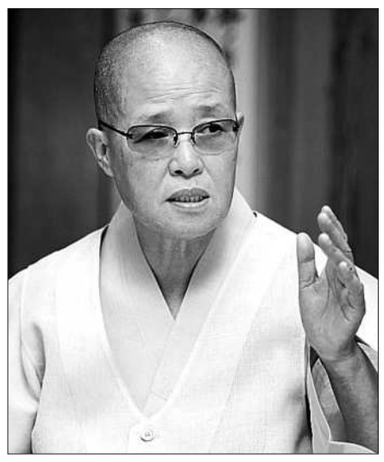
열린비구니 측 후보로 추대된 육문 스님은 추대 수락사를 통해 "그동안 비구니는 화합을 잘 해 왔지만 최근은 화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비구니는 무엇보다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라며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비구니회를 끌어갈 힘을 보태는데 노력할 것을 여러분과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육문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슬로건 아래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승단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스님 노후복지 △ 비구니승가교육 지원, 인재 육성 △청정 수행자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을 공약했다.

선거운동 조직도 구성됐다. 육문스님선거대책본부장은 임대 스님이 맡았으며, 비구니계 원로인 경희 · 명성 · 경순 · 법운 · 대인 · 묘관 · 정륜 · 경심 · 수현 · 재희 · 자광 · 보각 · 적조 스님을 증명으로 모셨다. 고문으로는 운달 · 지문 · 법홍 · 지우 · 성우 · 정수 · 묘정 · 순행 · 정성 · 만오 · 남석 · 대련 · 상영 · 상훈 스님이 위촉됐다. 지역선거대책위 수석위원장은 법륜 스님이, 사무총괄위원장은 진명 스님이 맡았다. 실무기구로 기획 · 조직 · 재무 · 홍보 · 총무 · 법무대외협력팀을 구성했다.

16일 군위 법주사서 추대식
'일하는 비구니회' 공약 발표
육문 스님 "화합이 가장 중요"

연대선원 자민 스님도 하마평
10월 12일 회장 선출 총회



육문 스님은 1962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3년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또한 1969년 경북 양진암에서 수선안거 이래 25안거를 성만했다.

제11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해 종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종법령 정비 등에 앞장섰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이사를 맡아 수좌들의 수행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열린비구니 등이 먼저 후보를 추대 · 발표함에 따라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 측의 후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집행부는 차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천안 연대선원 자민 스님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육문 스님 선대본의 진명 스님은 16일 추대식 경과보고를 통해 "현 집행부 측에서 자민 스님을 후보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국비니구회(회장 명우)는 제11대 회장을 선출하는 제8차 임시총회를 10월 12일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장 후보자 자격은 연령 65세, 승납 40세 이상 명덕 법계를 품수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는 수행이력서 1통(경력포함), 10명의 추천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를 구비해 10월2일 오후5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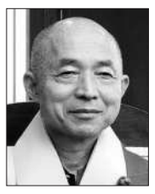
"지역 포교 · 승려 복지에 최선 다할 것"

자승 스님, 17일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포교와 신행만으로도 운영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일관 스님은 "무엇보다 포교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봉선사 문중의 노스님들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복지기금을 만들어 승려복지에도 전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명식 이후 일관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기금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2천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일관 스님은 일면 스님을 은사로 1979년 해인사에서 수계(사미계) 했으며, 보현사, 불암사 주지, 포교원 포교부장, 제14,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자승 스님, '청년희망펀드' 2000만원 쾌척

종교계에선 1호로 기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월 17일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종교계 1호 기부자다.

자승 스님은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은 "조계종은 불교계 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을 통해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활동과 템플스테이 등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자승 스님은 평소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제안하고 2000만원을 일시 기부했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에 불교 양서 보급 나선다

문화사업단 · 불출협, 17일 MOU 체결… 출판 활성화 기대

템플스테이에 마음을 살찌울 양서(良書)들이 보급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9월 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국 110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도서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 · 지속적 교류에 서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전국 110여 곳의 사찰에서 연간 38만 명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추천받은 양서를 템플스테이에 비치해 참가자들이 불교를 더 쉽게 알아가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비불자, 젊은층, 외국인의 참여가 높은 템플스테이에 양서를 제공?홍보하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화 스님, 지홍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윤창화 민족사 대표, 사무국장 김시열 운주사 출판사 대표, 사무차장 이승순 민족사 부장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9월 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입후보 등록 및 임시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입후보 등록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제11대 회장 선출을 위하여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비서류
① 수행이력서 1통 (경력포함)
② 10명의 추천서 (소정양식)
www.kbiguni.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③ 승 적 증 명 서

■ 입후보마감일 : 2015년 10월 2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02)3411-8103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4장 11조에 의거, 제8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금번 총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비구니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기여해 주실 역량 있는 회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총회일자 :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문 의 : 전국비구니회관 종무소 ☎ 02)-3411-8103

※ 총회 참석시 승려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선거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범어사 칠성도 2점 국내 경매 통해 환수

삼정기업 낙찰받아 기부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가 9월 15일 국내 경매시장 서울옥션에서 칠성도 2점을 낙찰 받았다. 이번에 낙찰 받은 칠성도 2점으로 범어사는 유실됐던 칠성도 총 11점 가운데 5점을 되찾는 성과를 이뤘다.

경쟁과열 방지를 위해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수불 스님의 칠성도 환수 의지를 확인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경매에 적극 참가했다. 4200만원에 2폭을 낙찰 받은 박 회장은 낙찰 후 바로 범어사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 박정오 회장은 지난 스위스 경매에서도 범어사 칠성도 환수를 위해 낙찰가 9400만원을 전액 기부한바 있다.

주지 수불 스님은 "지난 7월 스위스에서 귀환한 칠성도 3폭이 있어 이번에 귀환할 칠성도의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커졌다"며 "당시 사찰에서 중요한 예배 대상이었던 칠성도를 더 많은 대중들이 와서 보고 그 가치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바램을 밝혔다.

범어사는 7월에 귀환한 칠성도 3폭에 이어 이번에 귀환한 2폭도 부산시 지정 문화재로 등록하고, 빠른 시일 내 독립공간 칠성각을 건립하고 봉안할 계획이다. 또한 범어사는 개산대재 법요식을 개최하는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대웅전에서 칠성도 봉안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 하성미 기자

남한산성 축조 주역 의승군을 추모한다

장경사, 10월 11일 문화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내 불교문화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장경사가 4년째 남한산성을 축성 · 수리 · 방어한 의승군을 추모하는 수륙재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10월 11일 오전 9시 제4회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로 확대된다.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은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성 내 불교문화 복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장경사는 남한산성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승군 추모 수륙재를 비롯해 산성내 불교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함으로써 남한산성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경사는 수륙재가 열리는 10월 11일 오후 4시 30분 구절초와 산사, 산성이 어우러진 '구절초 음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흰개미 방제부터 세계유산 관리까지 문화재청 부실 행정 '도마 위'

국회의원들, 17일 문화재청 국감서 질타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돌아왔다. 정부 부처 중 불교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문화재청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17일 문화재청과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도 불교 관련된 문화재 행정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흰개미 방제, 조사만 하고 '끝'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시흥을)은 흰개미 방제 대책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258건의 목조문화재 중 약66%에 달하는 169개의 목조문화재가 이미 흰개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6월28일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피해예방 대책으로 △전수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발견 △적극적 방제 추진 △흰개미에 대한 예방교육 연 10회(전국순회) 실시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진단 · 조사 등 연구 인력을 보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 같은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모니터링의 경우 전수조사 이후 방제 · 방역을 하더라도 업체로부터 방제 · 방역 이후 준공보고만 받았고, 인력보강은 발표와 달리 조사인원만 1명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3명으로 전혀 늘지 않았고,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연구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흰개미 예방 교육을 10회 실시하겠다는 것도 허언에 그쳤다. 흰개미 피해예방 교육은 단 한차례, 지역별로 2차로 나눠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조 의원은 "발표만 해놓고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대책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석사 관음좌상, 정부 입장 내라

또한 조 의원은 2012년 한국의 문화재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훔쳐와 검찰에 압수된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과 동조여래입상에 대해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며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흰개미 피해 많아도 대책 '전무'
부석사 관음상 정부 모르쇠 지적
혈세 쏟은 세계유산, 관리 안돼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절도한 불상 2점의 반환 여부가 이슈화 되자 이듬해 외교부 주관으로 정부 입장과 대응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2차례 열렸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구두로 진행하고, 보고 내용에도 마련된 "정부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에 대처하는 문화재청의 방관적인 자세를 보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조속히 문화재청과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 지정에만 신경쓰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지정 이후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개 세계문화유산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2012년 180만명에서 2014년 110만명으로 38.6% 가량(제주도 제외) 줄었다.

개별유산별로는 석굴암 · 불국사 39.9%, 종묘 65.8%, 창덕궁 22.6%, 화성 53.6%, 하회마을 29.9%, 양동마을 77.2%, 조선왕릉 75.6%, 송산리 고분군 50.9% 관람객이 감소했으며, 늘어난 곳은 해인사 40.7%, 고인돌 유적 43.7%, 공산성 734.1% 등 3곳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외 문화재, 美 · 日에 70% 집중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경남 마산회원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문화재 16만 342점 중 6만 7708점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외문화재 16여만 점 중 42.2%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국외문화재에 대한 반출경위나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전문가 양성과 치밀한 환수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종교 초월한 힐링 도량으로 발돋움"

천태종, 9월 12일 구인사 국제선원 개원식

대웅전 · 문화체험실 등 5개동
총 100억원 투입된 대작불사


천태종은 9월 12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강변로 소재 구인사 국제선원에서 국제선원 삼존불 봉안식 및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 누구나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1년 5개월간의 불사를 마친 천태종 단양 구인사 국제선원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9월 12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강변로 소재 구인사 국제선원(선원장 덕수)에서 국제선원 삼존불 봉안식 및 낙성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일심청정이 선(禪)이며 무심기도가 정(定)이라. 선정에서 지혜가 우러나오니 자비 방편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명산 승지에 수행 도량이 이룩되니 생사 해탈의 길을 부지런히 닦아 나아가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맞아 국제선원이 낙성된 것은 천태종이 개인과 전체를 화합시키는 교두보를 열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많은 원력이 모아져 설립된 만큼 앞으로 수행정진을 독려하고 사회와 국가, 인류 평화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제선원장 덕수 스님도 개식사를 통해 "국제선원은 종교와 지역, 계층,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이들이 이곳에 와서 수행과 문화를 체험,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며 "정진하는 공덕을 꽃피우는 수승한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당부했다.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낙성대법회는 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교무부장 경혜 스님) △개회사 △법어 △치사 △축사 △축가(삼태사 · 삼천사 · 광법사 연합합창단)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구인사 국제선원은 7800㎡(약 2360여평)에 국제선원(대웅보전) 1동, 문화체험실 2동(지관당, 법화당), 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총 5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구인사 국제선원 건립 불사에는 국고 50억 원과 자부담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됐다.

단양=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佛書통해 자비 넘치는 장교되길"

조계종 포교원, 1회 사관생도 독후감 공모 시상식

대상 김지혜 생도 등 16명 수상
"독서하며 불교 관심 · 신심 높아져"

조계종 포교원은 9월 12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1회 사관생도 독후감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불서를 통해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미래 군 인재 포교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공전에서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3학년 김지혜 생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김태헌(육군사관학교), 변성훈(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에 걸쳐 총 16명의 생도가 수상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육사, 해사, 공사, 3사관, 간호사관, 경찰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부처님의 생애〉 〈자기를 바로 봅시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 대상도서로 지정됐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사관생도들은 장교로서 살아가게 된다. 소대장으로 임관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희생'이다. 지혜와 용맹도 좋지만 덕으로써 부대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지혜 생도는 "불서를 통해 불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하게 됐다. 앞으로는 법당에도 자주 들러서 신행활동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대상 독후감 전문 31면〉


조계종 포교원은 9월 12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1회 사관생도 독후감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은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대신했다.

44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운문 44차 총동문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봄 선후배 동문스님들의 협조와 결속으로 우리는 큰일들을 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비단위에 꽃이 피듯 아름다운 모습이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문들을 가을 향이 그윽한 운문사로 초대합니다. 운문 인연들이 함께 모여 토론과 화합으로 무한 향상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운문사는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일 시 : 불기 2559년 음력 8월 20일 오후 2시 (양력 10월 2일)

장 소 : 운문사 선열당

안 건 : ❶ 장학금 전달 (필히 본인 참석)
❷ 모교 발전과 여러 가지 안건
❸ 기타 –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 설명회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종단 지원에 대해서)

전 화 : ☎ 054-370-7100 (운문사 종무소)
010-9776-9390 (동문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금타 합장



일 주 문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식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은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창종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추석맞이 독거어르신 돕기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추석을 맞아 9월 23일 홍은 2동 관내에 백미 20kg 100포를 독거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시월 국화향기 나눔전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10월 14일 조계사 일대에서 국회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를 개최한다.



제5회 행복나눔바자회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9~11일 봉은사 일대에서 정토마을 요양원 후원기음 마련 제5회 행복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



김선우 시인 초청법회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 스님은 10월 4일 경내 반야전에서 '원효와 요석에게 길을 묻다' 를 주제로 김선우 시인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 (02)395-9911



고판화박물관 '인쇄문화의 꽃…' 전

한선학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한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전을 고판화박물관에서 10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군승 하안거 및 수련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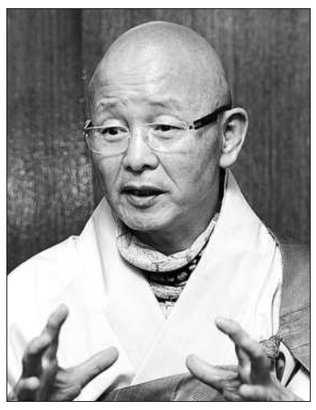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지난 9월 8~ 10일 2박 3일간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 에서 '불기 2559년 하계 군승 안거 및 수련회' 를 개최했다.

이번 군승 안거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140여 현역군승과 60여 예비군승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입재식 법어에서 "군포교에 진력하는 군승들과 군포교의 원력을 세운 예비군승들이 동참해 기쁘다"며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함께 동사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대각회 특별교구화 반드시 이룰 것"

혜총 스님 9월 13일 대각회 16대 이사장 취임



용성 스님 대각사상 선양위한 종로 대각사 성역화 불사 추진 재단 스님 · 신도 수행 정진 지원

(재)조계종 대각회 1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혜총 스님(前포교원장 · 사진)이 대각회가 종단 특별교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대각회는 9월 13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제15-16대 이사장 · 법안정사 · 대각정사 주지 이 · 취임식' 을 열고 16대 재단 이사장 혜총 스님의 공식적 취임을 알렸다.

이날 혜총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재단 발전을 위한 3대 목표를 발표했다. 스님이 밝힌 목표는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 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선양 사업 박차 △종단이 약속한 특별교구 ·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 관철 △대각회 소속 스님, 신도의 여법한 수행정진 지원 등이다.

혜총 스님은 "대각회는 조계종의 중요한 법인이다. 종단 역시 대각회를 특별교구화하고 중앙종회의원 의석 2석 배정을 약속했다"면서 "임기 동안 대각회의 종단 특별교구화 등을 추진해 재단 발전의 반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성 스님이 계셔서 후학들이 재단을 만들 수 있었다. 법안정사 역시 효경 스님이 창건해 여러 스님과 신도들의 노력으로 여법한 도심 수행 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서 "모두가 사부대중 덕분이다. 앞으로 3년 간 재단, 사찰 스님과 신도들을 모시고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임 이사장 도업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새 이사장 스님과 함께 재단, 사찰 사부대중이 화합해 수행 정진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간 함께 노력해준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혜총 스님 역시 도업 스님의 노고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신도들은 화환을 통해 고마움을 표했다.

취임식 이후 별도로 가진 차담에서 신임 이사장 혜총 스님은 용성 스님을 선양하기 위해 종로 대각사를 성역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각사는 1911년 용성 스님이 창건해 일반인을 위한 대각일요학교와 선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근대화 면면을 느낄 수 있는 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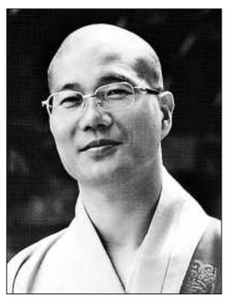
혜총 스님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 운동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곳이 필요하다"면서 "용성 스님이 창건한 대각사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각사 성역화 불사가 이뤄져야 한다. 임기 중 대각사를 성역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각회 특별교구화에 대해서는 "대각회와 종단의 약속 유예기간이 1년여가 남았다"면서 "유예기간 안에 종회의원 2석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저잣거리 포교 계속 이어 나가고자"

개원 10돌 맞은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어느덧 개원 10년을 맞았습니다. 누구나 오는 편안한 도량을 만들고자 지역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갈현동 중앙역촌 시장에 자리를 잡고 저잣거리 포교로 서민들과 함께해 온 열린선원(원장 법현 · 사진)이 9월 12일 개원 10돌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 이재오 · 이미경 국회의원,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동안 꾸준한 법회와 강좌를 통해 포교를 지속해 왔다. 그동안 매년 2회 이상의 불교아카데미를 열어 불교강좌를 해왔다. 그리고 갈현동 복지 두레위원, 공동체 복원 추진위원회 등을 역임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들이 오늘의 열린선원을 있게 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스님은 '선교방편 연구소' 를 설립해 불교의 학문과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순수 한글 법요집을 제작해 불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자 한다. 또한 한뼘 시주불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위한 새 도량 마련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열린선원은 지역 저소득계층 100명을 초대, 추석맞이 만발공양을 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실시한다. 이 음식은 열린선원 개원 10돌을 기념해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이 기부했다.

정혜숙 기자

"세계인 가슴 속 전쟁 아픔 치유"

6·25 참전국서 공연하는 선암 영산재보존회 회장



태고종 영산재보존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국을 순회하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봉행한다.

영산재보존회장 선암 스님〈사진〉은 9월 16일 서울 수송동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람인트라 마을에서 참전 태국군 영령을 추모하는 영산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람인트라 마을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모여사는 마을로 한국전참전용사 위령탑이 있는 곳이다. 이번 태국 영산재 시연에는 영산재보존회 스님 20여명과 신도 30여명이 참가하며 참전용사 유족들에게 감사패와 위문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선암 스님은 "태국은 불교국가이기에 첫 번째 방문국으로 선정했다. 1988년 태국 세계민족예술제에서 영산재 공연을 펼쳤을때 많은 태국국민들이 우리의 불교의식과 의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많은이들에게 남방불교의 스님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재보존회는 이번 태국 시연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을 매년 1개국씩 방문할 예정이다.

선암 스님은 "현충일의 경우 국내에서 영산재를 시연하고, 하반기에는 한국전쟁 참전국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 24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개최

9월 16일 취영루에서… 보운 스님·희상 스님 수상



제 24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16일 강남구 논현동 취영루에서 열렸다. 이날 행원문화재단은 학술상 수상자 중앙승가대 교수 보운 스님과 예술상 수상자 희상 스님(유연선원 주지)에게 각각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학술상 수상자 보운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불교문화 석사와 불교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원전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경불사에 매진해 왔다. 〈근본설일체유부필추비나야〉 20권을 필두로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10권을 번역했다 현재까지 40여권에 이르는 율장에 대한 역경에 전념하고 있다.

보운 스님은 "계율은 스님이 살아있을 때 지켜야 할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 스님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예술상 수상자 희상 스님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해 독일 브레멘 국립조형예술대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독일에서 8년 동안 회화, 설치작업등을 해온 스님은 한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쳤다. 희상 스님은 "이웃을 위해 환원하고자 하는 행원문화상의 의미를 알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된다. 앞으로 예술을 통해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을 비롯해 행원문화상 심사위원인 현대불교신문사 최정희 편집이사, 불교평론 홍사성 주간, 하춘생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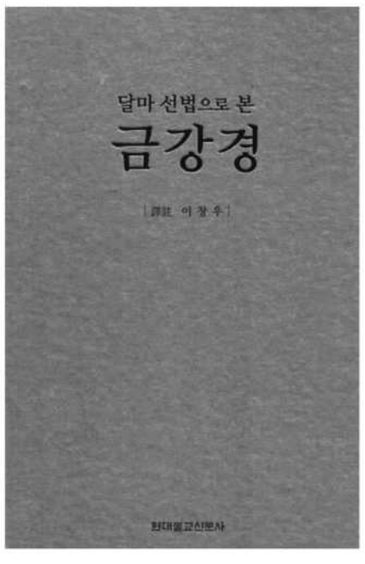
"스님들이 불교국가 직접 도와요"

국제구호단체총연합, 캄보디아 캄푸치아 고아원 후원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캄보디아 제8차봉사단(총재 지암)과 글로벌 나눔승가회는 9월 4~7일 캄보디아 씨엠립주 외곽지역인 살라반도반달꼬마 캄푸치아 고아원(원장 똔보란)을 방문, 사랑의 쌀 및 의류, 생활 용품 등을 전달했다.

또한 이 두 단체는 메체아먼돌 고아원 원생 44명과 한국 엄마아빠 맺어주기 프로그램 후원협약도 맺었다. 이외에도 원생 숙소, 교육시설, 우물 등을 향후 지원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 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 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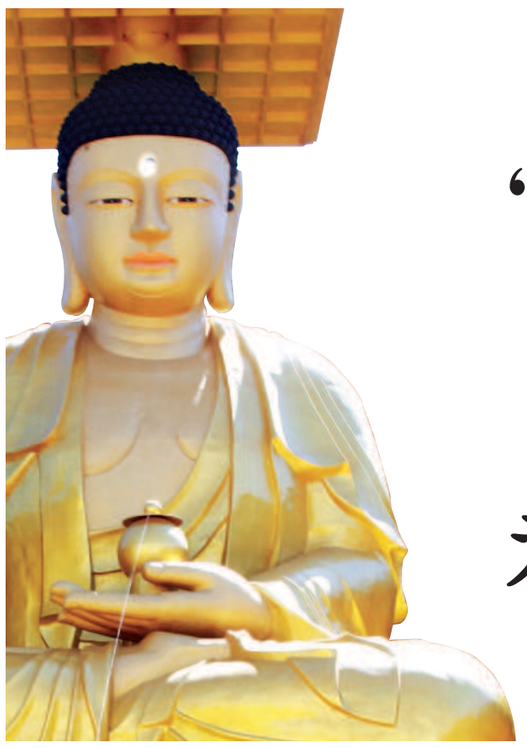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



“몸·마음 모두 아픈 현대인에게 치유 가피 내려주길”


점안식에서 참석내빈들이 테이프를 커팅하며 불사성만을 축하하고 있다.

능인선원 9월 13일 30주년 기념법회 및 서울약사대불 건립식 현장


“오늘의 능인선원 있게 한 신도들 힘이 느껴진다.”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의장)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 초심 돌아가는 계기로”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세계 최대 크기 아픔도 최대로 치료할 것”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웅전에서 진행된 30주년 기념법회

“불, 법, 승!” 사회자의 구호와 함께 형형색색의 풍선이 하늘을 갈랐다. 38미터의 대형 약사대불을 덮은 통천이 벗겨지는 순간, 대불광장에 모인 1만여 대중들에게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포교도량 능인선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9월 13일 세계 최대 규모의 약사여래대불인 ‘서울대불’을 점안한 것이었다. 구룡산 자락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규모로 세워진 ‘서울대불’은 강남의 번화가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날 서울대불 점안식은 서울 서초동의 작은 상가 법당에서 출발한 이후 30만명의 신도를 거느린 능인선원의 30년사를 돌아보고, 발전을 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대불은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과 선원 신도회가 16년 전인 1999년 발원한 것으로 38미터는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3년 3월 29일 능인선원 내 대불광장에서 불사의 첫 삽을 뜬 이후 청동만 100톤이 소요됐다. 원 재료값만 요즘 청동 시세로 100억원으로 총 건립비는 120억원에 달한다. 불사는 선원신도회가 청동조각을 부분별로 전문가에 의뢰해 제작 진행됐다.

지광 스님은 “흔히 현대를 말법(末法)시대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부처님 중에서도 ‘치유의 부처님’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불사(佛事) 배경을 소개했다. 지광 스님은 “16년 전 신도회의 제안 후 당시 청동을 미리 구해 놓아 다행이었다”며 “지금은 청동 가격이 너무 올라 재원을 마련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불사의 마침표를 찍는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정당대표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前법무부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최고의원을 비롯해 김종훈, 심윤조, 강석훈, 류지영, 나성민, 하태경, 이헌승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특별한 관심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능인선원 개원 30주년 축사를 통해 “능인선원은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능인선원 사부대중(四部大衆)과 늘 함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점안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다.

밀운 스님은 “작은 법당에서 시작해 지금의 능인선원이 있기 까지는 부처님의 가피와 많은 대중들의 동참이 있었다”며 “앞으로 불법홍포에도 크게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도 영상법문을 통해 능인선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점안식에 참여한 김명순 씨는 “그동안 불사에 동참한 보람이 느껴진다. 매일 불사 성취를 위해 기도했다. 약사여래의 가피로 아픈 이들이 아프지 않고 불심으로 생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동 100톤 · 120억원 소요
1만여 불자 운집해 치유 기원
정치인들 ‘동병상련’ 아픔 토로

정치권 “몸과 마음, 치료하는 대불”

이날 법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각각 “마음이 아프다”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경을 털어놔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축사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오늘 대불광장에 모신 약사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는 구원불이라고 한다”며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9월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경에 처했고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자신은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전력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으며 딸의 의지에 밀려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의 말에 대중들은 웃으며 격려의 박수를 쳤다. 김 대표는 “정치의 초심은 민생일 것이므로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청중들의 격려에 화답했다.

이어 축사를 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도 김 대표와 같았다. 문 대표는 “약사불은 치료의 부처인데 저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는 부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세계 최대 크기라고 하니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세계 최대로 치료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의 경우 당에서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중 하나라도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이어 연단에 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대표와 문 대표의 말을 받아 “오늘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고 해 좌중을 다시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다시금 불거진 상태였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축사를 맡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김 대표, 문 대표, 박 시장이 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늘 용기를 잃지 않으면 된다”며 “불자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하자 법당의 대중들은 다시금 웃음을 터트렸다.

능인선원 원장인 지광 스님은 “나라의 거목인 여러분이 아프다니 저도 아프다. 고통을 마다하지 말라.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명약”이라며 “역경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날 축사를 한 정치인들을 위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풍요와 치유의 성지로 자리잡을 것”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이날 약사여래대불인 서울대불 점안에 대해 선원장 지광 스님〈사진〉은 “능인선원은 불자들이 수행을 통해 고해의 바다에서 헤쳐나오고자 하는 원력이 모인 곳으로 서울대불은 그 상징”이라고 말했다.

지광 스님은 “전쟁이 많았던 삼국시대에는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이 중심이었고 풍요롭던 통일신라 때는 약사여래 신앙이 중심이 됐다. 이는 풍요한 시대 몸뿐만 아닌 마음까지 치유하는 약사여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스님은 서방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불을 모시려 했으나 이런 뜻에서 약사여래를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광 스님은 “일본 나라의 도다이지(東大寺) 대불(16m)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 처음 신도회의 불사 제안 시 ‘왜 크게 지으려고 하나’ 싶었지만 건립된 대불을 모니 그 웅장함에 환희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나라는 가난했지만 현재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들 모두가 몸뿐만 아닌 마음에도 많은 상처가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은 풍요로울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많은 아픔이 있다. 약사여래불이 치유와 구원불로서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가위 보름달 보며 산사서 소원빌까

전국 30여 사찰서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개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명절 연휴, 색다른 체험과 가을 풍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올해에는 산사의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로 떠나자.

충남 마곡사에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세계 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한가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돌아보며 뜻 깊은 시간을 갖는 한편, 숲 포행, 종이 연꽃 만들기, 108배, 발우공양 등 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전남 선암사에서는 선 체조, 편백숲 트레킹, 소원등 만들기, 만다라 치유명상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단풍과 밤나무가 우거진 조계산 자락에서 명절 피로를 말끔히 해소해 보자. 선암사의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기간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다.

선무도의 본찰 골굴사에서는 선무도와 선무드라를 체험하고 민속놀이와 송편 만들기 등을 함께 진행하는 '움직이는 달빛 명상과 선의 향기' 템플스테이를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

세종시 영평사에서도 선기공을 체험하는 한가위 특별 템플스테이를 연다. 영평사의 추석템플스테이는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열리며, 체험형과 휴식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땅끝 사찰 미황사는 달마산 달맞이를 중심으로한 특별템플스테이를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연다. 완도 신흥사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템플스테이를 통해 가을 한 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귀성길 전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면 도심 사찰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 금선사의 '가을을 걷는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108배, 참선, 염주 만들기 등 기본 불교문화 프로그램과 일요일 새벽 북한산 산행 일정이 특별히 포함돼 있다. 다만, 고등학생 이상만 참가할 수 있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선보이는 남양주 봉선사의 달빛 머문 자리에서 추석 템플

세계 유산 · 단풍 숲 걷기 등
전통체험과 힐링을 동시에

스테이는 더욱 특별하다. 봉선사에서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 한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원시림 '비밀숲'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 대원사의 '한가위 감사여행(9/26~27)'에서는 명상, 감사 편지 쓰기, 송편 만들기를 비롯하여 108 에니어그램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전남 화엄사에서는 외국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Under the moonlight(9/26~29)'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의 다양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리스트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대상	일정	프로그램 내용
서울	국제선센터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초등학생 이상	9/26~27	연꽃 만들기, 명상, 스님과 함께 하는 전통놀이, 108 염주 만들기 외
	금선사	가을을 걷는다	고등학생 이상	9/26~27	108배, 참선, 소원염주 만들기, 북한산 산행 외
경기	봉녕사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누구나	9/26~27	송편 만들기, 참선, 걷기 명상, 붓다요가, 사찰 문화체험 외
	봉선사	달빛 머문 자리에서 추석 템플스테이	미성년 부모 동반 (5세 이상)	9/26~27	108배, 스님과의 차담, 송편 만들기, 비밀숲 걷기 명상, 참선 외
	용주사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중학생 이상	9/26~28	참선, 한가위 달빛 명상, 송편 만들기 외
	법륜사	달아!달아!보름달아!	누구나	9/26~27	송편 만들기, 성불도 놀이, 내 고무신 만들기 외
세종	영평사	영평사에서 맞이하는 한가위	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9/26~27	송편 만들기, 선기공 따라하기, 연꽃 차담, 연꽃등 만들기, 보름달 맞이, 윷놀이, 감사 명상, 구절초 길 포행, 108 염주 만들기
				9/27~29	자율 휴식형
경북	축서사	쉬고, 쉬고 추석도 쉬고	누구나	9/25~29	휴식, 송편 · 차례음식 만들기, 월광욕 · 스님과 마음 나누기, 108 마음 내려놓기, 문수산 트레킹 외
	골굴사	움직이는 달빛 명상과 선의 향기	누구나	9/26~29	선무도, 선무드라, 송편 만들기, 민속놀이 외
경남	문수암	추석 템플스테이	누구나	9/26~27	송편 만들기, 달빛 걷기 외
	대원사(산청)	한가위 감사여행	누구나	9/26~27	108 에니어그램, 명상일지, 명상, 송편 만들기, 산행, 자신과 타자에게 감사편지쓰기 외
전북	금산사	나는 쉬고 싶다	누구나	9/26~28	달빛 명상, 모악산 트레킹, 명상, 스님과의 차담 외
	내소사	달맞이 추석 템플스테이	누구나	9/26~29	스토리텔링 , 송편 만들기, 윷놀이, 트래킹. 걷기 명상. 108배. 다도, 염주 만들기 외
전남	선암사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누구나	9/26~29	선체조, 편백숲 트레킹, 소원등 만들기, 염주 만들기, 만다라 치유명상, 발우공양 외
	천은사	추석 달빛 걷기 템플스테이	누구나	9/25~27	걷기 명상, 스님과의 대화 외 *당일, 1박 2일, 2박 3일 예약 가능
	미황사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미성년 부모 동반 (5세 이상 가능)	9/26~29	송편 만들기, 차담, 달마산 달맞이, 참선, 걷기 명상 외
	화엄사	달빛 아래 (Under the moonlight)	누구나	9/26~29	송편 만들기, 달맞이 외 *외국인 참여 가능
	대흥사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누구나	9/26~28	송편 만들기, 108배 염주 만들기 외
	신흥사(완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누구나	9/26~27	염주 만들기, 달빛 포행, 가을한시 감상 외
충북	석종사	추석 템플스테이	누구나	9/25~28	스님과 송편 만들기, 달맞이 걷기 명상, 추석 차례 외
충남	갑사	달빛 맞으며… 추석 템플스테이	누구나	9/26~28 9/29	갑사 이야기, 108 여의주 만들기,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계룡산 트레킹, 소원등 만들기, 달빛 맞으며 탑돌이 외 *휴식형 추가 가능-사전예약
	부석사	한가위 템플스테이	누구나	9/26~29	민속놀이(투호대회), 도비산 산행, 다도, 스님과의 대화, 단주 만들기 외
	마곡사	세계 문화 유산과 함께 하는 한가위 템플스테이	누구나	9/26~28	공산성과 무령왕릉 투어, 송편 만들기, 종이 연꽃 만들기, 달빛 포행, 108배, 108 염주 만들기,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숲 포행(군왕대)외
		수리수리숲소리	누구나	9/26~29	자율 휴식형
강원	백담사	한가위 어울림 템플스테이	초등학생 이상	9/26~27 9/28~29	요가형 108배, 송편 만들기, 한가위 보름달 맞이, 숲 포행 외

秋夕맞이 만발공양에 어르신들 '웃음연발'

진관사, 9월 17일 불광노인복지관 어르신 초청

한가위를 맞아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자비나눔실천의 장이 열렸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9월 17일 진관사 함월당서 '한가위맞이 만발공양 및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올해 6회째 맞는 이번 행사는 불광노인복지관 개관 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기도 했다.

이날 진관사는 은평구 및 불광노인복지관 어르신 3백여 명을 초청해 △불광노인복지관 문화나눔봉사단 공연 △민요, 한국무용 등 문화공연 △발우공양 △기념품 전달 등 실시했다. 발우공양은 어르신들 입맛에 맞춘 잣찰밥, 미역국, 잡채, 호박나물, 도토리묵, 김치 등 마련했으며, 회향 기념품으로는 추석맞이 송편을 준비해 참여한 어르신들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9월 17일 진관사 함월당서 불광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초청해 '한가위맞이 만발공양 및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계호 스님은 "어르신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드리고자 매년 실시한 만발공양이 어느덧 6회째를 맞았다"면서 "매년 '내년에는 조금 더 잘 차려 드려야지' 하면서도 소박한 밥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게 돼 송구스럽다. 소박할지라도 중국의 만한전석(滿漢全席) 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식이라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만발공양(萬鉢供養)은 사찰음식을 발우에 수북이 담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공양을 대접한다는 의미다. 진관사는 자비나눔실천의 일환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은평구 어르신들을 초청해 만발공양을 실시해 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제13교구 신도회 창립

16일 쌍계사서…교구 신도회 구성 마무리 수순

조계종 제13교구 신도회가 창립됐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교구신도회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는 9월 16일 오후 1시 경내 팔영루에서 교구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초대 신도회장으로 하동군수를 지냈던 정구용 씨가 임명됐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평소 존경하는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의 지혜와 열정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 쌍계총림의 본말사가 그 어느 총림보다도 크게 또한 탄탄하게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구 신도회 구성은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도조직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종단 신도조직 희망 드림 대장정'을 전개하며, 교구신도회 구성을 독려해왔다. 쌍계사 교구 신도회가 창립됨에 따라 총림으로는 12교구 해인사만이 남았고, 본사로는 마곡사가 추가되면 교구 신도회 구성이 마무리된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는 9월 16일 오후 1시 경내 팔영루에서 교구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중앙신도회는 "13교구신도회 발족을 계기로 중앙신도회는 종단 신도를 대표하는 종헌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각 교구의 교구신도회가 활성화하고 종단 신도들의 활동역량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대불청, 34차 전국불교청년대회

10월 10일~11일 서울 송파 불광사서

대한불교청년회가 창립95주년을 맞아 올바른 청년 불자상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가 10월 10일~11일 서울 송파 불광사서 '제3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민족의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대회는 도전 통일골든벨, 통일염원사경지 봉헌, 통일불 봉불식, 봉축율동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전 통일골든벨'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발간한 〈불교와 통일〉을 기본 교재로 OX퀴즈 및 주관식 등 진행한다. 또한 '통일염원사경지 봉헌'은 대불청 회원들의 통일 염원을 담아 한글반야심경 사경을 실시해 봉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서 남북청년불자 통일선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대불청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청년위원회와 함께 선언문을 합의 발표함으로써 통일시대를 열어갈 청년불자 역할과 사명을 정립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5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열린다

10월 31일~11월 1일 속리산 유스타운서

불교계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사찰 어린이법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도자 역량 강화에 나선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동련이 주관하는 '제5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10월 31일~11월 1일 충북 속리산 유스타운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사찰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및 진행 방법 전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1박 2일간 총 4강의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스토리가 있는 어린이 법회 △김영만 아저씨와 함께하는 추억의 종이접기 △웃음꽃 만발한 행복한 어린이법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등이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어린이법회' 시간에는 불교어린이명상연구가 범일 스님의 '만다라가 펼치는 이야기', 꿈꾸는미래연구소의 '꿈이 있는 어린이법회', 이강석 한국융합인재교육원 대표의 '인성이 꽃피는 나무'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은 3백 명 선착순이며 동련 홈페이지 혹은 전화, 이메일(dongryun1111@naver.com) 접수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ID wbjkh)에 사찰 · 성명 · 연락처 등 전송해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051)864-4569

박아름 기자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 합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청안하십니까?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더불어 한가위가 성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눈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불령동천과 한가위 만큼 넉넉한 불령산자락의 품에서
좋은 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 짜 불기 2559(2015)년 10월 2일 (음 8월 20일) 금요일

■시 간 오후 7시

■장 소 청암사 자양전

■문 의 054) 432-2652

'가을속에 진리속에 마음열고 환희롭게'를 슬로건으로 하는 **가을산사마당**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이 청암사에서 열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유화 합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5. 10. 3(토) 오후 1시부터 ~ 10. 4(일) 오후 4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강의실)
- 준 비 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세종시에 대형 불교 복지시설 본격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9월 11일 종촌종합복지센터 개관

대만 자재공덕회 모델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눈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9월 11일 세종시에 종촌종합복지센터를 개관했다. 사진은 테이프 커팅 장면.

대만의 자재공덕회를 모델로 하는 세종시 최대 종합복지시설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9월 11일 세종시에 위치한 종촌종합복지센터(센터장 이정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과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임상전 세종시의회의장,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상수 세종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으로 지하1층 · 지상4층 규모(5,004.61㎡)로 자리한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정 · 성폭력통합상담소까지 총 5개 영역의 시설로 구성됐다.

소통과 통합, 공존과 복합, 나눔과 융합, 상생과 화합을 목표로 운영되는 종촌 종합복지센터는 대만의 자재공덕회를 모델로 기부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모범적 복지시설로 거듭나고자 한다.

종촌종합복지센터는 "자재공덕회는 전 세계인이 가장 신뢰하는 자선단체다. 종촌종합복지센터도 이와 같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한다. 앞으로 지역 유관 기관들과 연계해 많은 이들이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스님들이 먼저 선을 베풀어 이를 지역민들이 본받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며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그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세종시 설립부터 주민들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종촌종합복지센터 이정수 관장은 "다섯 개의 시설이 한번에 운영되는 대규모 복지센터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세종시 설립부터 지역의 광제사, 영평사 등 지역 사찰들과 연계해 꾸준히 인프라를 구축해온 덕분이다. 앞으로도 대만의 자재공덕회를 모델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개관 후 중점 사업으로는 가족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세종시가 젊은층들이 대거 이동해온 신도시인 만큼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가족단위로 진행되는 팜투어, 원예와 요리 프로그램, 영화관람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명사 초청 고민상담프로그램, 인문학 토크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종촌종합복지센터는 아동부터 노인, 가족복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 모두가 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천 5백 명 발길서 '희망새싹' 피우다

생명나눔, 9월 12일 제8회 희망걷기대회

사부대중 2천 5백명 참여 장충단 공원 일대 행진 생명존중 문화 '확산' 도

비온 뒤 맑게 갠 하늘보다 더 맑은 것은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희망걷기대회'라는 이름처럼 전국 각지서 모인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선 희망의 꽃이 피어났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은 9월 12일 서울 동국대학교서 '제8회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불교 종립학교 학생들과 일반 시민 2천 5백여 명이 함께해 장충단 공원 일대를 행진했다.

본 행사에 앞서 동국대 만해광장서는 개회식이 거행됐다. 참여한 단체를 전부 호명하며 환영사를 시작한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희망걷기대회는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소중한 인연들이 모였으니 모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걷길 바란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걸음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것"이라 전했다.

이후 남양주 광동고 2학년 최정우, 김미경 학생의 참가자 대표 선서, 마가 스님의 걷기 준비명상, 새천년 체조 준비운동 등에 이어 본격적인 걷기대회가 시작됐다.

농악대를 필두로 참가자들은 동국대 팔정도, 정각원을 지나 장충단 공원, 수표교 등 코스를 행진했다. 해가 쨍쨍한 날씨였지만 친구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걷는 학생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의정부 영석고 김민제 학생회장(남 · 2년)은 특히나 밝은 얼굴이었다. 김민제 학생은 "학교를 벗어나 친구들과 손 잡고 어깨동무도 하면서 걸으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며 "힘들수록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혹은 삶에 지친 사람 모두가 웃음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코스 중간 중간엔 소소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감정풍선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 지압체험, 묵언체험 등이었다. 약 1시간 동선 동안 끊이지 않던 수다와 웃음소리도 묵언코스에서는 사그라졌다.

또한 만해광장 한편에선 다채로운 체험부스도 운영됐다. 본 행사 전후에 걸쳐 참가학생들은 △링던지기, 제기차기 등 스트레스 해소 게임 △페이스페인팅 △만다라 그리기 △불교상담 △염주만들기 등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생명나눔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발족한 자원활동가 모임 '따숨' 의자살예방 홍보관은 학생들의 발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칭찬, 응원 등을 적은 릴레이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팔찌로 채워주며 희망을 나눴다.

남양주 광동고 이선민(여 · 2년)은 손목에 찬 희망메시지 팔찌를 내보이며 "친구에게 좋은 말을 적어 팔목에 걸어주면서 왠지 모를 기쁨을 느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혹시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대화를 나눌 친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웃어보였다.

이밖에도 동국대 댄스팀, 남양주 광동고 댄스팀, 은석초 오케스트라단, 동국대 마술동아리 로터스팀 등의 문화 공연과 경품 행사 등 진행돼 즐거움을 더했다. 폐회식서 일면 스님은 "오늘 걷기대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 타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12일 서울 동국대학교서 '제8회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노인교통사고 예방 위해 적극 '노력'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의정부경찰서 MOU체결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은 9월 16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와 노인교통안전교육 및 사고예방지도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교통안전교육 및 고령의 운전자 ·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경찰서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지도 등을 실시해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법일 스님은 "복지관 주변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동이 있고 교통안전에 취약한 곳이다. 의정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교통교육과 지도를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 의정부경찰서는 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031)852-2595

정혜숙 기자

추석맞이 '사랑의 축산물 情 나눔' 전달식

나눔축산 운동본부 중림복지관에 선물세트 전달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수경)에서는 9월 14일 나눔축산운동본부(대표이사 이기수),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와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축산물 情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추석을 맞아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650만원 상당의 목우촌 선물세트 250개를 후원했으며, 이 후원품은 추석을 맞아 지역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 될 예정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이기수 대표이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소외 계층에게 우리 축산물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후원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함께 동참한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축산물세트를 후원하였으며, 2014년부터 활발한 후원 활동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혜숙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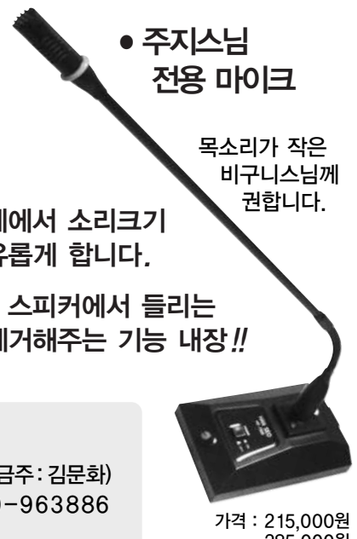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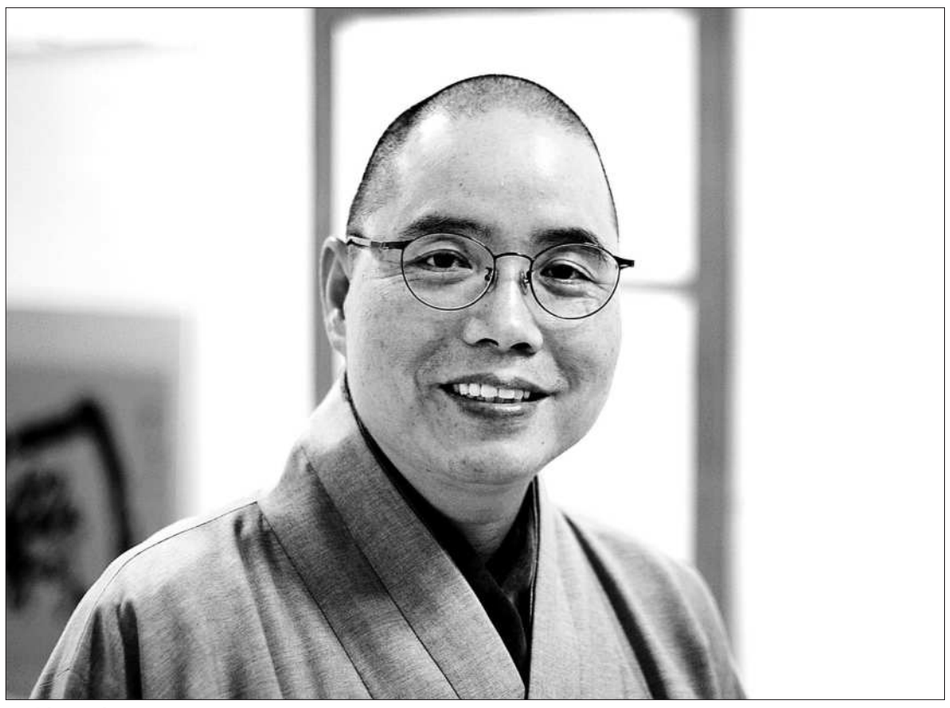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통도사 지장재일법회

도암 스님

지장보살은 전생에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여행을 떠나게 된다. 지옥에 이른 지장보살은 그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중생이 무량한 윤회 속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가 아니었던 인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서원을 세운다. 이에 대해 〈지장경〉에서는 '대자대비'의 시작은 부처님 법(佛法)에 대해 찬탄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말한다. 도암 스님은 8월 31일 통도사 지장재일법회서 〈지장경〉이 주는 '효'의 가르침에 대해 설법했다. 도암 스님은 "전생으로 이어가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부모, 내 자식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며 "이러한 가르침을 찬탄해 세상 모든 이를 존중으로 대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 부모자식 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고 설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大慈大悲 시작 '찬탄'으로부터

대 자 대 비

도암 스님은 … 1991년 통도사에서 월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통도사 승가대학, 동국대 철학과, 불교학과, 봉선사 능엄학림을 졸업했다. 백양사 강주를 지냈으며 현재는 송광사 강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지장경의 키워드 '孝'

달력을 보면 관음재일, 미타재일, 지장재일, 약사재일 등 여러 재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음력 7월 지장재일입니다. 지장재일은 지장보살님의 공덕과 자비, 지혜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수행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과거보단 현재, 현재보단 미래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장경〉은 어떤 경일까요? 지장경은 부처님이 도리천(忉利天)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한 것을 모은 경전입니다. 마야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 천상세계인 도리천에 올라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고 나서 중생을 구제하시던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모친까지도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어렵지 않게 도리천에 올라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을 하시는데 그 모습은 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아들이 모친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효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을 하는 자리에 효(孝)와 관련된 많은 인연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는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이 가장 많이 찾아왔다고 전해지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전생에 장자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했고 바라문 가문의 딸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라문녀로 살았던 지장보살은 대단한 효녀였습니다. 모친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모시려 했고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서 좋은 원인에 좋은 결과를 맺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의 어머니는 그런 딸의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장보살의 노력으로 어머니의 불심이 조금 생기는가 싶으면 다시 되돌아가고를 반복하던 중에 지장보살의 어머니가 죽게 됐습니다. 그 후 지장보살은 진심을 다해 공양을 바쳐 각화정자재왕여래(覺華定自在王如來)의 힘으로 어머니를 찾아 지옥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 효경은 부모은중경과 지장경이 있습니다. 〈부모은중경〉에 보면 전생의 전생으로 계속 올라가다보면 우리 인연 중에 내 부모, 내 형제, 자매가 아닌 인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여행을 하던 지장보살은 당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고 당연히 부모은중경의 내용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모친을 찾으러 지옥에 갔다가 무량한 세월 동안 자신과 맺었던 수많은 인연들이 지옥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불법 의지해 공덕·복덕 닦기

〈지장경〉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보이니 무량한 대광명운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대광명운이란 부처님이 지니신 지혜의 빛이라는 뜻으로 '광명'은 부처님이 갖추신 덕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이고, '운(雲)'을 붙인 것은 많고 풍성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대광명운은 부처님이 지닌 광명의 크기가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는 셀 수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장경 앞에 보면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귀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

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엄산림 법문을 듣다 보면 '원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조금 바꿔 말하면 '완전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경지, 즉 '부처님의 신업, 구업, 의업 삼업을 닮아 나도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게 된다면 그 자리에 징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징조는 바로 자비스러운 모습입니다. '대자비 광명운'이라 하는데 자비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 모습은 '대반야 광명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야'라는 말이 '지혜'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已生起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말, 행동, 감정 등에서 습관에 빠져 한 상태에 머물러 있곤 합니다. 그에 대한 생각조차 그만하자고 하면서도 그 생각조차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은 그만두고 싶지만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자리를 '대반야'라 합니다. 대반야의 자리에 들면 마음이 허공처럼 깨끗해집니다. 대반야를 '빈집'으로 표현한다면, 대지혜는 그 빈집에 신통력으로 가구를 언제든 들이고 치울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도 언제든 쓸 수 있고 치울 수 있으며, 어떤 습관이라도 쓰고 싶을 때 꺼내 쓸 수 있고 쓰고 싶지 않을 때 원래 없었던 것처럼 지울 수 있다는 말니다.

마야부인위해 〈지장경〉 설법
'효경'이라 일컫기도 해
찬탄하며 다가가야 '귀의' 가능
일체마음 내려놓은 '대반야' 자리
'대지혜' 발휘해 비우고 채워내야

우리가 법문을 듣다보면 '길상(吉祥)'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길상의 의미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장경〉에 보면 '대길상 광명운'을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복덕과 공덕을 따로 닦습니다. 그런데 공덕과 복덕이 하나로 통일되는 자리가 대길상 광명운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대지혜 광명운은 대삼매 광명운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나는 그 분명한 순간에 우리는 똑똑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어리석다고 느낄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분명하게 옳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고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화를 내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볼 때 왜 어리석음을 모를까 하는 생각도 한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 불교 수행자가 닦아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 공부 방법)을 반드시 닦아야 하는데 계(戒)를 닦는 것은 신업(身業)·구업(口業)·의업(意業)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함을 목표로 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 또한 계법의 일부입니다. 양심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지만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절부절 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계를 지켜서 선정을 희생하고 대삼매 광명운을 이뤄야 대반야 광명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매를 닦기 위해선 복과 덕을 같이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로 잘 완성된 모습이 바로 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복덕과 공덕을 닦을 때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 정진해 나가야 할까요? 배를 타고 항구를 출발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이것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할지, 혹은 내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어야 할까 고민해야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인생의 방법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귀의 광명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 법은 삼보에 귀의하며 배워야 하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마음은 '대찬탄 광명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보다 불법에 감복하고 찬탄하는 사람이 더 불법과 인연이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法 찬탄으로 '귀의'하다

부처님 법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효(孝)를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다가가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부모자식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수 있게 키우려면 어른들도 자식들이 다가오기 쉽도록 업(業)을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 너희들은 내게 무조건 잘해줘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부모자식 간 장벽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초보자입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운전을 처음 배우면 모두가 초보 운전자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으면 초보 엄마가 되고 초보 아빠, 초보 할아버지, 첫 취직을 하면 초보 직장인으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도 없이 많은 '초보' 과정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수많은 배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알만큼 알고 있으니 나를 가르칠 생각마라 할 것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하는지 배움의 자세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두 속에 작은 돌이 하나가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무거운 짐이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게 된다면 양손에 들린 짐이 힘들까요? 구두 속에 들어 있는 작은 돌이 더 거치적거릴까요? 부모님들 중에선 구두 속 작은 돌처럼 자식을 대할 때 마다 작은 돌멩이 같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주변이 모두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부처님의 삼보를 찬탄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찬탄하다보면 경전의 말씀이 받아들여져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을 깨달아 아랫사람이라도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습관을 바꿀 준비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습관을 고쳤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질 것입니다.

〈지장경〉의 첫 시작은 찬탄하는 자리입니다. 법에 가까워지려면 법을 찬탄하고 아내와 가까워지려면 아내를 찬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귀의(吉祥)라는 말은 불법에 '기대다, 의지한다'는 의미로서 찬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불법에 기대어 생활하다 보면 공덕과 복덕을 닦는 자세가 나오게 되고 공덕과 복덕이 무르익어 하나로 통일되는 자리가 삼매(三昧, 한 가지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심불란一心不亂의 경지)입니다. 삼매는 반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며 지혜는 반야를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현실에 실천되었을 때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완벽한 모습과 같다고 말합니다.

불자님 모두 한 마음 모아서 내 가족의 행복과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하는 큰마음을 내는 지장보살님과 같은 서원 세우기를 바랍니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한국 대표 문인 '고은' 재조명 시작됐다

11일 고은학회 창립, 생가서는 10월 중 제1회 문화축제 예정


9월 11일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열린 창립총회 모습

한국문단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은 시인〈사진〉을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고은학회창립준비위는 9월 11일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고은학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한원균 한국교통대 교수를 선출한데 이어 '고은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인문학 심포지엄은 고은의 시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원로 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의 '고은과 인문학' 기조강연에 이어 초대회장에 선출된 한원균 교수가 '고은학의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또 김수복 단국대 교수, 김형수 문학평론가, 오윤정 서강대 교수 등이 고은 연구의 방향을 가늠하는 내용의 발제를 맡았다.

이날 염무웅 선생은 기조강연을 통해 "고은 시인은 다작의 문인으로 고은학회의 첫 작업은 이런 기초자료를 모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염 선생은 "고은의 시는 정체불명의 성채에 접근하는 느낌으로 하나의 거대한 산맥과 같다. 고은학회가 산맥을 보듯 고은의 문학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바로 보고 연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회에는 강연호, 곽효환, 김수복, 김완하, 안도현 등 시인과 평론가, 국문학자 등과 외국인 교수,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교수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원균 교수는 학회 출범에 대해 "1958년 등단해 57년 동안 문학 활동을 해 온 고은 시인은 한국 문단을 넘어 세계문학의 자리에서 주목 받는 이로 국내외 문학적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며 "범문화적 관점에서 고은 시인의 문학을 심도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국제학술대회를 두 차례 열 계획"이라며 "가칭 〈고은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문화콘텐츠 사업도 진행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평가의 장을 학문적 관점에서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원균 교수는 고은론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고은 관련 논문 10편과 2권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고은 시인은 "염치를 뒤란에 두고 나왔다"며 "냇가의 돌멩이가 되어 물에 씻기고 또 씻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고은 시인의 생가가 있는 '고은문화사업 추진위'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군산대와 군산예술의전당 등에서 고은문학축전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고은 만인보' 오페라와 백일장, 학술제와 고은 시 창작음악제, 시낭송대회 등의 다양한 장르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백일장은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가 공동개최하는 권위있는 대회로 열릴 예정이다.

2014년 말 창립된 고은문화사업추진위는 9월 18일 고은문학관 건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시민 고은문화사업 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고은 선생의 삶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문학축제가 여타 예술장르와 함께함으로써 실용논리에 따라 무너져가는 창작의 의욕을 북돋는 계기가 되고 문화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은 시인은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한국의 국민시인으로 18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정진하던 중 1958년 〈현대시〉,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150여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고은 시인은 본지 창간 연재소설 〈수미산〉을 연재했으며 창간 논설위원도 지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장 열린다

한일불교문화학회, 10월 2일 동국대서 세미나 개최

'일본불교의 전쟁참회와 동국사' 이치노헤 스님 '조동종 참회' 발표 한일근대사 1만 점 소개도 이어져

광복 70년을 맞아 일본불교계의 일제강점기 침탈 동조의 역사를 살피고 과거사 반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일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2일 '일본불교의 전쟁참회와 동국사'를 주제로 서울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동국사 후원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만여 점에 가까운 한일 근대사 자료를 소장한 종걸스님이 '일제시기 자료목록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어 △김두헌 군산 중앙고 교사의 '일제강점기 군산 금강사의 창립', △이치노헤 쇼코 스님의 '타카하시 치쿠메이를 통해 본 조동종의 전쟁' △김성순 금강대 교수의 '제국주의 전쟁과 우물가의 여인들' △니이조 카즈노부 나고야 대곡고 선생의 '진종대곡파의 해외개교와 천황패봉안의 의미' 등 발표가 진행된다.

원영상 한일불교문화학회장은 "일본인에 의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라는 국경을 초월한 양심과의 만남의 자리"라며 "불교의 역사적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063)462-5366 노덕현 기자

원효 저술 낱낱이 풀어 헤친다

원효 스님의 저술 원문을 읽고 토론하는 강독모임 '원효독회(讀會)'가 출범했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9월 21일 울산대 인문관에서 첫 원효독회를 연데 이어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원효 독회'를 개최한다.

이번 원효독회는 최근 박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한국연구재단의 '원효전집 번역과 종합해제' 작업의 일환이다. 원효독회에서는 원효 스님 저술 번역과 함께 다양한 원효 읽기를 시도한다. 21일 첫 강독으로는 원효 스님의 대표저술인 〈대승기신론소·별기〉가 진행됐다.

참가 희망자는 독회 이메일(twpark@ulsan.ac.kr)로 문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간화선 심리 치료 연구 개발해야"

이필원 교수, 〈인도철학〉 44집서 연구논문 분석 토대 주장

한국불교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필원 동국대 교수는 〈인도철학〉 44집에 실린 '간화선과 심리치료'에서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간화선과 심리치료' 논문에서 선심리치료의 영역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 교수는 먼저 간화선 관련 논문을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0년 이전 간화선 논문은 연평균 1편이 되지 않지만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이후에는 매년 15.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간화선 관련 논문은 198편에 달하지만 이중 치료효과나 체험에 대한 분석논문은 6편에 불과한 것이다. 192편이 특정인물의 사상 규명에 그쳤다.

이 교수는 "6편 중에서도 실제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은 3편에 불과하다"며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적 효과에 대한 논문은 국외 경우 더욱 드물어 1979년 존 카밧진 박사의 MBSR프로그램 개발 이후 불교명상 심리치료 연구는 남방 위빠사나 수행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외 간화선 연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간화선이 갖는 내적 한계 때문"이라며 "화두 타파한 스승 없이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한계이며 일대일로 화두를 점검해 줘야 하기에 대중적 프로그램이 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간화선이 지닌 심리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밝히며 이런 점을 국내 선행 연구에서 확인했다.

이 교수는 "간화선의 치료효과를 다룬 논문에서 짜증과 분노가 줄어 드는 등의 효과가 도출됐다. 간화선 화두가 분별을 끊고, 분노나 슬픔과 같은 감정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간화선을 발전시킨다면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백제 부여 나루터에서 백제사찰 건물지 확인


구드래 일원 현장 항공 사진

부여군(군수 이용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박종만)은 9월 17일 4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유적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여 구드래 일원은 부소산 서쪽 백마강 나루터 일대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여 부소산성, 나성 등을 포함하는 백제 사비도성의 나루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 1동 2실 구조의 초석 건물지, 도로 등의 백제 유구가 확인됐다. 또한 연화문 수막새, 명문와(銘文瓦, 글자가 새겨진 기와), 귀면와(鬼面瓦, 도깨비 얼굴이 장식된 기와), 토제전(土製塼, 흙으로 만든 벽돌), 굴뚝상부장식토기, 전달린 토기, 등잔, 숫돌 등 백제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초석 건물지는 익산 미륵사지와 부여 능산리사지의 강당(講堂)터, 익산 왕궁리 유적 1호 건물터와 유사한 1동 2실 구조이며, 북편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역사기록에서 알려지지 않은 중요 사찰의 강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서(周書)〉 백제조(百濟條)에는 '寺塔甚多(절과 탑이 매우 많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찰과 탑이 사비도성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부여읍과 그 인근에는 25개소의 백제 절터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도로시설로는 도로와 도로 남쪽의 배수로, 노면의 수레바퀴 흔적이 확인됐다. 배수로는 원지형을 굴착해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목탄, 백제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조사는 백제 사찰의 강당과 사비도성 시가지의 도로시설 등이 확인되는 획기적인 발굴성과"라며 "앞으로 추진될 부여 구드래 일원의 문화유적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백제 건축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 41호, 윤원철 교수 회갑 특집호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발간하는 〈한국선학〉 제41호가 나왔다. 이번 호는 윤원철 서울대 교수 회갑 기념호로 강은애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구원의 '우리 시대의 선학자-윤원철' 기고문을 비롯해 9편의 논문과 1편의 리뷰가 실렸다.

논문으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보조 지눌 사상의 통시적 현재성' △조명제 신라대 교수의 '수선사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삼가염송집〉'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만해 한용운의 선(禪)의식을 중심으로 본 근대성과 탈근대성' △김진영 동국대 교수의 '월저 도안의 선교관(禪敎觀)과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道)' △전무규 동국대 교수의 '하택 신회의 선사상과 사념처수행론에서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비교고찰' △오용석 연세대 교수의 '간화(看話)와 반조(返照)에 대한 일고찰' △김영주 금강대 교수의 '대한불교천태종 관음염송 수행의 실제' △차차석 동방대 교수의 '관음종의 개창 조사 태허의 법통 인식과 그 특징' △김혜련 충북대 교수의 '우익 지욱과 다산 정약용의 탈주학적 〈논어〉 이해' 등이다. (02)2123-2400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2015년 학술상 공모

올해로 창간 16주년을 맞은 불교평론이 학자들의 연구의욕 고취와 불교학을 진흥을 위한 2015학술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간행된 불교학술도서가 대상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할 학술도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 저술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고취한 저술 △해당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저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한 저술 △주요 불교문헌의 치밀한 번역과 주석을 시도한 저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금은 500만원이며, 마감은 9월 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해당분야 도서 2부와 200자 원고지 10매 가량의 요약문을 제출하면 된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2015 부산광역시 민간 경상 보조금 지원 사업
생명나눔으로 행복 도시 부산 만들기



제7회 생명나눔 걷기대회
희망세상 만들기
2015 10. 10 (토)
14:00~17:00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참가대상 환우와 가족, 부산 시민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기증 & 후원회원 등
장소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참가비 무 료 (선착순 1,000명 기념품 증정 – 사전접수 우선 증정)
사전접수 9월 21일(월) ~ 10월 7일(목)까지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전화, 팩스, 이메일 접수 및 현장접수 가능) ※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문의 Tel. 051) 853-0429 / Fax. 051) 853-0439
www.bslisa.or.kr / bssangmung@hanmail.net

추첨을 통한 경품증정이 있습니다.

주최 |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BBS 부산불교방송 BTN
특별후원 | 범어사
협찬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실업인회 주방기구 제조회사 엘지에스 변호사 신익철 법률사무소 KB국민은행 지장수 연당 참치 대명대학교 뷰티케어계열 KJ 김&정해운대병원 우리들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하나병원 밥스 햄홍빙키 장전치과 김해복음병원

생명·명상·치유의 땅, 오대산 세상을 품다

제1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10월 9일~18일 개최



10일 실록 · 의궤 이운식 열려
스토리텔링 '다람쥐 제사' 눈길
터키·몽골·인도 명상음악 선뵈

단풍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생명과 명상, 치유를 주제로 한 문화축전이 불교성지인 오대산 일대에서 성대히 펼쳐진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오대산 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오대산 문화축전은 '오대, 세상을 품다'를 주제로 불교 및 지역문화,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문화축전은 10월 9일 오후 2시 부처님 사리 이운식 및 수륙대재를 시작으로 오후 6시 월정사 특설무대에서의 개막축하공연 '오대'를 통해 막을 올린다. 이날 오후 8시부터는 소원만등 밝히기 행사도 진행된다.

10월 10일 오전 12시에는 의궤 및 실록 이운식 및 고유재가 진부 중앙로에서 펼쳐진다. 월정사는 현재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원소장처 환수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오후 2시 오대산 지장암에서 특별한 인형극인 '다람쥐 제사'가 펼쳐진다. '다람쥐 제사'는 이번 오대산 문화축전을 맞아 준비한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다. 오대산 지장암에는 한 스님이 겨울철 땅에 묻힌 도토리와 알밤을 꺼내 먹은 뒤 이튿날 겨울 양식을 뺏긴 다람쥐가 새끼를 데리고 나와 그 스님의 고무신짝을 물고 죽은 일화다. 지장암은 그 이후 다람쥐 49재를 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전기간 오후 3시에는 산사음악회가 시리즈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명상음악을 접할 수 있다. 10일에는 전통터키 명상음악 피스피즈, 수피댄스 등이 펼쳐지며 11일에는 클래식 협주, 12일에는 어린이 오케스트라, 13일에는 국악 한마당, 14일 연희마당극 혜랑의 호랑이날다, 15일 클래식 협주, 17일 몽골 · 인도 명상음악, 18일 이박사와 윈디시티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10일 오후 6시 30분에는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중심으로 민속의식인 월정사 탑돌이가 펼쳐지며 11일 오전 11시 한강시원제 및 공연, 13일 오전 12시 초중고 동아리 공연, 14일 지역문화인공연, 15일 12시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 18일 전국차인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특별행사로 16일 오후 6시 월정사 특별무대에는 시인 말로, 전제덕, 김창균, 전동균, 손택수, 이홍법, 소설가 김도연, 조정래, 김초혜 씨 등이 참여하는 오대산 책읽는밤 북콘서트가 열린다.

또 불교전통을 알리기 위해 17일 오전 12시 전통불교 사물-법고시연과 오후 1시 제8회 전국승가학인 법고대회 등도 펼쳐진다.

이번 오대산 문화축전은 국내외 초청인사, 관광객, 신도,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우 등 15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정사 측은 "오대산문화축전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것"이라며 "또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공연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 및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님아, 그 강을…' 진모영 감독, 청소년 특강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명사와의 만남' 9월 12일 열어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9월 12일 진모영 감독을 초청해 명사와의 만남을 진행했다.〈사진〉

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명사와의 만남은 독립영화로 480만 관객을 동원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영화 시청 후 청소년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MBN법'과 독립PD에 대한 이야기, 불교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와 차기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진모영 감독은 "'MBN법'은 갑의 위치에 있는 정규직 PD가 을의 위치해 있는 독립PD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한 사건"이라며 "방송사는 사과도 없이 조사나 재발방지책도 전무한 상황으로 재발방지책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모여 추진하고 있는 법이 'MBN법'"이라고 설명했다.

진모영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수 있는 건 사랑뿐"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작은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다인(전북여고 1학년)학생은 "영화나 방송에 관심이 있어 진로를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만남을 통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독님이 말씀하신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독립PD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남도 사찰음식 강좌 개최

남도 사찰음식의 참맛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개설됐다. 전남 구례에 위치한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 성보박물관은 9월 15일 '제2기 화엄사 박물관학교 산사의 밥상' 개강식을 개최했다. 화엄사에서 공양주로 10년간 대중공양을 전담한 마하연 보살이 강사로 나선 이번 강좌는 사찰음식 기초부터 사찰음식 전반에 걸친 내용이 교육된다. 11월 24일까지 전체 10주 강의로 매월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진행하는 강좌에는 통가지구이, 연근새싹 샐러드, 산사의열무김치, 우엉구이, 오이장아찌, 버섯모듬편, 호박고구마맛탕, 양배추물김치, 연근대추물조림, 더덕단호박 소스, 톳나물조림, 깻잎조림, 깻잎두부말이, 양념깻잎김치, 포고버섯죽, 버섯탕수채, 두부선, 야채김말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8주차에는 특별강사로 성환 스님이 나서 감자오이국, 참외사과무침, 된장고추쌈장 등 조리법을 강의한다.

마하연 보살은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강의를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원바위 동전모아 자비의 연탄을…

마이산 탑사, 9월 14일 독거노인 13가구에 4,030장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환절기를 맞아 난방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전달했다.〈사진〉

마이산 탑사는 9월 14일 진안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릴레이 연탄 나눔 행사에 동참해 진안군 마령면 일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13가구에 연탄 4,030장을 전달했다.

진성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정해 스님, 홍보국장 진송 스님,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을 비롯해 나누우리 봉사단과 진안군 어린이 봉사단 '이쁜 손 이쁜 마음', 전주 분원 실상사 나누우리 봉사단 30여 명이 릴레이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탑사는 이 동전을 모아 연탄구입자금을 마련하고 나누우리 봉사단 등과 함께 직접 가구마다 직접 전달해 더욱 자비실천의 의의를 더했다.

진성 스님은 "산간지역인 진안은 평지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일교차가 매우 크다"며 "가을이면 난방비를 마련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이 감기로 고생을 하는 것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연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마이산 탑사를 찾은 참배객들의 작은 동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탑사를 찾은 모든 분의 마음이 추운 겨울 홀로 지낼 어르신에게 전달된 것 같아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탑사는 지난 9월 10일에도 지역의 홀몸 어르신 100분을 초청해 생일잔치를 열었다. 매년 봄과 가을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10월 중에는 김장김치와 자비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대 통합위한 가을 정취 한마당"

'가을이 오는 소리' 9월 12일 심곡사 떡목음악회 개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익산 미륵산 심곡사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 산사음악회가 열렸다.〈사진〉

익산 심곡사는 9월 12일 경내 떡목 공연장에서 '신명나는 산사 콘서트' 주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전통 춤과 민요, 판소리의 국악공연과 대중가요, 힙합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두루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 심곡사 음악회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심곡사 한주 화평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지역주민 10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개그맨 박범수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떡목음악회는 전통무용과 가야금 병창, 해금 연주, 남도민요의 신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남도명창 임화영과 소리꾼 송세운의 심청가와 퓨전국악 공연팀 아이리아 공연이 펼쳐져 신명나는 우리가락의 세계에 빠져들게 했다.

90년대 인기가수 심신과 트로트 가수 김유미, 최서희가 출연한 대중가요 공연은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화평 스님은 "떡목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국창의 반열에 오른 정정렬 명창을 기리는 떡목공연장에서 산사의 가을 정취에 취해 몸과 마음이 힐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우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심곡사 칠층석탑에서 다량의 보물급 문화재가 발굴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심곡사 음악회는 또하나의 무형문화를 창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외국인복지단체, 캄보디아 추석행사



광주지역 불교계 외국인단체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추석을 맞아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지난 20일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에 위치한 옥동공원에서 진행한 이번 추석행사는 캄보디아를 프츰번(추석) 행사로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캄보디아공동체 회장 스나를 비롯해 캄보디아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캄보디아 불교의식, 전통음식, 전통춤, 캄보디아 패션쇼와 전통놀이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공연으로는 불자예술공연단이 출연하여 난타와 벨리댄스, 부채춤과 함께 추석맞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현재 광주지역 캄보디아공동체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운영되며, 매년 4월과 10월에 축제를 진행한다. 9월에 시작된 프츰번(추석)축제는 캄보디아 전통축제로서 광주. 전남 캄보디아근로자들이 서로 상호간에 문화 교류를 통해 목적으로 열린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이번 행사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기업들과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와 사업장 관련법을 교육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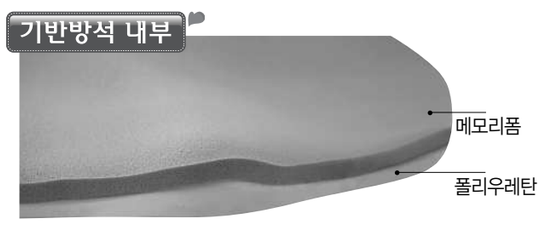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해수관음보살의 음성, 시방세계에 전해요”

해조음 불교음악밴드 창단 10주년 음악회 12일 개최

불교계 최초의 음악밴드 ‘해조음’(리더 홍광현)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9월 12일 부산 해인정사에서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산사의 고즈넉함과 어울려 진행된 해조음의 공연에는 수진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및 200여 대중이 참가했다.

해조음 밴드의 공연 직전에는 비가 내렸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하자 하루 종일 내리던 비는 거짓말 처럼 그쳤다. 청아한 가을 공기와 바람 소리,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밴드 해조음은 합장으로 청중을 맞았다. 그리고 ‘해인’ ‘고향’ ‘나리꽃’ 등 아름다운 가사가 담긴 음악을 차례로 선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수진 스님의 시낭송과 하모니카 연주 등 특별 공연이 이어졌다. 스님은 동요곡을 연주하며 대중들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진 스님은 해조음 홍광현 리더와 함께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해 밴드를 창단하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어 더욱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무대였다.

수진 스님은 “동심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80년대 초 만행길에 찾아간 작은 섬에서 웃지 않는 작은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 한 아이를 위해 걸망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분 적이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에 퍼지는 미소를 보며 이것이 불교이며 음악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 후 수진 스님은 소외 받는 아이들을 위한 문화 활동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음반 제작에 참가하고 음반 가사를 직접 작사하고 제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가은(35)씨는 “이처럼 실력있고 아름다운 밴드가 불교계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특히 창단 이유가 너무나 아름답다. 아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음악을 전달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해조음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인정사서… 200여 대중 운집
산간벽지 아이들 위한 음악활동
수진 스님 시낭송 등 높은 호응

전기현(60)씨는 “비가 많이 와서 올라오는 길이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비도 완전히 그치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된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해조음은 2005년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불교 최초의 음악밴드이다. 밴드 구성은 보컬에 김연진, 윤숙희, 보컬과 기타에 리더 홍광현, 건반 강소영, 휘슬과 오카리나 옥준, 드럼 김대환 등 6명으로 모두 불자 음악인이다. 부산 국제 영화제를 비롯한 큰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며 실력을 인정 받아온 그룹 해조음은 원래 부산에서 2001년부터 ‘배낭여행’ 이라는 언더밴드로 활동해 왔다.



불교음악밴드 해조음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부산 사하구 해인정사에서 주지 수진 스님과 함께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수진 스님과의 첫 인연은 리더 홍광현씨가 40여 년 전 어린 시절 부산 연산동 마하사에서 처음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 후 음악활동을 해왔던 홍광현씨는 “청소년기와 군대 갈 때에도 스님께 많은 조언을 얻고 음악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수진 스님의 권유로 해조음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 가게 된 것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현재 수진 스님과 해조음은 1집 ‘살구꽃이 피는 여기 해인에’, 2집 ‘해조음Ⅱ’, 3집 노스탈지아를 제작했다. 특히 10년 동안 해조음은 수진 스님과 함께 산간벽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며 문화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수진 스님은 “10년 동안 창단의 의미를 잊지 않고 목표를 위해 활동을 해왔지만 부족하게 느껴진다. 앞으로 창단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고 소외된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홍광현 리더는 “그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10주년을 맞아 더욱 본격적으로 창단 의미를 되새기고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며 “해조음은 포교와 봉사가 가장 큰 뜻이다. 아주 깊은 산골 작은 마을 구석 구석을 찾아다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음악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청소년 위해 더욱 노력 기울 일 것”

기장 동림사 · 기장경찰서 청소년 건전성장 및 발전 업무협약

기장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과 정남권 기장경찰서장은 9월 11일 기장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해왔던 그 동안의 경험을 발판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 삼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림사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참선, 사경, 절 명상 등 불교 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 및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성미 기자

‘제1회 연제구청소년어울림한마당’ 성료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제1회 연제구청소년어울림한마당’을 9월 12일 온천천시민공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제구에 있는 동여자중학교, 부산정보고등학교, 여명 중학교 등 중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무대를 통한 댄스 공연과 마술쇼 참가 등 다양한 활동에 동참했다.

아울러 파라미타와 함께 준비한 부스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매듭공예, 전통차 다도, 버튼 만들기, EM 비누 만들기 등도 진행됐다. 파라미타는 이날 사경을 이용한 족자 만들기, 드립커피, 비누 클레어 등 부스를 개설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하성미 기자

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 의료원 격려 방문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스님, 부본부장 목종 스님 · 자인 스님 및 사부대중 30여명은 9월 11일 동의의료원을 방문하고 병실을 돌며 병실에 있는 환우 800여명과 가족들을 격려했다. 스님들은 일일이 병실을 돌며 환우들을 격려했다. 이어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7층 대강당에서 ‘제9회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음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성우원 합주단, 가수 설라경, 코젠어린이 예술단 난타 공연, 바나나 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



하성미 기자

송림사 행복나눔음악회… 2000명 운집

칠곡 송림사(주지 혜성)는 9월 12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5회 칠곡군민과 함께하는 송림사 행복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정법사 주지 혜정 스님,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 외 백선기 칠곡군수, 전화식 경상북도 문화체육국장, 홍의락 국회의원,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림사 주지 혜성스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랑 이 곳 송림사 부처님전에 내려놓고, 가시는 길에는 행복만 가득 가져 가시길 합장기도 드린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넉넉함 나누는 자비의 추석맞이, ‘훈훈’ 함 더해

부산 불교계, 9월 소외이웃 위한 쌀 전달 줄이어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쌀을 전달하고 따뜻한 추석맞이에 나섰다. 9월 16일 삼광사는 쌀 700kg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최주덕 신도 부회장, 권길용 총무위원, 정일태 교무위원, 자비희사 28품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쌀은 독거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아동들에게 각각 전달됐다.

최주덕 신도회 부회장은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외로워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기원해본다”고 말했다.

(사)맑고 향기롭게(회장 박수관)는 9월 18일 부산진구청에서 추석맞이 이웃돕기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진구청은 전달 받은 2000만원 상당의 쌀을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세대 등 형편이 어려운 500세대에 쌀을 전달한다. 이 자리에는 박수관 회장,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맑고 향기롭게 운영위원 10여명이 참가했다.

박수관 회장은 “이웃 사랑 실천은 맑고 향기롭게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며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진행해온 장학사업, 복지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추석을 맞아 9월 23일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총 400세대의 소외 이웃을 초대해 쌀과 생필품, 떡, 음료 등 풍성한 한가위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흥겨운 민요 축하공연과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어울림 한마당’ 도 마련됐다.



부산 불교계에서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쌀 나눔을 진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발원했다. 사진은 삼광사가 쌀 전달식 개최 후 기념 사진

하성미 기자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깨달음 없으니…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일세”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⑱ 오행산에 갇히는 손오공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이 내건 내기의 조건, 손오공이 보기엔 참으로 달콤하다.

‘내 손바닥만 벗어나 봐라! 옥황상제에게 집 비워 달라 해서 네게 주마!’

조그만 판잣집이 아니다. 하늘나라 통째로 준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내기에 지면 각오해라! 다시 요물 수준으로 떨어져 하계로 내려가야 한다.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나와 다시 내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까지 몇 겁은 고생해야 할 것이야!’

물론 손오공 귀에 이런 말이 들어올 리 없다.

‘내 근두운 빠르기를 모르는 친구로군! 이 친구 옥황상제보다 끗발이 높은 거 같으니 단번에 내기에 이겨 천궁 접수하는 일만 남았구나.’

그래서 내기 시작! 부처님 손바닥을 내미신다. 연잎 같은 고운 손 내미신다. 서럽게도 고운 손 내미신다. 손오공 몸을 솟구쳐 그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하나 둘 셋! 손오공의 장한 근두운 술법~바람개비처럼 돌면서 십만 팔천 리를 나간다.

한참을 달려가던 손오공 앞에 푸른 하늘을 떠받친 다섯 개의 살색 기둥 등장!

‘아! 이것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걸 보니 여기가 세상 끝이로구나! 그렇다면 세상 끝까지 왔다간 기념으로 표시를 해야지.’

가운데 기둥에 멋있게 휘갈긴다.

“제천대성 손오공, 이곳에 다녀가시다!”

그리고 개처럼 다리 한 짝 들고 영역표시까지~

‘으~ 시원하다!’

그리고 다시 휙~ 날아 돌아와 부처님 앞에 선다.

‘나 하늘 끝까지 다녀왔다. 그러니 옥황상제에게 빨리 하늘나라 비우라 해라!’

부처님 슬쩍 웃으시며 손바닥을 내미신다. 그 가운데 손가락에 선명하게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글씨

“제천대성 이곳에서 꼴값 떨다 가다!”

원숭이 오줌 냄새까지 진동하누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괴사냐.’

놀란 손오공, 놀란 근두운 펼쳐 달아난다.

부처님 손바닥 뒤집어 한대 갈기신다.

그 한방에 완전히 K.O. 넉 다운! 하늘 밖으로 튕겨져 나가 하계로 쳐 박힌다.

부처님 손가락을 화, 수, 목, 금, 토 오행(五行)의 산으로 바꾸어 그 아래 손오공을 완전히 눌러버린다. 아, 불쌍한 손오공. 돌에서 태어난 주제에, 원숭이 주제에, 신선의 장부에 이름까지 올렸었건만 한 때의 잘못된 생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쳤더니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단번에 하늘에서 땅으로 처박혀 오행의 감옥에 갇혔네! 한 때의 영화 꿈만 같아라. 부처님 자비로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언제나 이 감옥 벗어날까? 당나라 현장법사, 언제나 오시려는가?

잘 아시는 대목이죠?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뛰어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 “지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지!” 하는 말들 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가 그 출처지요. 그렇지만 늘 쓰면서도 사실은 그 출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모르는 이야기였던 셈이네요. 아무튼 손오공 열심히 근두운 타고 날았는데도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네요. 와~ 부처님 손바닥은 얼마나 넓기에! 십만 팔천 리 날아가는 근두운으로 한참 가도 못 벗어난단 말인가! 부처님의 신통력은 광대하기도 하구나! 이렇게 감탄해야 하는 대목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부처님의 신통력을 우리가 어찌 감히 엿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요~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손바닥을 좌악~ 늘려 펴서……. 손오공 근두운보다 더 빨리 늘려 펴서……. 손오공 날아가는 그 앞에 손가락을 턱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네요. 부처님 손이 마치 문어발처럼……. 으윽! 이건 좀 불경스런 상상이군요.

그런 불경한 상상 하는 것 보다는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손오공은 애초에 무엇을 상징한 것이었던가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숭이처럼 나부대는 마음, 즉 마음 원숭이였거든요. 절에서 가끔 들으신 분도 있는 마음 원숭이에 여섯 창문(心猿六窓)이라는 비유에 나오는 원숭이죠. 그리고 좁게는 마음 가운데 지적(知的)인 측면을 가리키기도 하구요. 물론 깨달으면 지혜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리석음이기도 한 그 마음의 측면을 손오공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여기서 어떤 존재일까요? 부처님은 바로 깨달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지요? 붓다(Buddha)의 뜻은 ‘깨달은 이’ 이고, 이것이 우리말에서 부처가 되고, 거기에 존칭이 붙어 부처님이 된 것이라는 건 우리 불자들의 기본 상식! 여기서 손오공과 부처님을 대비하면 바로 앞에 이야기한 구도가 됩니다. 손오공은 무한한 가능성의 일부를 개발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상태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무한한 마음의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한 존재, 깨달은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진 힘을 조금 개발하여 제 잘난 맛에 취해 있는 마음이 어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마음을 넘어서겠습니까? 그게 바로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겠지요.

오행은 세상 윤회를 의미
막강한 능력도 깨달음 넘지 못해
이타심과 자기 절제 강조

그리고 조금 능력을 드러낸 마음과 완전히 깨달은 마음은 양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양적인 차이라면 어떻게 애를 써서 상대해 볼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질적인 차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에는 어찌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신(神)과 부처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차원의 다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죠?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 등의 신 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그리고 불교가 전파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믿어지고 있던 신들도 다 불교를 옹호하는 신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절에 산신각도 있고, 용왕각도 있고, 어떤 절에는 칠성님 모신 전각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런 신들을 다 모시다 보면 부처님 지위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 신들과 부처님의 차이가 신통력이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데 있다면 어찌될까 싶네요. “당신이 나보다 좀 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판 붙어 볼만은 하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앞 이야기에서 했지요? 좋은 업을 쌓아서 좋은 위치에 가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가 없다고 말해야 하나요? 어디가 가장 높은 곳이다 싶으면, 바로 그 위가 있습니다. 수명이 억겁인 세상이 있으면, 억겁하고도 한 겁을 더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신통력이 이 정도면 최고다 싶으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신통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높게!”를 추구하는 길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업보를 가지고 다투는 세상의 이야기이며, 바로 윤회의 세상 이야기이며, 우리 중생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들도 그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명과 신통력을 가졌다 뿐이지 차원이 다른 존재는 아니란 말씀이죠.

부처님은 그런 세상에서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힘세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한 끗발을 다투는 세계를 벗어나신 분입니다. 윤회의 세상에서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훌륭한 지위를 차지하신 분이 아니라 온전히 그 윤회의 사슬을 끊어 버리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신들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이 우리와 본디 종자가 다른 분은 아니기에, 우리도 깨달음을 얻으면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우리가 한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의 비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가 출중해도, 신과 같은 힘을 지녔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이 어찌 깨달은 온전한 마음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 손바닥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한 주제에 제 조그만 힘에 취해 날뛰던 마음 원숭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만났습니다. 그 동안 날뛴 과보를 좀 받아야 하겠지요? 이제 인고의 세월을 좀 보내야 할 것 같군요. 그런데 그 인고의 세월은 오행의 산 아래에서 보내야 한다네요. 오행은 일주일에서 월, 화, 즉 해와 달을 뺀 것이죠. 화, 수, 목, 금, 토……. 즉 불과 물, 나무. 쇠, 흙이네요. 이 세상을 이루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중국의 고전인 서경(書經)에 처음 나온 것인데, 그 뒤로 주역(陰陽)에서 나오는 음양(陰陽) 사상과 결합하여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근본 원리로 되었지요. 손오공이 그 오행산 아래 깔렸다는 이 대목에서 저는 플라톤이 말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손오공이 오행산 아래 깔린 것, 그것은 본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마음이 오행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는 제한 속에 갇힌 것을 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플라톤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죠. 영혼은 본디 이데아의 완전한 세계에 살았기에, 온전한 앎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앎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의 무대는 다르지만 비유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손오공은 이제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보통 큰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을 온통 뒤집어엎었으니, 하루 이틀 감옥에서 보낸다고 벗을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 대목에서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흠~ 내 마음이 한번 힘쓰면 하늘 세상 뒤집어엎는 건 일도 아니란 말씀이야!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손오공이 하늘 뒤엎은 건 그런 비유가 되니까요. 그래도 죄는 죄대로 거는 거니까, 고생은 해야겠죠? 그 큰 힘을 올바른 데 써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나가는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진실한 참회를 거쳐야 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슬쩍 “죄를 다 벗는 날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으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희망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다르지요. 그래서 손오공이 희망에 찬 나날을 보내는 것이야? 그건 아닙니다요. 목마를 때는 구리 쇳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쇠구슬을 먹는 나날입니다요. 그래도 먹는 게 어디냐, 손오공이니까 그 정도는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구요? 허긴 그것도 그렇군요.

서유기는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나쁜 짓한 과보를 받아 괴로움을 겪지만 선근은 끊기지 않았네. 언제나 부처님의 속박에서 벗어날까? 당나라 현장법사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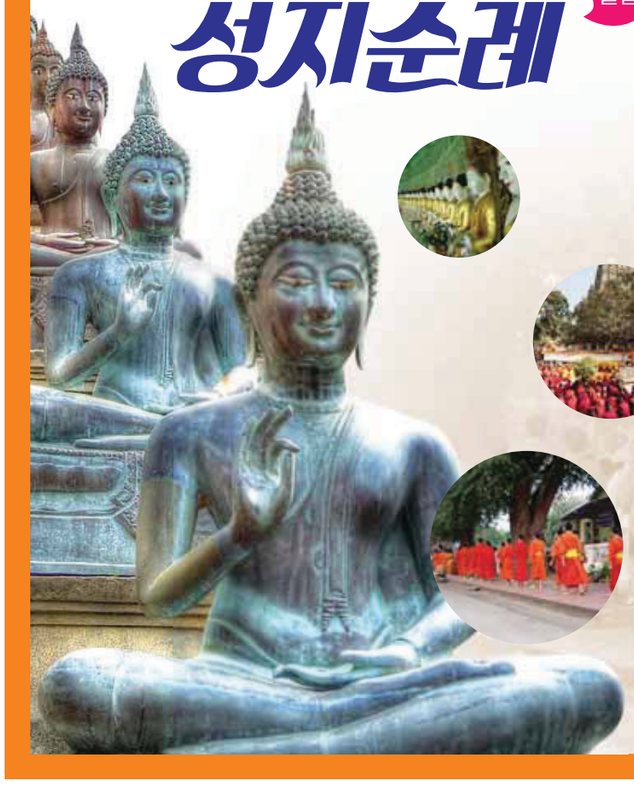
자, 그럼 우리도 다음 회를 기다려서 당나라 현장법사님 만나 뵐까요? 기다려 주세요.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11월 21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 12월 30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和諍, 이견을 소통으로 이끄는 과정



원효의 혜안-화쟁(2)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언어를 통한 동일성과 배제성 확보, 견해의 무조건화와 절대화는, 이처럼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한다. 2500여 년 전에 펼쳐진 언어들은, '사유와 욕구가 언어와 한 몸처럼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언어적 삶' 과 '언어를 통한 이익 관철과 승리' 를 추구하는 길을 인간이 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래서인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영성들은 흥미롭게도 인간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들을 쏟아낸다. 특히 붓다와 노자, 장자는 언어에 대한 유사한 혜안을 펼친다.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이익의 배타적 관철을 위해 언어적 허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추어내는 동시에 그 언어 환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일러준다. 그 중에서도 붓다의 혜안은 그 철저함과 체계성에서 단연 우뚝하다. 그는 연기(緣起, 조건에 의한 발생) 통찰에 의해 개념 언어의 무본질 · 무실체성과 견해의 조건성을 밝혀줌으로써 언어 환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

異見을 껴안을 수 있는 길

그로부터 약 1200년 지난 한반도. '언어로 싸우는 인간' 을 치유하려는 위대한 영성의 빛 한 줄기가 다시 밝아진다. '다투는 견해' (諍論)들을 껴안아 치유하려는 화쟁(和諍)의 스승 원효(元曉, 617-686). 그가 황홀한 언어치유의 춤을 춘다.

언어를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언어 인간이 된 이후, 싸움은 불필요하게 커지고 격렬해졌으며 잔인해졌다. 싸워야 할 이유와 동력을 언어에서 얻게 된 인간은 적개심을 무한히 증폭하고 장기화시킨다. 이 모든 언어적 투쟁에서 활약하는 것은 언어규정의 동일성과 배제성, 그리고 견해의 무조건화 · 절대화이다.

싸우는 인간의 언어적 투쟁에서, '다른 견해' (異見)는 같게 만들거나(동일화) 소거해야 할 대상이며(배제), 무조건적 · 절대적으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이처럼 동일화와 배제, 무조건화 · 절대화의 태도를 지니고 만나는 것이 쟁론(諍論)이다.

다른 견해들을 편입적 정복이나 소거적 승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길이 있을까? 그런 길을 내려면 오래되고 강력한 언어적 관행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역행(逆行)과 자유가 가능할까?

원효는 '견해의 문(門) 구별' 에서 그 실마리를 잡는다. 원효 시대의 한반도에는 다양, 다층의 불교이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었고, 불교 지성들은 그 다채로운 이론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수립하여 개진하였으며, 그것은 흔히 이견(異見)들의 쟁론으로 이어졌다. 원효 사후 그의 삶에 대한 최초의 평전적 기록으로 보이는 '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 는 그때의 정황을 이렇게 전한다.

"(화상의 저술) 가운데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은, 여래가 세상에 계실 적에는 온전한 가르침(圓音)에 의지하였지만, 중생들이 … 빗방울처럼 흩뿌리고 헛된 주장들이 구름처럼 내달리며,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타당한데 다른 사람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그 상이한 견해들의 배타적 주장이) 황하(黃河)와 한수(漢水)처럼 큰 강물을 이루었다. (空을 싫어하고 有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산을 (버리고) 골짜기를 돌아가는 것과 같고, 유(有)를 싫어하고 공(空)을 좋아하는 것은 나무를 버리고 큰 숲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청색과 남색은 바탕을 같이하고, 얼음과 물은 근원을 같이하며, 거울은 모든 형상을 받아들이고, 물이 (수천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

차이가 존중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방식을 '소통' 이라 한다면, 차이를 정복하여 동일하게 만들거나 제거하고 일방의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관계방식은 '불통' 이다. 그러기에 쟁론의 특징은 '차이들과의 불통' 이다. 원효의 화쟁은 쟁론의 불통을 이견의 소통으로 바꾸려는 방법이고 과정이며 결과이다.

원효는 불교이론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을 '만나게 하고 통하게 하는' (會通) 데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 소통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 방법론은 '문(門) 구별' 이다. 원효는 '문(門)' 이라는 용어를 즐겨 채택하여 사상을 개진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하나는 '종류' 이고, 다른 하나는 '견해 · 관점 · 이론 · 지평의 조건인과 계열' 이다. 이견을 회통하여 쟁론을 화쟁할 때 채택하는 문의 의미는 후자이다.

'A 문(門)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되고 B 문(門)으로 보면 저런 뜻이 된다. 그러므로 모두 살려 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원효가 구사하는 화쟁 논법의 정형이다. 원효가 시도하는 문(門) 구별은 견해 · 이론에 대한 '조건인과적 이해' 이다. 모든 현상은 '일정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이 인과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 고 보는 것이 붓다의 연기(緣起) 통찰이다.



원효 스님의 진영. 1978년 이종상 화백이 그린 것으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견해의 일방적 절대화, 갈등 유발
나라마다 김치 맛 평가 상이하듯
'견해 차이 인과' 파악해 풀어내면
서로 이해하고 발전하는 계기 돼

원효는 이 연기적 사유를 '견해 · 이론의 문(門) 구별' 로 계승하여 쟁론의 치유와 소통에 적용한다. 견해의 문(門)을 구별하여 배타적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시큼한 김치를 두고 견해 다툼이 벌어진다. 한국인 '갑' 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진미' 라고 군침을 흘리는데, 외국인 '을' 은 '악취가 풍겨 차마 입에 넣을 수 없는 썩은 채소' 라고 고개를 돌린다.

'갑' 은 '을' 을 '맛을 모르는 사람' 이라고 비난하고, '을' 은 '갑' 을 '야만인' 이라고 경멸한다. '갑' 은 김치를 좋아하는 다른 한국인들을 불러 자기 견해가 옳고 '을' 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을' 역시 김치를 혐오하는 외국인들을 불러 자기 견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갑' 과 '을' 모두 '좋은 맛' 과 '싫은 맛' 을 직접 경험하고, 자기와 견해를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견해의 무오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다. 김치가 맛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맛없다는 견해를 철회하든가, 맛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맛있다는 견해가 틀렸으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편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 팽팽히 맞서는 이 견해 다툼은, 급기야 두 사람의 관계를 심각하고 훼손한다.

그러자 '병' 이 다툼을 해소시키기 위해 '갑' 과 '을' 을 불러 대화한다. '병' 은 같은 대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사람의 이견(異見)을 '조건 인과적' 으로 설명한다.

"한국인 '갑' 은 오랫동안 누적되고 공유되는 한국의 식자재와 음식 맛에 익숙해 있고 감각과 신체도 그에 상응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 '갑' 은 시큰한 김치를 감미로운 진미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외국인인 '을' 은 전혀 다른 식자재와 음식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니, 그의 상이한 환경과 경험 및 감각 조건이 원인이 되어 시큼한 김치를 악취 나는 썩은 채소로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 과 '을' 의 견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모두 살릴 수 있다. 굳이 옳고 그름을 다투어 한 쪽 견해의 일방적 승리를 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병' 의 말을 듣고 '갑' 과 '을' 은 자신들이 '견해 차이의 조건 인과' 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 결과 김치 맛에 대한 견해 차이를 동일화나 배제의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견해의 타당성을 무조건적 ·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부당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김치에 대한 견해 차이를 승패의 다툼이 아니라 음식과 맛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심화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물질적, 정신적 현상은 조건 인과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한다. 아무런 조건 인과 없이 우연히 생기는 것은 없고, 일인 권력자의 뜻대로 조건 인과를 조작할 수도 없다. 인간사와 세계는 '조건 인과의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 이다.

견해도 그러하다. 인간은 동일 대상과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수립한다. 각자가 처한 환경적 조건, 유전적 조건, 이익 관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를 발생시킨 조건 인과가 다르다.

이 점을 인지하여 조건 인과의 차이와 내용을 포착하려는 태도를 지니면, 상당수의 배타적 쟁론들은 해소되거나 조정된다. 특정 견해를 형성한 조건인과의 특징과 타당성 정도에 대한 이해력이 커지는 만큼, 견해 차이의 상생적 상호작용이나 조정 가능성도 커진다. 그럴 때 견해 차이는 정복이나 소거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공존의 벗이 될 수 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같지 못하고(如之者不如好之者),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같지 못하다(好之者不如學之者)는 말씀이 있다. 유서(儒書)에서 만난 구절이다.

구차스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가 앞서 간다. 좋아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공부하는 것과 스스로 좋아서 공부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 좋아해서 하는 연구보다 즐기면서 하는 연구 결과는 더욱더 그 격차를 벌려 놓을 것이다.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하자.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는 곧 실증과 졸음을 몰고 온다. 좋아서 읽는 책이라면 어려운 페이지에서는 건너뛰게 되어 있다.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책과 사람이 둘이 아닌 하나 되어 시간관념마저 잊게 된다.

삼천 배 정진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탈이 나고 중도 하차하게 되어 있다. 즐기면서 절을 해야 한다. 기도 정진 또한 잘 짜인 시간표의 일정에 의해 법당을 드나든다면 습관적 의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즐기면서 기도 정진을 해야 한다.

참선 수행 또한 마찬가지다. 죽비소리에 맞춰 앉고 서기를 반복한다면 조신(調身)은 될지언정 조심(調心)이나 조식(調息)은 멀어져 갈 게 뻔한 일이다. 참선 정진 또한 즐기면서 해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치자. 글자 그대로 이런 행위는 이어나가는 것이지 즐기는 신앙은 아닌 것이다. 일요일 교회에 갈 일이 즐겁고 사찰에 갈 일이 즐거워야 참 신앙인 것이다.

남녀 사랑에 있어서도 좋아하는 쪽보다는 즐기는 사랑이 더욱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좋아함은 상대적이지만 즐기는 것은 절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빈낙도(淸貧樂道)라는 말은 있지만 청빈호도(淸貧好道)라는 말이 없는 이치는 좋아함은 곧 싫어함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즐겨야 한다.

어깨동무하며 주먹나팔이라도 불며 오늘을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아는 것은 좋아함만 못하고, 좋아함은 즐기는 것만 못할 테니까.

진리는 드러나 있다

중국의 선불교(禪佛敎)에는 큰 스승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뚝 솟은 이가 임제선사라 할 것이다. 우선 임제선사의 시원한 게송 하나 소개하겠다.

옳고 그른 일 모두 다 알 바 없네
(是是非非都不?)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자연 그대로인 걸
(山山水水任自閑)
서쪽의 극락세계 따위 내게 묻지 말게
(莫問西天安養國)
구름 걷히면 그대로가 청산인 것을
(白雲斷處有靑山)

이 시(詩)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는 의식의 전환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본래의 근본 자리에서 보면 옳고 그른 일도 없을 터이고, 자연 그대로가 보살의 모습이며, 분별심을 일으켜 중생과 부처를 구분할 필요 없고, 사바세계 그대로가 극락정토임을 일깨우며, 구름 걷히면 청산(靑山)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남을 지적하고 있다.

행복 · 자유는 버림 · 비움서 비롯되니
오늘을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 되라

진리는 이렇듯 멀리 있거나, 숨어 있지 않는 것이다. 항시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 드러난 진리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 이라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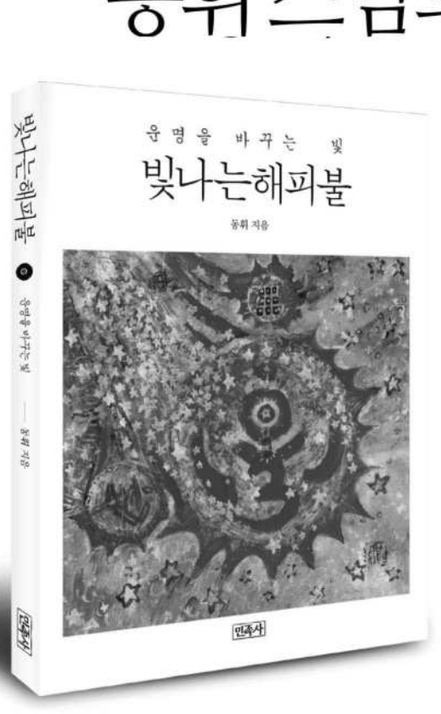
진리 또한 우리네 일상에 널려 있어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진리는 과대포장해서 허공에 매달아 두지 말 일이다. 깊고 높은 곳에서 찾으며 헤매지 말 일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자갈처럼,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이웃처럼 널려 있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한 생각만 접고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와 보살이요, 이르는 곳 마다 극락정토가 아님이 없을 터이다.

우선, 쥐고 있는 것부터 놓아 버리자. 행복과 자유는 버리고 비우는 곳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텅 빈 충만처럼.

민족사 전화 02.732.2403~4

이제는 빛의 시대,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한 이들에게 보내는
동휘 스님의 빛나는 희망과 행복, 성공의 메시지



우리 모두가 빛나는 해피불임을 일깨워 주는, 동휘 스님의 만다라의 세계!
그 빛나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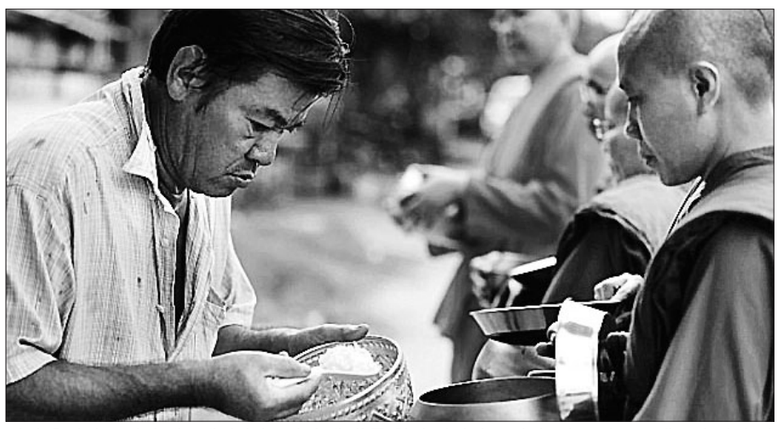
빛을 의식하자. 그냥 계속 햇빛, 불빛, 부처님을 생각하고 밝은 쪽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나 역시 출가 이전 어둡고 추울 때가 있었다. 나 자신이 빛으로 치유했기에 그 에너지의 힘을 정말 잘 알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운명을 바꾸는 빛
빛나는해피불

동휘 스님 글 · 그림 :: 208쪽 :: 값 16,200원 :: 변형 신국판, 올 컬러 :: 민족사 펴냄

태국 불교 '비구니 수행자' 바람 분다

정부와 불교계 억압 불구 '청정 승가' 대안으로 떠올라



여성 출가가 금지된 태국에서 '비구니 수행자'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각종 스캔들이 터져 나오는 태국 비구계에 실망을 느낀 재가자들이 비구니들에 공양을 올리며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출처=AP통신

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길가에 늘어선 주민들이 일군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쌀, 카레, 과일, 과자 등의 공양을 올린다. 태국에서 스님들의 탁발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비구니 스님의 탁발은 신기한 모습이다.

이는 태국에서는 여성의 출가가 인정되질 않기 때문이다. 태국 불교계 대표 기구인 '태국불교협회(Samacom Buddha Sasana Muag Thai)'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구족계 수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0만여 명에 이르는 태국 스님들은 모두 남성인 비구이다. 여성은 오직 '가톨릭 수녀처럼' 흰색 옷을 입은 채 사원에서 수행자가 아닌 불자로서만 생활할 따름이다.

그런데 나콘파톰(Nakhon Pathom) 주(州)를 중심으로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들이 송담마칼야니(Songdhammakalyani) 사원에 주석하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고 그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Asia Times'에 따르면 태국의 비구니 스님은 1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두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스님들이다. 그러나 이들 스님들의 태국에서 삶은 녹녹치 않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들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불교계 지원 정책에서 비구니 스님과 주석 사원을 제외시키고 있고 비구 스님들 역시 그들을 배척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구니 스님들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 지역 주민의 지지 속 출가를 서원하는 태국의 여성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계층도 노동자, 대학 교수, 기업 임원, 언론인, 의사 등 다양하다. '여성 출가'에 대한 관심이 여성 불자들 사이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국 여성들도 구족계를 수지한 수행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담마난다(Dhammananda) 스님은 "우리는 이제야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다"며 "태국에서 비구니 스님의 온전한 수행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태국의 재가불자들의 지원과 세계의 관심이 그 시점을 더욱 앞당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정부와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일을 지속해 아쉽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구니 스님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때다. 재가불자들의 지원과 세계의 관심이 이 상황을 고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불교협, 여성출가 불인정
스리랑카서 비구니계 수지 후 귀환
수행 · 포교 매진해 신도 호응UP
1백여 명 추산… 각국 언론 지지도

'Asia Times'에 따르면 비구 스님 중심 태국 불교계가 최근 돈과 성 관련 스캔들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 청정 승단을 바라는 재가불자들의 바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비구니 스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앙마이의 불교 활동가 본추아이 도자이(Boonchuay Doojai) 씨는 "비구니 스님들은 태국 불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초기 교단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보호센터(Buddhism Protection Center)를 운영하는 텝비수 티카위(Tepvisu tthikawee) 씨는 "비구니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신심이 커지는 것 같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이 역경을 이기고 나면 태국에도 비구니 계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언론들 역시 '보편적인 가치로 성직자를 보아야 하며 봉건적 체제에 가둘 수는 없다'(Bangkok Post), '대중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에 애써야 한다'(Hindustan Times) 등 태국 불교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sia Times'는 "태국의 최고승가위원회가 '스리랑카 수계자'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이들 수계자에 대한 기부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비구니 스님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줄리안 쇼버(Juliane Schober) 아리조나주립대 교수 말을 인용하며 "비구니 스님들은 자신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비구니 수행자의 모습을 스스로 조각하고 있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비구니 스님의 선구자적 걸음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담마난다 스님은 출가 전 교수 불자로 활동하며 태국 불교계의 여성 불자로서는 최초로 구족계를 수지한 바 있다. 이후 송담마칼야니 사원에 주석하며 공무원, 기업인 등 태국 사회 오피니언들을 대상으로 종교 캠프를 봉행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네팔 스님들 '뉴욕 F/W 런웨이' 서다

프라발 구룽 초청… 네팔대지진피해 속 세계적 성원 '감사'



네팔계 미국 디자이너 프라발 구룽의 '2016 봄 컬렉션' 무대 오프닝 행사서 네팔 스님들이 축원을 올렸다.
사진출처=DailyRecord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들의 필참 의류 목록에 빠지지 않는 네팔계 미국 디자이너 프라발 구룽(Prabal Gurung)의 '2016 봄 컬렉션' 무대가 마련된 '뉴욕 패션 위크(New York Fashion Week, 이하 뉴욕 F/W)' 패션쇼 런웨이에 네팔 스님들이 등장해 화제다.

'Columbus Dispatch'는 9월 15일 "30명의 네팔 스님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장소, 패션쇼 런웨이에 올라서 깊은 감동을 주었다"며 "구룽의 '2016 봄 컬렉션' 무대 오프닝 행사 일환으로 스님들은 축원을 올리고 대지진 피해 속 네팔 국민에게 보여준 세계인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F/W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발표하며 패션쇼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간을 뜻한다. 밀라노 · 파리 · 런던 F/W와 함께 세계 4대 F/W로 꼽히는 '뉴욕 F/W'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2016 봄 컬렉션' 패션쇼에 네팔 스님들을 초대한 구룽은 "지진 참사를 당한 네팔 국민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구호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뉴욕 패션 산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며 "네팔계 미국 디자이너로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 이런 바람을 알게 된 네팔의 스님들이 기꺼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구룽은 네팔 지진 직후 지인들과 함께 크라우드라이즈(Crowd Rise)의 '네팔 구호 펀딩'을 적극 도왔다. 이에 힘입어 크라우드라이즈는 목표 금액인 75만 달러를 2주 만에 모금할 수 있었다.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수많은 셀렙(Celeb)에게 주목받고 있는 구룽의 '2016 봄 컬렉션' 패션쇼는 '네팔 불교 빛깔'을 모티브로 한 색상의 옷들로 빛났다.

'Columbus Dispatch'는 "샛노란 빛이 도는 핑크색, 담황색, 갈색 등을 비롯해 주황과 노랑의 혼합색이 물든 옷들이 런웨이를 장식했다"며 "특히 주황색과 노랑색 실로 수를 놓은 백색의 의상이 등장하자 수많은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서 2번째 높은 대불상 들어선다

인도 구자라트주, 9월 5일 국제불교컨퍼런스서 설계 발표

40만㎡부지 1,300만원 예산 규모
석탑 · 전시 · 도서관 등 공원 조성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Gujarat)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불상이 들어선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은 중국 허난성 핑딩산시 루산현(鲁山县) '봄 사원(Spring Temple)'에 위치한 중원대불(中原大佛)이다. 중원대불은 높이 153m의 비로자나불상이다.

구자르트주 지역에 들어설 불상은 108m로 중원대불보다 약 45m 낮고, 태국에 위치한 92m 불상보다 약 60m 가량 높이 제작된다.

인도 북동부지역 잡지 'Northeast Today'(이하 Northeast)는 9월 14일 "구자라트 주정부가 아메다바드(Ahmedabad) 북동쪽 150km 지점에 위치한 불교사원지 데브니모리(Dev ni Mori)에 108m 불상을 건립할 준비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Northeast'에 따르면 예산규모는 70만 루피(한화 약 1,300만원)으로 세부계획은 9월 5일 부다가야(Bodh Gaya)에서 열린 국제불교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인도 관광부 산하 'Gujarat Pavitra Yatradham Vikas Board(이하 GPYVB)'가 맡았으며, 100에이커(약 405,000㎡) 부지에 석탑, 공원, 사원, 전시품 및 도서관 등 완비될 계획이다.



데브니모리(Dev ni Mori) 사원터 108m 불상 설계 조감도.
사진출처=Time Of India

이날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GPYVB 대표로써 참석해 26개국 4백여 대표자 앞에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대불상 건설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구자르트주지사 역임할 당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Northeast'는 "확장 계획은 고대사원의 전통 방식을 따라 교육기관으로서 기능도 포함할 것"이라며 "일본과 스리랑카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GPYVB 대변인 애닐 파텔(Anil Patel)에 따르면 예산은 여전히 수립 중이며 건축사 선정은 최종 결정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1년 이내 착수해 완공까지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대불상이 들어설 데브니모리 사원지는 1953년 주정부 고고학단에 의해 발굴됐으며, 최대 3세기 무렵 1개 사원과 1개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 베트남 스님, 도박에 빠져 사찰재산 '횡령'

베트남불교협회장, 3년 간 사찰계좌서 2억여 원 불법인출

미국서 한 불교 승려가 도박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중남부 도시 라피엣(Lafayette)에 위치한 베트남불교협회서 협회장 캉 르(Khang Le) 스님이 카지노 도박에 빠져 약 15만 달러(한화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사찰 재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NewYork Post'는 9월 15일 "블랙잭 중독에 빠진 스님이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st)서 체포됐다"며 "그는 브루클린(Brooklyn) 연방 법원에 승복을 입은 채로 출정했지만 그의 관할 주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 보도했다.

조사관에 따르면 르 스님은 2011년 블랙잭 열풍이 불던 당시 처음 도박에 발을 들인 후, 비밀리에 레이크찰스(Lake Charles)에 위치한 로베르쥬 카지노(L'Auberge Casino)를 줄곧 드나들었다. 그러다 그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자 사찰의 공금계좌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횡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ewYork Post'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그가 카지노 내 ATM기계서 개인 계좌와 사찰계좌로부터 인출한 돈은 약 38만 달러에 이른다"며 "르는 자신의 신분과 행동을 감추기 위해 항상 조용한 구석자리서 도박했다"고 설명했다.

르 스님은 캐나다서 중고차를 사기 위해 라구아디아 공항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신분이상으로 체포됐다.

한편 르 스님은 변호사 선임 후 보석 신청 중이다.

박아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져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맹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혜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탐진치 三毒의 허망함 몸짓 언어로 탄생

파사무용단 '붓다 이야기 첫번째–버려야 할 것들'
10월 6일 대학로 카페 장에서 제작 발표회



"나라는 존재가 무겁고 어둡다. 삼독(三毒)이 온 몸에서 꿈틀거림을 알아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버려야지! 찰나에 밝은 빛이 보인다. 존재의 가벼움에 안도감이 스미는 이 자리, 지극한 즐거움이 가득한 바로 그 곳?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이상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버려야 할 것들' 기획의도 中에서

탐진치 삼독의 허망함이 몸짓 언어로 태어난다. 파사무용단(단장 · 예술감독 황미숙 · 사진)이 '붓다 이야기 첫번째–버려야 할 것들'의 초연에 앞서 10월 6일 저녁 7시 대학로 카페 '장'에서 제작발표회를 갖는다.

경전 공부와 명상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수행자이기도 한 황미숙 예술감독은 그간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탐진치 삼독의 허망함을 안무로 풀어냈다. "이 작품이 현재의 '나' 그리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지나친 욕망의 꿈을 부풀리며, 이룸에 대해 집착하죠.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집착에 동반하는 분노는 어리석음을 낳아요. '나'를 바라보는 내 안의 시각으로 탐진치를 무대 위에 객관화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황 감독은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들이 일으키는 삼독의 다양한 양상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한다. 여기에 기타 바이올린 등의 라이브 음악을 배경으로 몸의 움직임이 즉흥적 교감을 공유한다. 또한 한 상황의 주제를 무용수들이 음악과 서로 대화하듯 주고받는 장면이 펼쳐진다. 황 감독은 "무거운 주제를 때로는 가볍게 터치하며, 에너지의 흐름을 좇아 자연세계와 일체되는 느낌을 공유하고 싶다"고 전한다.

작품은 프롤로그 '존재'–집착–고해–절연–에필로그 '극락'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 '존재'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순간 인식이 열리면 분별이 시작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다. 존재의 탄생과 삶의 고단한 욕망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표현한다.

'Sin 1. 집착'은 욕망에 대한 집착, 끝없이 반복되는 광증, 중독, 소모적인 시간의 허망함 등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요소가 집착임을 보여준다. 'Sin 2. 고해'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분출되는 화의 어리석음을 표현한다. 'Sin 3. 절연'은 집착과 분노는 '나'와 '너'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며 삼독을 스스로 끊어야 아상을 버릴 수 있음을 말해준다. '에필로그– 극락'은 찰나의 빛 속에 삼독을 끊어버린 '나'를 보여준다. 자연의 순리에 합일되니, 지혜의 눈이 환히 밝아지고 지극한 즐거움에 춤추는 '나'를 발견한다.

바이올린 등 라이브 음악 배경으로
존재부터 극락까지 옴니버스 구성
11월 4일 대학로 예술극장서 초연



파사무용단이 탐진치 삼독을 소재로 하는 '붓다 이야기 첫번째–버려야 할 것들'을 초연한다.

이 작품은 결국 '나'를 변화시켜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발심을 하면 이 과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황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모습이 저랬구나. 나는 현재 탐진치 중 어떤 모습에 빠져 있나 이런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의 나를 관찰해 스스로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황 감독은 앞으로 불교 경전의 내용을 시리즈별로 풀어낼 계획인데 두 번째 이야기로는 인드라망을 무대에 옮길 계획이다.

파사무용단은 10월 6일 제작발표회를 갖고 라이브 음악과 함께 작품을 공개하며 작품 제작을 위한 후원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붓다 이야기 첫번째–버려야 할 것들'의 본 공연은 11월 4일 저녁 8시, 5일 오후 4시 · 저녁 8시에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서 각각 공연된다. (02)2272–215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추석에 불교 애니 · 영화 · 다큐로 '힐링'

불교TV · 불교방송, 추석 특집프로그램 다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과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 이하 BBS)이 불교 애니메이션 · 영화 · 다큐멘터리 등 다채로운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BTN이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 애니메이션 '감진대화상(鑑眞大和尙)'이다. 총 2부작인 '감진대화상'은 당나라 고승 감진 화상이 율종(律宗)을 일본에 전파하기 위한 구도 여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전편 모두 한국어 더빙으로 충실히 제작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감진대화상'은 9월 26일 오후 5시에 1부가, 9월 27일 오후 5시에 2부가 방송되며, 9월 28일 낮 12시30분부터 1, 2부가 연속 재방영된다.

불교만의 의식인 '불복장'을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 '은밀한 의식 불복장(佛腹藏)'도 눈여겨 볼만하다. 9월 28일 오후 2시30분 1부가, 29일 밤 11시 2부가 방영되는 '은밀한 의식 불복장'은 불복장 물목의 의미와 상징은 물론, 복잡한 의식의 절차를 HD영상으로 담아낸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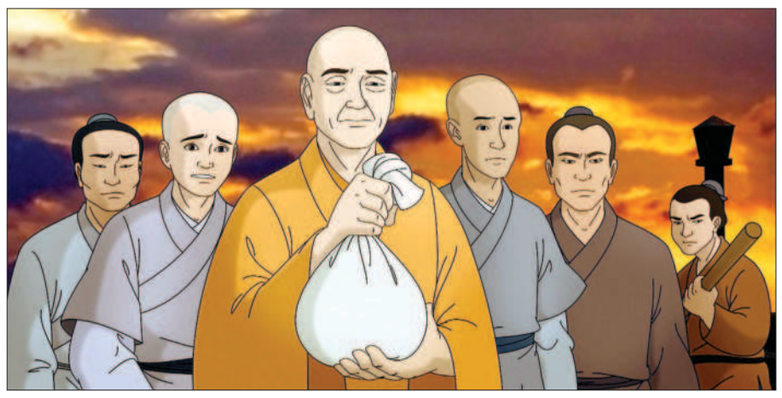
불교계 최초로 노인무료병원을 설립하고 20년 간 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이끌며 복지 한류의 씨앗을 틔워낸 故 각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다큐멘터리도 방영된다. 각현 스님의 다큐멘터리는 △9월27일 오전 11시30분 △28일 오전 9시 △29일 오후 5시에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안심정사 법안 스님의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9월26일 오후 3시 △27일 오전7시 △28일 밤 9시)를 비롯해 '상원사 선재원의 행복한 동행'(△9월27일 밤 10시 △10월1일 오후 3시 △10월 2일 오후 4시), '원력의 빛 세계간화선 무차대회'(△9월 26일 오전 9시 △28일 오전 8시) 등도 특집프로그램으로 다뤄진다.

BBS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라디오는 9월 25일과 29일에 한가위 특집 특별 생방송 '행복한 고향길'을 편성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 내내 특집으로 청취자를 찾아간다.

BBS 라디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아침풍경(9:00~10:00) '붓다를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영산재 이수자 도경 스님에게 불교의례 속에 담긴 염불의 참 의미를 듣는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름다운 초대(11:05~12:00)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26년간 수행한 청전 스님과 소외 계층을 위해 달리는 진오 스님, 108산사 순례의 긴 여정을 마친 선묵혜자 스님에게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BBS TV도 추석을 맞아 한국불교 역사 2천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추석특집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9월 26일 밤 11시 △27일 오전 9시 30분 △28일 밤 11시) 등 다큐멘터리 3편 특집 편성했다. 또한 동자승의 이야기를 다룬 불교영화 '동승'(9월 26일 저녁 7시), '내 마음의 고향'(9월 27일 오후 1시), 구도자의 깨달음을 영상으로 풀어낸 '할'(9월 28일 오후 1시) 등 불교 영화 3편도 선보인다. 신성민 기자



BTN불교TV의 추석 특집 애니메이션 '감진대화상'. 한국에서는 최초 방영된다.

BTN 애니 '감진대화상' 韓 최초 방영
BBS '동승' '할' 등 불교 영화 선봬

"편하게 듣고 쉽게 따라 부르는 찬불가 되길"

불자가수 하윤주 '음성공향' 발매

불자가수 하윤주가 새앨범 '음성공향'을 발매했다. 음성으로 향을 피운다는 의미를 가진 신작 앨범에는 찬미의 나라, 진리의 빛 등 15곡의 찬불가를 실었다.

그는 "찬불가로 부처님전에 예불을 올리며 음성공향을 올려왔다. 내 노래가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신심을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기획 취지를 전했다.

그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수생활을 접었다가 지난 2011년 14년만에 찬불음반을 내 사랑을 받았다. 이번 새 음반은 합창단들이 자주 부르는 곡들을 선별해 솔로곡으로 불렀다.

"사찰에서 합창단들이 부르는 노래는 듣기에는 좋지만 일반인들이 따라 부르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누구나 편하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찬불가를 편곡해 음반으로 담아냈습니다. 찬불가가 의식곡을 넘어 설거지 할 때도, 쉴 때도 쉽게 듣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중화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방송에서 찬불가 지도강사 1호로 활동해온 하 씨는 찬불가를 부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대중가요를 불렀지만 찬불가를 부르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곡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찬불가에 매력을 느꼈죠. 앞으로 찬불가가 유행가처럼 불리워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하윤주의 '음성공향' 음반 표지

하윤주는 1987년 '당신은 나의운명'으로 데뷔해 BBS라디오 방송국 찬불가 지도강사 1호 가수, 1992년 불자가수회 발족(김흥국회장)에 기여했으며, 1993년에는 찬불가요 춘몽을 발표했다. 김흥국, 장미화, 조항조, 진미령, 이자연 등과 함께 옴니버스 찬불가요 음반을 내놓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 농협 : 010-2094-2991-09 ◆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 상호인쇄





미니 : 상호인쇄


수첩 : 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 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1,600 원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1,600 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부처님의 숨결과 향기를 앵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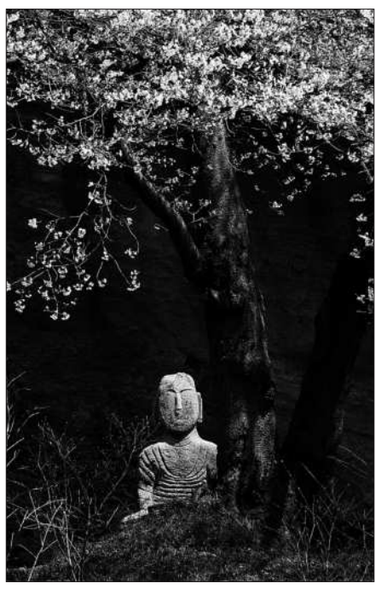
사진작가 전제우 '보이는가, 숨은 붓다' 전

"지난 20여 년 불교사진을 찍기 위해 불교에 입문하고 산사를 찾아 기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는 목련, 벚꽃 아래 명상하듯 앉은 석불, 독서삼매에 빠진 수행자, 히말라야 고산지역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삶 등을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부처님 숨결을 느끼고, 부처님의 향기를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일이죠."

사진작가 전제우 씨가 제 7회 개인전 '보이는가, 숨은 붓다'를 10월 7일~15일 불일미술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국내 산사와 티베트 라다크 등을 여행하며 찍은 26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전 씨는 사진 안에 부처님의 숨결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한국 불교의 미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죠. 있는 그대로를 찍지만 그 안에서 예술성을 가미해 부처님의 숨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석불 작품이 많은데 이또한 정제된 틀 안에 갇히기 보다는 석불의 강약을 살려 포착해내 감동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전제우 작가의 '휴(休)-1'

10월 7일~15일 불일미술관서
국내 산사와 티베트 등 여행
법향 담긴 작품 26점 선봬

작가는 2008년부터 라다크를 여행하며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도 삼매, 꼼빠순례 등의 작품으로 라다크를 만날 수 있다. "라다크를 그동안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수행자도 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관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삼매'는 스님이 목욕을 마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담아냈죠.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는 작품은 서옹 스님의 생전 모습이다. "스님을 뵙기 위해 상도동을 찾아갔을 때 찍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진 촬영 전에 우연히 몇 컷을 찍은 것인데 정식으로 찍은 것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진이 나와서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작품이죠."

작가는 앞으로도 자신의 모든 작품 안에 부처님의 법향을 녹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탐구하며 찾아도 못 찾을 부처님 법향을 찾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010-6365-506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음성공양으로 수행 이어나가고 싶어요"

김태란 찬불음반 '그 자리' 발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나요 나는 누구인가 내 안의 주인공/ 그가 누구인가 내 안의 주인공/ 그가 누구인지 정녕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있나요 그 길을 말해 주세요 그 길을/ 내 갈 길을 몰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시나요 中에서

소프라노 김태란 씨(대구경북음악인협회장 · 사진)가 찬불음반 '그 자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음반에서 아시나요, 관세음보살찬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무소유의 노래 등 불교적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한 12곡을 실었다.

특히, 타이틀곡 '아시나요'는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라고. "작년 겨울 구미 주원사에 찬불가 교육봉사를 갔다가 스님께서 음반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음반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지수화풍, 윤회, 해탈 등을 주제로 한 가사들을 통해 불법의 향기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이번 음반은 불제자로서 불법만난 기쁨을 세상에 회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대관음사 상임지휘자로, 대구대원사와 구미 주원사 등에서 찬불가를 지도해온 그는 20대 때 불교음악과 인연을 맺었다고.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가 찬불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불교음악과 인연을 맺게 됐죠. 불교가 뭔지 모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찬불가가 불음을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김태란의 '그 자리' 음반 표지

이렇게 30년 동안 함께 해온 그녀는 어느날 자신이 불교의 그릇 안에 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그는 "노래로서 수행을 이어나가고 싶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월 1일 대구 북구 어울림아트센터 '이야기가 있는 불교음악회'라는 제목으로 독창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중생 고통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협녀(俠女), 칼의 기억

'협녀(俠女) : 칼의 기억'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무협(武俠)영화이다. 무협영화를 영어로는 쿵푸(kungfu)영화라고 한다. 이소룡, 성룡, 이연걸로 계승되는 히어로를 만든 홍콩의 무협영화는 쿵푸라는 무예를 제재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쿵푸의 한자는 공부(功夫)라는 사실이다. 학문을 닦는다는 의미의 공부(工夫)와 음이 같거니와 그 뜻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부(工夫)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면 공부(功夫)는 무예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정신수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그래서인지 무협 혹은 쿵푸 영화는 서사의 공식이 있는데, 영웅 신화와 유사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화적인 영웅들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영웅은 왕과 왕비의 자식인데, 탄생 전에 이루어진 예언으로 인해서 태어나면 죽게 된다. 이 살해 기도는 부친의 발의에 의한 것도 많다. 아이는 신이 숨겨주어서 양부모 밑에서 자란다. 성인이 되면 영웅은 미래의 왕국을 향하고, 그 땅의 왕이나 거인 또는 악룡이나 괴수를 물리친다. 영웅은 왕녀와 결혼해서 왕이 된다. 그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은 가끔 산위에서이다. 이는 영웅의 출생, 왕위의 계승, 죽음에 관한 이야기의 3군으로 나뉘므로, 라그란은 탄생, 성인식, 장례라는 인생의 3대 의례와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프로이트의 제자인 오토 랑크는 〈영웅 탄생의 신화〉를 통해 영웅신화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반영이라고 봤다.

쿵푸 영화도 지닌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물들이 날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는 활달한 액션이 주는 재미이고, 둘째는 자아정체성 찾기라는 교훈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협녀: 칼의 기억'도 비록 흥행에서는 실패했지만 자아정체성 찾기라는 주제 면에서 돋보이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사형인 풍천을 배신한 유백(이병헌)과 유백을 사랑한 까닭에 사형을 배신하는 일에 본의아니게 일조한 것을 참회하면서 살아온 설랑(전도연)과 자신의 친 부모를 죽여야만 비극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홍이(김고은) 등 3명이다.

영화는 두 번의 반전을 꾀하는데, 홍이가 자신의 부모를 죽인 것이 유백과 설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장면이 첫 번째 반전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풍천이 아니라 유백이라는 사실, 즉, 자신이 죽여야만 하는 인물이 실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장면이 두 번째 반전이다.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세 인물 모두에게 연민이 느껴진다.

홍이의 칼이 벤 것은 '오브제 프티 아'
"사감 버리고 대의 찾는 게 협의 길"
쿵푸와 공부는 정신수양에 목적 둬

자신의 부모를 죽여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는 점에서 홍이의 캐릭터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모티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점은 오이디푸스는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는 반면 홍이는 알면서도 아버지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이 영화의 단점 중 하나가 자신의 부모를 죽여야 하는 홍이의 심리묘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은 홍이에게 복수심을 심어준 것이 설랑이므로 설랑의 심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이의 칼에 응징되는 것만이 풍천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설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이 영화는 외려 대단히 새로운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영화 속에서 행해지는 홍이의 복수는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적인 복수이고, 둘째, 그 복수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찾기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설랑은 홍이에게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 협의 길"이라고 가르쳤고, 홍이는 어머니이기 전에 스승인 설랑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홍이는 복수의 날에 "풍천의 딸, 홍이가 왔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홍이가 죽이는 것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외설적 아버지', 즉, '오브제 프티 아(object little a)인 것이다. (라캉은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나눠 분석했다. 상상계는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서 자아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단계이다. 따라서 그 자아는 주체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며 오히려 주체를 속이는 환영이다. 거울단계를 거친 어린아이는 다시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권위를 내면화한다. 상징계는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세계이다. 아버지란 이 질서의 대표자이자, 주체가 동일시하는 대타자이다. 욕망이 대상을 향하는 단계가 상상계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얻는다고 욕망은 완성되지 않는다. 외려 어긋나 버린다. 이를 인식하는 게 상징계이다. 상상계와 상징계 사이에 발생하는 잉여쾌락에 의해 다시 욕망이 지속되는 것이 실재계이다. 이 잔여물을 '오브제 프티 아'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세 인물 모두에게 연민이 느껴진다. 연민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자비(慈悲)의 비(悲)에 해당한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慈)라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연민(悲)이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관계의 바탕이 되는 숭고한 감정이다.

유응오 작가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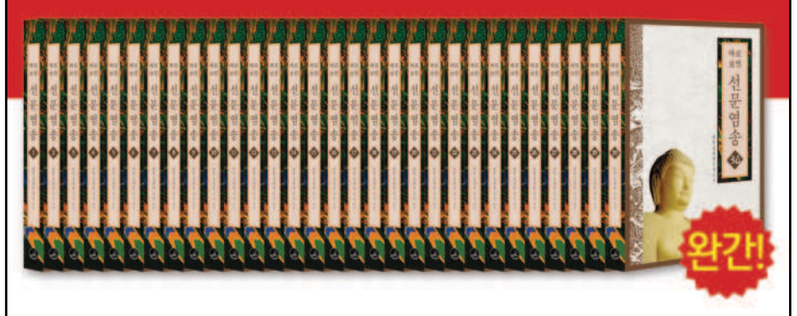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9.10~2015.9.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2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3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4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5	시끄러운원숭이잠재우기	아잔브라흐마/각산	나무옆의자
6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7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8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9	감산자전	감산덕청/대성	탐구사
10	유심안락도	원효/혜봉역주	운주사



선재동자처럼 선지식 찾아 53도량 순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53 기도도량

선묵혜자 스님 지음 | 108산사순례기도회 펴냄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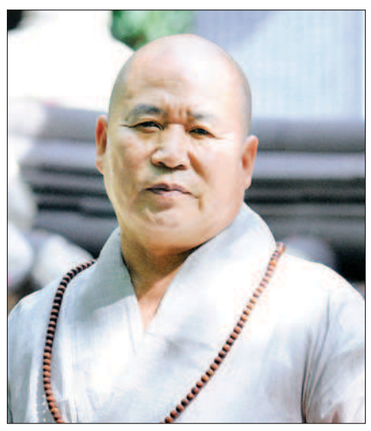


2006년 9월 시작해 9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회향을 앞둔 선묵혜자 스님〈오른쪽 사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53기도도량〉을 펴내며 11월부터 53기도도량 순례를 다시 시작한다.

53기도도량 선정 이유에 대해 선묵혜자 스님은 "〈화엄경〉 입법계품서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선지식을 의미한다"며 "108산사순례가 대사회적인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했다면 이번 53기도도량 순례는 철저히 기도 수행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묵혜자 스님은 말을 이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선재동자는 문수 보살을 선지식으로 삼고 구도의 길을 떠납니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는 이유는 선지식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실천하는데 본보기가 되고, 수행자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재동자는 온갖 부류의 53선지식을 만나는데, 이는 외형적인 것보다 보리심을 내는 그 마음을 중히 여기고 있어 대승불교의 이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며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원력과 기도 순례에 임하는 불자들이 번뇌의 바다서 인간의 본성을 잃지 않고, 참된 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으로 정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3기도도량 순례를 기획했습니다." 고 덧붙였다. 이에 선묵혜자 스님은 회원들에게 108염주를 만들 수 있는 염주를 보시하며 53기도앨범을 함께 채워 가도록 앨범도 따로 제작해 보시한다. 이 앨범에는 기도도량을 순례하고 난 뒤 찍은 사진과 사찰 전경이 담긴 호신불 카드, 발원문 등을 써서 보관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즉 53기도도량의 기도 신행 추억을 한 권의 앨범에 고스란히 간직하자는 선묵혜자 스님의 아이디어로 특별 주문 제작됐다. 또한 53기도 도량마다 그 성지에 맞는 발원문과 정근 및 기도를 봉행하며 부대적인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일심기도로 신심을 다지고 안심법문으로 긍정적인 생각, 불교의 소중한 인연 간직을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별도로 기도 법요집도 만들었다. 법요집에는 삼귀의, 천수경, 각 불보살 정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발원문, 반야심경, 각기도 발원문, 보현행원, 사홍서원, 53기도사찰 이름, 53선지식 등이 담겨져 있다.



11월부터 53기도도량 순례 시작

법요집, 신행앨범도 별도 제작

남한 사찰 53개, 북한 사찰 4곳 소개

이번에 발간된 〈53기도도량〉은 전국 주요 기도도량을 9개 성지로 구분했으며, 책은 삼보사찰로 시작한다. 불보사찰 통도사와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를 시작으로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여행으로 이어진다. 오대산 상원사와 정암사 법흥사 봉정암이 그곳이다. 또한 대조사 심곡사 용화사 화암사 등 미륵도량과 고란사, 남장사, 백련사 등 미타도량, 관룡사 불굴사 선원사 수도암 태안사 등 약사도량, 보살사 보석사 불회사 등 관음도량, 문수사 반야사 축서사 등 문수도량, 대원사 도솔암 송림사 등 지장도량, 안심사 위봉사 은하사 등 나한도량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남한의 53사찰에 이어 마지막 제 11장에서는 북한의 사찰 4곳도 소개했다. 보현사 성불사 신계사 광법사 등이다.

"북한에도 대략 67곳의 사찰이 있고 300여 스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다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있으니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순례회원들과 꼭 가서 일심기도 정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북녘사찰 순례의 간절한 바램도 털어놨다.

선묵혜자 스님은 "회원 가입은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 가능하며, 108산사순례기도회와 같은 방식으로 53기도도량 순례를 하며 11월이나 내년 1월중 택해서 삼보사찰을 시작으로 4년여간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53기도도량을 찾아 염불과 기도, 108참회, 기도도량 불보살 정근, 발원문, 동참불자에 낙관,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 보시 등을 통해 그 사찰을 이해하고 신심을 증장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여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야심찬 어조로 피력했다.

고해의 바다 人生서 직면한 고통 어떻게 대할까?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페마초드론 지음 | 이재석 옮김 | 한문화 펴냄 | 1ks 4500원



삶의 고통이라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일상서 부딪치는 고통이 크고 대단한 것만은 아니다. '운전 중에 막무가내로 차 한 대가 신호도 없이 끼어든다, 누군가가 내 발을 밟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 지나가던 사람이 팔을 툭 치는 바람에 들고 있던 커피를 옷이며 신발에 다 쏟았다' 이런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개는 분노의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거나 속으로 억압하는 식으로 반응한다. 말과 행동으로 비난을 퍼붓거나 마음속으로 상대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욕하는 식으로 표출하거나, 그 감정을 자기 안에 가둔 채 외면하는 식으로 억압한다.

사소한 분노가 됐든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됐든 마음속에서 불쑥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 순간 마음이 닫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자 마음 전문가인 페마 초드론은 마음을 겉으로 표출하거나 내면으로 억압하는 대신 그 '중간지대' 에 두라고 한다. 일어나는 감정에 야단법석 떨지 말고 그저 온화한 태도로 느껴보라고 한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사마티-위빠사나, 통렌, 로종 명상을 소개한다.

페마 초드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낯선 이름이지만 달라이라마, 틱낫한을 잇는 티베트불교의 차세대 스승으로 세계서 추앙받는 영적 스승이다. 영국의 권위 있는 명상 매거진 〈왓킨스〉는 '2015년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인물 100인' 에 달라이 라마, 프란치스코 교황, 틱낫한 등과 함께 그녀를 선정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페마 초드론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린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로,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 〈지금 여기에서 달아나지 않는 연습〉에 이어 한문화에서 출간한 페마 초드론의 세 번째 명상에세이다. 유머와 통찰이 돋보이는 현실감 있는 지혜를 전하는 '마음 전문가' 로서의 대단한 명성답게 이 책도 '마음공부' 를 주제로 다룬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 자비심을 일깨우는 전제조건으로 페마 초드론은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껴안으라고 한다. 스물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에서는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도망칠 것도 없다, 야단법석을 떨지 마라, 확실하다고 믿는 근거를 허물어라,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깨달음의 연료로 사용하라, 모든 비난을 자신에게 돌려라, 만나는 모든 이가 스승이다, 결과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려라, 가슴에서 우러난 소통을 하라' 등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천 년 전부터 티베트에서 전해지는 59개의 경구(아티샤의 수심요결)를 각 장에서 하나하나 해설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하고 날카롭고 힘찬 메시지를 전한다.

페마 초드론은 사마티-위빠사나 명상, 통렌 명상, 로종 명상 세 가지 수행법을 통해 삶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껴안는 법을,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일깨워준다. 사마타-위빠사나 명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을 흘러 다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한다. 로종 명상은 통렌 명상과 마음을 일깨워주는 59개의 경구로 이뤄지는데 티베트어로 '마음수련' 을 의미하는 로종의 기본 가르침은 불안, 두려움, 고통 등 삶의 어두운 측면들을 장애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내 안의 자비심을 일깨워줄 연료로 삼으라고 한다. 경구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나' 라는 존재에게 온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나 실제로 내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삶과 이어져 있다. 이 경구들을 마음에 품고 되새기다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깨달음의 길이 된다.

통렌은 티베트어로 '주고받음' 을 의미하는데 통렌 명상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점을 감추고 억누르는 대신에 그 또한 우리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이 명상을 통해 자비심의 동심원을 점점 더 넓게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

로종 명상에서 나의 고통과 다른 이들의 고통까지 껴안을 수 있는 용기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자비심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본래의 마음이 깨어나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모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로종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이 주는 어떤 고통과 시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내 안에 만들 수 있다.

부록에는 티베트에 전해지는 천 년의 지혜, 59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아티샤의 수심요결을 수록했다. 또 자기성찰을 위한 질문, 핵심 명상 수행을 심화하기 위한 자료들을 소개해서 마음공부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화를 겉으로 표출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아서다. 그것이 행복이라 여기는 것이다. 간혹 순간적인 위안이 찾아올 때도 있다. 그런데 이는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중독 물질을 투여했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얼마 지나면 악몽 같은 시간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공격성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나면 잠시 동안은 마음이 후련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분노와 증오가 정당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해를 입는 것은 당신이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석탄을 맨손으로 집어서 원수에게 던지는 꼴이다. 석탄에 맞으면 상대는 크게 다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불에 데는 사람은 분명 당신 자신이다."

"모든 비난을 자신에게 돌리라' 는 경구는 건강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타인을 비난하려는 과도한 성향을 차단해준다. 그렇다고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비난하라는 뜻은 아니다. 비난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를 느껴보라는 의미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타인을 밀쳐내는 대신 그 모든 감옷 속에 존재하는 매우 여리고 부드러운 지점과 접촉하라는 의미다. 비난이야말로 우리가 두르고 있는 가장 견고한 갑옷인지도 모른다."

"모든 이에게 감사하라' 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구는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구호가 아니다. 길에서 강도를 당하고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웃으며 "이 경구는 회피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무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독을 먹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방어막을 한 겹 더 씌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연락처
010-9195-1044 / 070-7563-3898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

구도역정 펼친 31명 큰스님들이 던지는 사자후

우리시대의 큰 스님

김광식 지음 | 인북스 펴냄 | 1만 6천원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오른쪽 사진〉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전문가이다. 연구 접근 방식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 그래서 관련된 학술 세미나가 열릴때면 발표자 섭외 1순위로 꼽힌다.

김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근현대 큰 스님을 '불교 인문학' 의 관점서 조명한 책을 펴냈다. 제목은 〈우리 시대의 큰 스님〉이다. 물론 지금껏 우리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큰 스님에 대한 책은 시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출간됐다. 형태도 대표적인 법어집을 비롯해 구도소설, 평전 및 일대기, 대담집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문중 중심의 칭찬 일변도 서술이 많아 객관성에서 아쉽고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신선함이 돋보인다.

최근 20년간 근현대 한국불교사 연구는 학문적으로 왕성히 전개됐다. 그 결과 큰스님에 대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대거 발굴되고, 그에 따라 연구 저변도 눈에 띠게 확대됐다. 이는 곧 큰스님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지평을 넓힐 기회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근현대불교,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선지식들의 사상과 행적을 학술적,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재해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큰스님들의 행적과 사상에는 인문적 성찰을 포괄하는 학문적 명제가 담겨 있다.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 지성사의 정신적 가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승의 역사와 문화야말로 우리 삶의 가치와 문화를 풍부히 해주는 인문학적 요소가 학문적 대상인 것이다. 불교인문학 관점서 고승의 삶에 나타난 다양한 이념과 사상, 좌절과 성취, 인간상 등을 발굴 문헌과 신뢰도 높은 증언을 통해 조명한 이 책은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진취적인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지향점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31분의 큰스님은 선의 중흥, 교학과 역경, 포교와 빈민구제, 종풍 쇄신, 민족운동 등의 분야서 활약한 큰스님들로 보살정신 구현, 수행 경지 증득, 실천적 활동, 독립운동, 종무 행정 등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1835년생인 경허 스님부터 1914년에 출생하여 2003년에 열반한 서암 스님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정진으로 정법사회 구현을 위해 몸 바친 이들 스님의 공통점은, 생애 동안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고난의 시기와 해방과 6 · 25로 이어지는 혼돈의 시대를 겪은 점이다. 불교사적



불교인문학적 접근으로 이해도 제고
인생좌표, 한국불교사 등 이해에 큰 도움
현 스님들의 조직 심층적으로 이해 가능

으로도 명맥마저 끊기다시피 한 척박한 한국불교를 뼈를 깎는 정진을 통해 일으켜 세워야 했기에 이들의 역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그런 역경과 거듭된 좌절을 극복한 큰스님들의 정신과 행적을 되새겨본다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성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불교는 단순히 인간 중심이 아닌 모든 만물과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인본주의와 불교, 불교와 과학, 실존철학과 불교 등 적극적인 불교 인문적 사유를 통해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도 큰스님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1,700년 한국불교사의 중심에 자리한 큰스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배불정책이 시행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정신적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전통문화 역시 불교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큰스님들이 중심이 된 문학적, 철학적, 예술적 유산은 인문학적 접근으로 체계적인 이해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저자가 불교인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큰스님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저자는 불모지 같았던 근대불교사에 남다른 열정으로 뛰어들어, 1994년부터 21년 동안 200편이 넘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대학자이다. 연구자를 찾기 어려운 근대불교사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김 교수가 주목한 대상은 근대기의 큰스님들이었다. 인물사 정리로 한국 근대불교의 제 모습을 되찾고자 생각한 그의 집념으로 백용성, 한용운 등 한국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님들의 생애와 사상이 집중 조명되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그는 객관적인 근대불교사 정립을 위해 근대 큰스님들의 문손과 후손 등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구술을 채록하고 현장을 탐문해, 흔적이 미미한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을 복원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20여 년간을 직접 발로 뛰며 구슬땀으로 이룩한 고승 연구 자료의 축적은 이 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근간을 이룬다. 그의 큰스님들에 대한 정확한 행적 고증과 사상에 대한 분석은 학계의 근대불교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저술에서는 31분 스님의 법맥과 계맥의 전승, 사자 전승의 계보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함께 문중의 지형도를 일목요연하게 그려내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 큰스님들을 다시 조명, 교계와 학계의 객관적인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음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큰 스님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저자는 "우선 인생의 좌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모순과 난관 등을 큰 스님들이 걸어온 삶과 정신에 반추해 보면 현실을 타개할 지혜와 용기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며 "둘째로는 큰 스님들의 생애를 통해 한국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현재 한국불교의 운영체계와 스님들의 조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께서는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부처님의 부자수업

윤성식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이 책의 미덕은 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데 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냉철히 되돌아보며,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다. 돈과 욕망의 속성을 정직하게 직시하며, 정신과 물질의 균형 속에서 윤택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은 불교와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와 적절한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풀어썼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소비할 것인지, 부처님 말씀에 대입해 방법론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부처님은 이자 수입을 인정하며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도 일러줬다. 예를 들자면 "소득의 1/4은 남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창출하라"고 했다. 이에 저자는 사업, 부동산, 주식, 보험, 저축 등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총망라하고 비교 분석해, 각 분야의 장점과 위험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또한 부를 기준으로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으로 나눠 각 계층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를 테면 빈곤층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라도 돈에 대해 가장 많이 공부해야 한다.", 중산층에게는 "자칫하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좀 더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며 사회의 균형을 잡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부처님 말씀에 비춰 경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 능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부유층에게는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사회 기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라며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한다.

부처님은 돈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 로 알고 있다. 부처님은 돈에 관한 한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별해서 달리 설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출가자의 삶에 맞춰진 불교만을 부각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돈은 부질없는 것이니 멀리하고, 욕망을 비워낸 자리에서 무소유의 행복을 누리라."고 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파했다.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부지런히 돈을 많이 벌어 부(富)를 축적하라고 장려했던 것이다.

인류 역사상 돈은 항상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지금처럼 위력을 발휘한 적은 없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명줄과도 같다. 돈은 이제 신(神)의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돈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현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며, 돈은 소수의 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에 종속되어 자유롭지 못하고, 돈으로 인한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각 계층에 따라 어떤 노력 필요한지 조언
저자 "부처님, 열심히 벌어 부 축척 장려"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해 사회 변화 시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애써 폄하하며, 가난한 자신을 눈물겹게 합리화한다. 돈과 행복을 무관한 것으로 보며,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외치며 스스로를 위안한다. 빈궁한 삶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행복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돈과 행복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지지 못한다. 돈과 욕망 앞에서 정직해질 때 세상에 속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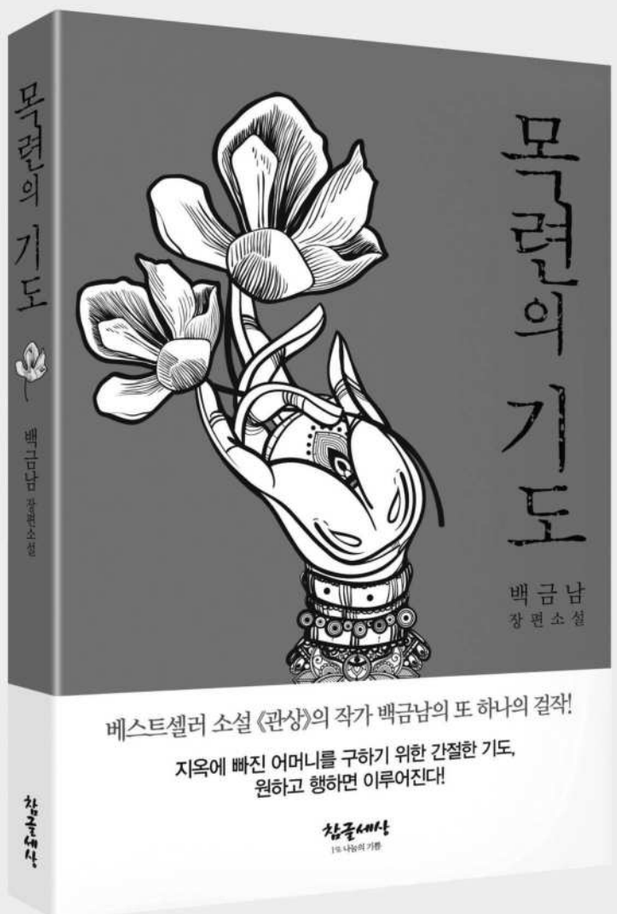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다. 그렇다면 삶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했다. 이것은 삶에서 돈 문제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소유나 자발적 가난이 아니다. 부처님은 삶의 속성과 세상살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가난을 벗어나 부를 축적해 안락한 삶을 살라고 했다. 부자를 가리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가난하게 살면 큰 고통이 따를 뿐 아니라, 때로는 죄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갈파했던 것이다.

"나는 평생 돈에 대해서 공부해왔다.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으로 학위가 있고, 공인회계 사이며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도 역임했다. 이런 나에게 돈에 관한 부처님 말씀은 매우 논리적이고 정직한 조언으로 느껴진다. 만약 부처님이 '돈 은 부질없으니 멀리하라' 했다면, 나는 '불교는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구나'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사진 왼쪽〉는 평생 돈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에게 아무리 천착해도 풀리지 않는 화두가 있었으니, 바로 현대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시장자본주의 체제의 혁신이다. 해법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우연히 뒤늦게 입문한 불교, 경전 속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였다. 윤 교수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동국대에서 불교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경제학 박사가 불교학 박사가 되어, 경제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지평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불교의 중도와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해, 시장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불교자본주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지난 2011년 〈불교자본주의〉를 책으로 펴내, 그동안 무소유의 위세에 가려 잊혀졌던 불교의 경제관을 세상에 제대로 드러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를 바로잡고, 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와 실천을 학문적 체계로 집대성 했다.

이후 불교자본주의 이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SNS와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쉼없이 소통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돈 문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복의 경제학 〈부처님의 부자 수업〉을 펴냈다. 이 책은 그동안 묻혀있던 경제생활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의 삶 속에 고스란히 적용해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돈과 세상에 속지 않는 여실지견(如實之見,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다)의 바른 안목을 길러주며, 돈과 욕망에 당당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 한마디로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에 가장 큰 고통으로 작용하는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베스트셀러 소설《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낳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1003@hanmail.net
참글세상 1% 나눔의 기쁨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불교와 풍수, 고려代 사상·문화 자리매김

10. 선과 풍수지리, 새 시대 열다

8세기 후반 혜공왕 대에 신라 중대왕실은 막을 내렸고 이후 150년간의 하대에는 왕위 분쟁과 함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각지에서 부상하였다. 그 결과 10세기 초에는 궁예의 후고구려(태봉), 견훤의 후백제가 등장하여 후삼국 시대의 치열한 각축이 시작되었고 918년 왕건에 의해 궁예가 축출되고 고려가 건국된 후 935년 신라 경순왕이 투항하고 이듬해 후백제가 망하면서 새로운 통일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선종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 신라 불교와 성격이 다른 밀교가 수용, 유행된 사실을 간단히 소개한다. 밀교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각각의 소의 경전으로 한 태장계 밀교와 금강계 밀교로 나뉘는데, 신라에는 7세기에 초기적 형태의 밀교가 전래되었다. 즉 선덕여왕 때 병을 치료하는데 영험을 보인 밀본, 당의 신라 공격 소식에 밀교의식인 문두루비법을 써서 퇴치를 기원한 명랑, 당의 무외삼장에게 비법을 배우고 돌아와 치병 등을 행한 혜통 등의 신이한 행적이 밀교와 관련된 기록으로 전한다. 8세기에는 불가사의가 중국에서 밀교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돌아와서 활동하였고, 인도 구법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쓴 신라 출신 혜초도 밀교계 승려라는 설이 있다. 신라 밀교의 구체적 양상은 알 수 없지만 당에서 9세기 중반 이후 밀교가 급격히 쇠퇴한 것처럼 신라에서도 큰 세력을 가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지념업, 조선 초의 신인종과 총지종의 명칭에서 밀교 전통이 진언 다라니, 의례와 함께 오래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신라 하대에는 지역 토호세력이 발호하고 경주 외의 지방에서 권역을 형성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중국에서 새로 도입된 선종이 각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교학 중심의 중앙 불교계와 노선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 전개된 것이다. 통일신라 불교는 화엄, 유식 등의 교학에서 수준 높은 성과를 냈고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하대로 접어들면서 교학이 침체되고 활기를 잃은 반면, 실천수행을 중시하는 선종 승려들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지역 유력자의 후원을 입어 성장하였다.

통일신라 말 선종의 도입과 성행 사실을 살펴보기 전에 중국 선종의 역사에 대해 개관해 본다. 남북조시대 이후 불교 이해의 심화와 학파의 발전, 수·당대의 교종 종파 성립과 교학의 이론적 체계화에 이어서 중국불교의 트랜드는 선종으로 귀결되었다. 선종은 마음에 불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부처와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존재에 대한 철저한 긍정과 낙관적 확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선종은 앞서 남북조 말기에 태동하여 8세기 이후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9세기 중반 당 무종의 대규모 폐불에 의해 교종 중심의 기존 불교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선종이 주류로서 급격히 부상하였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는 520년경 남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고 하며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수도한 후 2조 혜가에게 심법을 전수하였다. 그는 유명한 숭불황제인 양 무제를 만나 "세속의 공덕은 아무런 공덕이 없고 오히려 생사를 윤회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덕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둔황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달마는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는 불성의 이치와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입과 행입의 2입, 그 실천수행법인 4행을 주장했다. 또 〈능가경〉을 중시하여 말과 생각을 잊는 마음의 경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선법은 혜가, 〈신심명〉을 쓴 승찬, 도신, 홍인을 거쳐 6조 혜능으로 전수되었다.

중국 선종 5조인 홍인의 수제자는 신수였는데 그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깨닫고 유지하는 수행방식을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혜능은 마음에 집중하는 태도 자체를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여 홍인의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황실의 후원을 받은 신수가 선종 교단을 주도하였지만, 이후 혜능의 제자 하택 신회가 신수의 북종을 점오의 수행방식이라고 비판하며 혜능의 돈오적 입장을 선양하였다. 하지만 신회의 하택종은 지해(知解)에 얽매인다는 이유로 비판되면서 이후 주류에서 밀려났다. 혜능의 문하에서는 많은 불세출의 선승들이 배출되면서 남종 계통이 선종의 주류로 부상하였고 〈육조단경〉의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혜능은 선종 6조의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다. 혜능의 법맥은 마조 도일의 홍주종과 석두 희천의 석두종으로 나뉘었고, 선종의 융성함을 보여주는 5가, 즉 임제종, 위앙종, 운문종, 조동종, 법안종이 모두 남종에서 비롯되었다.

마조 도일의 제자 백장 회해는 선원의 일상규율인 '백장청규'를 지어 하루라도 노동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주창하여 선종의 경제적 자립과 교단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한편 부처와 가섭 이후 인도와 중국의 선종 조사 계보가 〈전등록〉에서 확정되면서 선종의 이심전심의 법맥이 역사화 되었다. 이와 함께 교외별전, 불립문자를 특징으로 하는 선종의 직관적, 돈오적 기풍이 정립되고 당·송대에 수많은 '어록'이 나오면서 선종은 중국 불교의 주류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다.

신라에 선종이 처음 들어온 것은 8세기 이전이며 또 8세기 중반에 신행이 중국에서 북종선을 배우고 돌아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선종의 수용은 9세기 초 도의에 의해서였다. 도의는 6조 혜능의 남종선 정맥을 이은 마조 도일의 제자 서당 지장에게 수학하였고 정식 인가를 받아 821년에 귀국하였다. 도의는 '백장청규'를 쓴 백장 회해의 가르침도 받았는데 회해는 도의에 대해 "강서(마조)의 선맥이 동국의 승려에게 가겠구나."라고 평했다고 한다. 하지만 귀국 후 도의는 교종 중심의 당시 중앙 불교계에서 배척되었고 선종은 '마어(魔語)'로 비판되었다. 이에 도의는 강원도의 진전사에 은거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하지만 9세기 중엽에는 마조 계통에서 배워 온 유학승들이 대거 귀국하기 시작하면서 신라에서 남종선은 크게 성행하였다. 중국에 가서 최신 조류의 선을 배워온 선사들의 영향력과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각 지역 정치세력은 물론 왕실에서도 이들을 후원하였고 많은 선종 산문과 사찰이 개창되었다. 고려 초에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 9산 선문은 가지산문(도의, 체징), 실상산문(홍척), 동리산문(혜철), 희양산문(도헌, 긍양), 봉림산문(현욱, 심희), 성주산문(무염), 사굴산문(범일), 사자산문(도윤, 절중), 수미산문(이엄)이었다. 이들 9산 선문을 비롯한 선종 사찰은 주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에 분포하였다.



선암사의 도선국사 진영. 선승으로써 한국 풍수지리 사상으로 개조이기도 하다. 그의 '비보사탑설'을 통해 "사찰과 탑이 국토의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 실상사 전경. 실상사는 신라 구산선문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신라 하대부터 부상한 선종은 기존의 화엄 교학들을 비판하며 급격히 영향력 확대하기 시작한다.

태조 왕건의 고려 후삼국 통일
고려 초 구산선문 확립돼 융성
신라하대 도입된 풍수지리 인기
'비보사탑설' 도선 국사 영향 커
佛·儒·風水, 고려문화 新 트랜드

신라 선종의 한 특징으로는 주류 교학인 기존의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종을 수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에 유학해 선을 전수해 온 선승들 중에는 신라에서 화엄학을 공부한 이들이 많았고 이들이 귀국 후 창건한 사찰에는 화엄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주로 봉안되었다. 가지산문을 연 체징이 보림사를 창건하면서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봉안한 것이나 철원 도피안사의 비로자나불상이 그 사례이다. 한편 선승들은 선을 우위에 두고 신라 교계의 주류였던 화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이처럼 선종이 부상하여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9세기 말 화엄종에서는 역대 조사의 저술을 강독하고 조사에 대한 현창을 강화하여 교단을 결속시켰고 결사 조직이나 교학의 재정비 노력도 이어졌다.

한편 신라하대에는 풍수지리설이 중국에 유학한 선승들에 의해 도입되어 유행하였는데, 선승들은 중국과 신라에서 각지를 유력하면서 지리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직관을 쌓을 수 있었다. 한국 풍수지리의 개조로 알려진 도선은 9세기에 활동한 인물로 사찰과 탑이 국토의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보사탑설을 제기하였다. 풍수지리설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각 권역의 특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특히 각 지역의 권력자들이 선승과 연계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국 풍수지리설의 비조인 도선은 광양 옥룡사에 주석했던 선승으로, 일설에는 당의 일행에게 풍수지리를 배우고 돌아왔다고 전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최치원이 쓴 '숭복사비문'에는 왕릉의 장지와 사찰을 지맥에 의해 살핀다는 내용이 있어 신라 하대에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최유청이 쓴 '도선국사비'에서는 도선이 지리산 화엄사 밑에서 음양오행과 풍수지리를 연구했다고 하며, 조선시대 서거정이 지은 〈필원잡기〉에는 그가 신선으로부터 천문과 지리, 음양의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전설을 소개하였다. 도선은 왕건의 부친 왕륭에게 산수와 천문을 보니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왕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 영향인지 태조의 '훈요십조'에는 도선이 산천의 형세를 따라 비보사탑을 정하였으므로 그 외에는 절을 짓지 말게 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 성행하면서 도선의 인기 또한 매우 높았다.

신라 하대에는 사원경제의 변화상이 나타나는데, 8세기 중반 이후 사원들 가운데 대규모 토지, 즉 전장을 보유한 곳이 증가하였다. 국가에서 장생표를 설치해주어 사원의 토지 보유 및 조세 면제 등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원은 여러 지역에 토지가 산재해 있었다. 9세기 들어 선종의 유입과 함께 지방 사원이 증가하고 이들 지방 사원의 토지도 확대되었다. 당시 막대한 전장으로 유명한 사원은 해인사였고, 선종 사원인 봉암사, 대안사 등도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9세기 후반에는 사원이 직접 토지 매입에 나서기도 하였고 신라 말의 사원은 왕실이나 귀족과 함께 전장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행하였다.

이처럼 통일신라 후기에는 선종이 수용되어 왕실의 후원도 받았으나 주로 새롭게 부상한 지방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 차원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선종의 주요 산문과 사찰이 경주가 아닌 지방에 건립되었고 선사들의 출신 또한 대개 지방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선종의 대두와 확산은 신라하대 지방 세력의 성장이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선사들을 통해 유행하게 된 풍수지리설은 국토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바꾸게 하였고, 이는 지방 세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존의 신라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서해안의 변방에 불과했던 개성 지역 또한 공간을 둘러싼 관념의 변화 속에서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신라 하대에 도입된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신라 중대 이래 6두품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의 성장과 함께 다음 중세사회를 열고 견인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정치와 사회, 사상과 문화는 유교, 불교, 풍수설을 중심축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새로 대두한 선종과 그에 자극받아 변화를 모색한 화엄을 중심으로 한 교학불교는 이후 한국불교를 이끄는 쌍두마차로서 갈등과 상생을 겪으며 공존을 모색하였다.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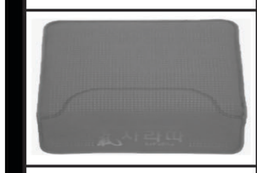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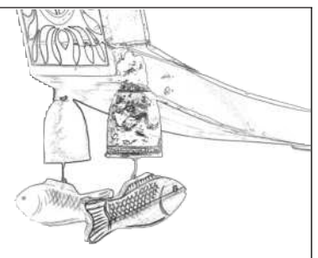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너희는 여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경할 것이요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말고 물과 젖처럼 서로 화합하라.

- 반니원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약사여래불사 권선문

약사여래 부처님은 왜 해야 하는가? 약사여래 부처님은 모든 장애와 두려움과 곤란을 없애주시고 모든 나쁜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시며 모든 좋은 일을 소원성취시켜주시는 신비한 부처님이시다.
성원사 (제주시 도련길 66)
064-783-2092, 010-9267-2092,
011-699-2616
우체국 510446-01-000934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정확한 방편술

한권의 책으로 방편술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스님을 찾습니다

울산 연암동 만덕스님
군위 고원사 혜일스님
연락주세요
김국희 010-9208-3835

인 연 명 리

삶은 인연생, 인연멸입니다!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10월 개강)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 상담환영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1-9515-3721

신심깊은 노보살님 모십니다
010-2078-959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도심포교원
010-3618-6061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043-257-0565

사무장 (원주보살) 모십니다
· 지 역 : 부산 남구 대연동 소원사
· 급 여 : 130만 (보너스 200%)
· 컴퓨터 사용 가능한 보살님
· 마 감 : 9월 30일 까지
· 연락처 : 정암 전종민
010-9911-1890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황령산 소원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500-6972

불교무용 특별지도

바라춤,극락무,나비춤,
살풀이,법고,승무 등
30년 경험 선생 직접지도
수강료 : 십만원/월(선착순)
010-3711-5072
부산 서면역 부근 반야선원

광고달력 주문

단일종류, 광고배포용
1부 1500원, 전화접수
경기 오산시 오산로 62번길 8
031-373-1120 (오후 6~8)
등산 포교선원 다르마 사업부

비법 중의 비법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법왕불교대학 관불사 안내

* 불교법사과 : 6개 속성과정 * 불교사미과 : 1년 종합과정
* 유발승려과 : 1년 종합과정 * 불교승려과 : 2년 종합과정
큰스님 특별친견
*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 * 부부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 매매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13길 82
연락처 : 02) 963-0607 / H.P : 010-3329-113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6-7075



빙의치료 전문사찰
화 엄 선 원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록사
• 주지(창건주) : 정관(김기수)
• 주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죽전1길 132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한국불교 화엄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실용의식 : 천도재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 문 의 처 : 010-5065-5690

근 화 학 당

◆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 강 사 : 추송 ◆ 수강료 : 월 10만원
◆ 문 의 처 : 010-8948-7948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 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 송 합장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 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NAVER 귀장술 원판 검색
DAUM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 전화 010-8558-2345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 잡아함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경주시 급 양도 사찰
- 청정계곡 접 토지 약 6400㎡
- 기와단청법당.단청산신각.지장전.요사채
- 양도금액 : 9억(융자 5억 있음)
- 실인수가액 4억. 주변산세 좋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7호선 사가정역 근처
- 평수 : 4층 54평, 방4개, 내부화장실 2개
- 보증금 : 3,000만원 월 임대료 130만원
- 시설비 별도. 상담 후 결정 (법당 집기류외,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TV 등 기타 모든 집기류 포함)
- 기존 신도가 있으니 몸만 오셔서 법회 보시면 됩니다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17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50평 ◎ 법당:50평, 요사:100평
◎ 요사:100평 ◎ 차량진입,경관수려
◎ 양도:20억원 ◎ 양도:16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시토굴 암자 급 양도
* 요사채 80㎡, 토지 4500㎡. 과실수 있음
* 뒷편은 산이고 전망좋은 토굴겸암자
* 양도가 : 2억 7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신축 한옥 주택

땅을 알고 터를 잡은
산 자락에 예쁜 한옥
이웃환경 좋은 마을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30평
-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황토방, 정자)

010-3703-5879

포교원 안내

- 위치:경남 양산시 북정중앙로 64 (북정 대동 1차 상가 302호)
- 법당, 방 3개, 공양간 큼, 상가공용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3927-129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사천시내 5분거리
- 대지 175평, 법당 13평
- 요사채,방2개,주방1,거실
- 양도가 : 7천 8백만원 시설비 500만원

055-833-5769
010-8503-576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교원 최고의 위치
- 부산 서면역 5분 거리(부전시장)
- 5층 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후불탱화 108호신불, 시설완비,
-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공양실, 종무실, 주지실, 화장실(남녀)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삼천오백중 일부(급이전관계)

문의전화 : 010-3711-5072

사 찰 안 내

- 유동인구 많은 안산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큰길 대로변,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옥상포함), 실평수 60평
- 법당, 요사채, 상담실, 주방, 욕실, 다용도 주거겸용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90만원 시설비 2,800(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 단골 신도 포교하기 유리한 최적지

010-5913-7239 일연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청평 한옥 주택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 (큰방 1, 작은방 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암자나 토굴 교환 가능
- 가액 2억 6천만원

주인직 :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2층 8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 주인직접 (매수, 전세 :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소재(갓바위 인근)
- 부지 : 4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2층, 단청)
- 요사채 : 2동 90평
- 가액 : 6억원
- 특징 : 도심 인근에 청정계곡을 끼고 있는 도량으로 포교지로 아주 좋습니다.

- 위치 : 포항시 북구 소재(신도시)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 청기와, 단청)
- 요사채 :35평(1층, 종무소, 주지실)
- 기타 : 산신각, 석탑, 석등
- 가액 : 6억원
- 특징 :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이 인근에 있는 산아래 위치한 아주 좋은 기도 포교도량입니다

※ *전국 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5848-0455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 (복현동 1층)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채 : 26평, 종무소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8천만원

010-9231-6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가액 : 3억 6천
- 대지 : 1408㎡ (약 425.92평)
- 임야 : 340.49㎡(약 103평)
- 전 : 287.60㎡(약 87평)
- 경내로 청정한 개울이 흐르고 있음

010-5479-5779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김수로왕능과 공원사이 (김수로왕능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 평수 : 2층 50평(상가건물)
- 시설 : 포교당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628-115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가액 : 6억 8천만원(1억8천 융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 목조법당 42㎡, 목조 공양간 40㎡, 스님실 8㎡ 요사 50㎡,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마을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가액 : 1억 2천만원 (3천 4백만원 융자있음)

010-9918-7937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읍 용산리 567-2
- 저수지에 위치해 있음
- 1층 식당, 2층 살림집, 3층 법당
- 현재 스님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 스님이 내놓은 3,000만원에 전세 임대합니다.
- 다만 손보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 참고 : 현재 연탄보일러임

010-8947-614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대구역 동대구 시장부근
- 대로변, 교통요지, 철학 및 포교의 최상위치
- 평수 60평, 4층 건물의 4층
- 법당 큰방1, 친견실1, 거실, 주방 화장실2
- 시설 올수리, 난방 도시가스 사용
- 법당 집기류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정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50만원

053-943-595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 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 1층: 칠보관음금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 당 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19억

010-9567-0813

수양관(암자)안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100평, 건물 40평
- 가액: 2억 9천
- 대지: 168평, 건물 100평
- 가액: 4억
- 꼭 필요하신분께 양도 (대학병원 5분거리)

010-5407-8034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시 소재
- 대지 1,030평, 법당 3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100평 3동
- 산속 조용한 사찰
- 가액 : 5억 7천

010-6766-550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동 (230평)
- 건물 : 5층 건물중 5층, 엘리베이터사용
- 구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지장단 방 5칸, 공양간, 종무실
- 가액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 시설비 3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0-6369-2254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죽도 시장 부근 도로변
- 6평, 작은방 있음
- 포교상담, 신도포교 하기 좋음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15만원 시설비 40만원

010-4096-4589

친환경 삼베타올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1, 방2, 화장실2, 욕실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농가주택(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 5백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010-9849-7727
덕산 합장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장 근접
- 2층 80평
- 법당.방3개 부엌1. 화장실3개
- 삼존불. 후불 일체
- 보증금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조정가능

010-5942-2032
070-8844-2030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관음리
- 지목 : 전, 면적 : 221평
- 토지이용 : 생산관리지역
- 금액 : 1억원(목재 석재 포함)
- 참고사항 : 백두대간 포함산 주변 2차선 도로에서 200m 거리이며 지적도상 도로 구거와 연결되어 있고 양쪽은 산이며 입구 주택 3가구 까지 차량통행 주차가능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완료 15톤 덤프 레미콘 차량 출입 가능

연락처 : 010-8555-448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단장면
- 대지 1,0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부시장 경남 양산시 중부동 429-7(2층)
- 평수 : 80평
- 대법당 삼존불 탱화
- 실내화장실 3개, 부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9945-203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8천만원 (대출 2억8천 안고 양도금액 3억)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향리
- 팔공산 뒷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기도도량임
- 대지 : 337평 시유지포함 700평
- 법당 : 20평, 요사채:50평
- 가액 : 9천5백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포함)

053-986-1080
010-9361-55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부시장 경남 양산시 중부동 429-7(2층)
- 평수 : 80평
- 대법당 삼존불 탱화
- 실내화장실 3개, 부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9945-2030

마음 다이어트

김대선 (명상 지도자)

〈8〉 마음다이어트 '자각 명상'

'나는 누구인가' 글로 풀어내 本性의 답 찾자

마음을 치유하는 글쓰기

명상은 자신을 돌아보며 현재 상태를 스스로 살펴서 무거운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덜어 내어 마음을 맑게, 밝게,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리에 앉아 호흡을 하면서 가슴속에 쌓여 있는 못다 한 말을 글로 적어 보는 자각 명상을 병행하면, 스트레스로 탁해진 자신을 비우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근래는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상을 글로 쓰고 있다. 하지만 깊이 있게 내면을 탐색하며 성찰하는 글을 쓰는 사례는 많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들로 인해 겉으로는 웃고 떠들어도, 다 털어놓지 못한 억울한 일과 하소연을 늘어놓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소연을 반복해도 언제까지나 들어줄 가족과 친구는 많지 않다. 반복하여 말하다 보면 건성으로 듣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들어 주다가 오히려 '네가 잘못했다' 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갑자기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마음의 화병이 나기 전에 자신만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공책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좋다. 명상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원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갈고닦는 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숨겨 놓았던 하고 싶은 말은 글로 써보는 것이다. 같은 내용도 반복하여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억울함과 서운함도 조금씩 사라진다. 혼자 방에 누워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바라만 보면 더욱 화가 나고 억울해 진다. 그러나 글을 활용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에 뭉쳐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글쓰기를 최고의 자가 치유 방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글을 쓸 때는 빈 공책과 연필을 준비해서 직접 써 보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신에게 쓰는 글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법, 내용, 비방과 욕설 등에 관계없이 적어 보아도 좋다. 셰퍼드 코미나스는 〈치유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글이 남이 보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우연히 자식의 노트를 보았는데 부모를 욕하는 내용이 있어서 버럭 화를 냈던 예를 들려준다. 글을 쓸 때는 평범한 노트와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너무 고급의 공책과 펜을 사용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자신을 적는 내용이므로 좋은 공책과 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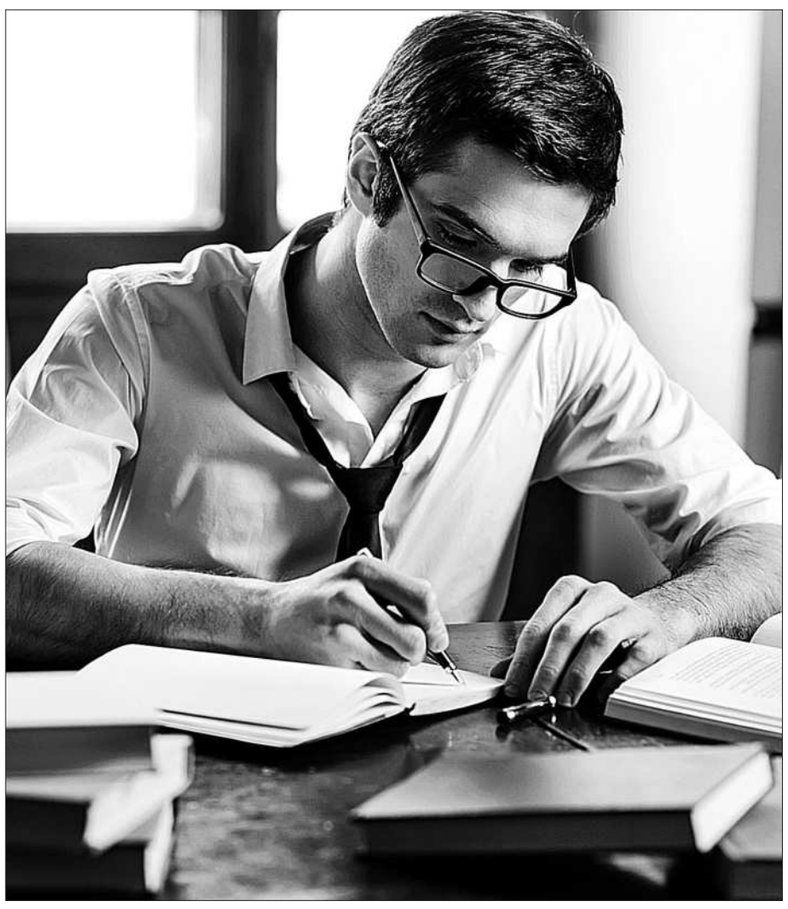
입을 통해 말로 해소하려면 상대가 있거나 밀폐된 공간이 필요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친구와 수다를 떨며 하고 싶었던 말을 실컷 하다 보면 스스로 지쳐서 그만두는 것처럼, 혼자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이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쓴 글들은 굳이 읽어 볼 필요가 없으며, 두서없이 쓰고 지웠다 다시 쓸 필요도 없다. 생각나는 대로 실타래를 풀듯이 계속 써 내려가면 된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문장이라도 속 시원히 적어 보기 바란다. 쓰다 보면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라 거부감이 들면서 기억하기도 싫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호흡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파장이 내려가면 과거에 거부감이 들었던 사건도 과거보다 힘들이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자각 명상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는 명상을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물음이다. 불교에서 '이 머꼬?' 는 불성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명상을 하지 않아도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게 된다. 보통 신입사원이나,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보통은 나이와 취미, 하는 일을 말하며 자신의 삶을 길게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 우물쭈물하며 자신의 이름만 간신히 소개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소개하는 것이 지겹다며 자신을 말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누구인지 꼭 집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 에 관한 인식은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신의 크기는 예부터 이야기하는 소인, 중인, 대인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인은 자신과 가족 정도를 자신의 범위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면 소인배라 한다. 중인은 가족 외에 주변 10~100명 정도까지 자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대인은 천명 이상을 자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류의 성인이라 칭송되는 사람은 나라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지구 전체를 자신으로 생각하여 함께 아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단순히 자기만족과 성취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으로 주변과 하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은 최민식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셨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나라와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였던 참된 선비이자 선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인간을 넘어 동물이나 자연 등의 주변 환경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가꾸고 보살피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나는 누구일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명상의 화두로 사용되는 질문이다. 계속된 마음속 질문으로 자신의 범위를 점차 확장시키게 된다. 경험에서 출발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지까지 계속된다. 결국 자신의 관심 영역이 철학적인 범위까지 사고의 폭이 확장된다. 이 과정을 거쳐 죽음 직전에 화담 서경덕은 '죽고 사는 이치를 깨달은 지 오래여서 마음이 편안하다' 고 하였다. '나는 누구인가?' 글로 써보는 것은 마음속의 다양한 감정을 정리하고 비우며 자신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화두로 잡고 계속 적어 내려가다 보면 새로운 자신, 본성에 관한 궁금증이 떠오르고 답도 스스로 찾게 된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과 성격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소연' 하듯 글로 마음 풀어내면
잊고 싶은 과거 거부감 없어져
명상으로 해소 못한 상처도
글쓰기로 마주하며 치유 가능

미안하고 감사한 추억 떠올리기

억울하고 분해서 원통한 나머지 잠이 오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미안함, 고마움' 을 주제로 글을 써볼 것을 권한다. '뒤로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해소하고 정화시키는 방법은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을 떠올려 비워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경험 중 억울함의 반대되는 상황인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기억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억울한 만큼 자신도 타인에게 억울한 마음을 들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인 것과 같은 원리다. 옛날 어머니께서 혼잣말로 "내가 무슨 업이 많아서…." 라고 신세를 한탄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업은 내가 잘못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한 것도 업이 된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악업, 잘한 것은 선업이라 하는데 악업이 많다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선업을 실천하면 된다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1단계는 미안함에 관한 글쓰기, 2단계는 고마움에 관한 글쓰기, 3단계는 감사함에 관한 글쓰기를 하면 된다. 글쓰기 대상은 사람, 자연, 동물, 하늘 등 자신이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본다면 쉽게 쓸 수도 있는 게 글이다.

근심 걱정과 억울함, 서운함, 두려움 등의 감정이 가슴속에 쌓여 있어 자신을 무겁게 한다면 단순히 명상하며 호흡만으로 해소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해소되지 못해 계속 잡념으로 떠오르는 감정의 곪은 상처는 외면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이 상처는 순간의 아픔을 참고 한번은 마주해야 치유될 수 있다. 글쓰기로 마음속에 엉켜 있는 실타래가 풀리면서 자신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억들은 강한 명약이 될 수 있다. 나 역시 아팠던 기억들이 비워지면서 덤덤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

명상은 마음속의 작은 빛을 찾아 이를 점차 키워나가면서 자신을 밝히고 주변까지 밝혀 나가는 것이다. 아직 스스로 어둡다는 생각이 든다면 좀 더 자신의 빛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면의 빛이 없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아픔이 많을수록 마음의 허기가 자신의 빛을 어둡게 만든다. 마음의 작은 불빛이라도 꺼지지 않게 점차 확대해 나가 주변까지 밝게 빛나게 하는 일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어둠의 그림자가 아무리 강해도 빛의 밝음을 이길 수는 없다.

용서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타인에게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우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면 전자만 생각할 뿐 후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후자는 자신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변명을 하곤 한다.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이 왜 자신에게 그랬을까 하고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앞에 상대가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자. 눈을 바라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느낌이 전해져 올 때가 있다. 눈으로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내가 과민 반응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내 경험으로 보아도 성격이 급해 순간적으로 욱하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았다. 평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며 몰아붙이는 상황이 연출되면 순간적으로 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참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화를 내는 것이 맞다' 는 변명을 하며 상대방에게 화를 내곤 한다. 당시에는 충분히 화를 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안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후회했던 적이 더 많다. 나 역시 내 처지만 생각했을 뿐, 상대편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바보 같이 또 화를 참지 못하여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시험에 넘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하면 명상을 할 때마다 잡념으로 떠올라 한동안 마음이 꺼림칙한 상태가 계속된다. 한참이 지난 후에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명상을 하며 삭이기도 한다.

세상은 공평한듯하지만 불공평한 것이 50%를 차지한다. 선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도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중요하다. 잘잘못을 가리되 무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다. 작은 힘으로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와 맞물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처럼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작은 힘이 큰 에너지로 발휘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易學강좌
논리로 푸는 사주학 과학역학 '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 '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 '석하리듬'

구 분	요 일	시 간	개 강
초급(주간)	매주(火)	15:00 ~ 17:00	10월 6일
초급(야간)	매주(火)	19:00 ~ 21:00	10월 6일
초급(야간)	매주(水)	19:00 ~ 21:00	10월 7일
중급(주간)	매주(木)	10:00 ~ 12:00	10월 8일

■ 기간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 교 수 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심원 남상용 교수, 교원 설운스님, 강세명 교수
■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출구(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 동양미래 진로적성상담사 2급, 3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제2015-003239호)
■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 동양미래 진로적성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 02)3443-4984

부적 기름의 혁명
松 송 根 근 油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청화 스님 ㊦

스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 '장좌불와'

예술은 주어진 현실의 재생이 아니라 현실의 발견이다. 그림은 형상을 그리는데 있는 게 아니라 형상 너머의 뜻까지 그리는데 의미가 있다. 미는 사물의 직접적 속성이 아니라 인간 정신에 대한 관계를 내포한다.

그래서 작가는 대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때의 해석은 개념과 사고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직관과 감각에 의한 해석이다. 예술 작품은 정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정신의 철학이다. 한 인물을 알기 위해 그 인물은 물론 그림자의 배후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이 발견 된다. 이럴 때 작가는 표현 대상 인물에 대한 영혼의 움직임과 전체로서의 삶, 위대함과 연약함, 숭고함과 우열 등 그 모든 깊이와 다양성을 발현 할 수 있다.

스님은 하루 한 번 쌀가루 한 컵을 물에 타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쌀가루 2~3 스푼과 둥굴레 뿌리 가루를 섞어 드셨을 뿐이다. 선정에 들었을 때에는 3일에 한 번만 드신 경우도 허다했다.

쉼 없이 공부에만 정진했다.
시간을 황금이라 말하며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했다



聖母, 218×187cm, 종이에 수묵 채색, 2010.
청화스님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다. 부모님의 제삿날에 가지 못하면 물을 떠 놓고 예를 표했다. 스님의 몸가짐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대하듯 애틋하고 겸손했다.

배가 곯으니 자연 어깨가 움츠려 들었다. 스님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좌복을 배에 대고 묶은 채 참선에 몰입 했다. 목숨을 건 수행이었다. 그만큼 수행에 철저했고 잠시도 공부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다. 대신 스님의 치아는 69년에 대부분 잃었고 74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어금니마저 버려야 했다.

스님은 쉼 없이 공부에만 정진했다. 자신의 시간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늘 혼자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차 여유를 주지 않았다. 시간을 황금이라 말하며 누구든 헛된 인생 살지 말라고 했다. 스님의 일상적인 언어 중 하나가 "나는 자네처럼 행망스럽게 놀아 본적이 없네."였다. 이처럼 최선을 다했다. 인간적인 미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의 평가도 있다. 스님의 정신세계를 진실 된 눈으로 바라 본 자들이 그만큼 적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스님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 스님의 철학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제자가 많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아쉽다.

스님의 수행 자세는 장좌불와로 일관했다. 확인 가능한 시점으로만 치도라도 최소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워 있지 않았고 앉아서 생활 했다. 역설적이게도 속을 비우는 삶을 살았던 스님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한 것은 장좌불와였다. "눕지 않았기에 살았지 누웠으면 장기가 들어붙어 돌아 가셨을 것이다"는 광주 한의사의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스님에게는 속을 비우는 것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루에 세끼를 먹으면 소화시키기 위해 몸은 요동을 치고 시끄러워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했다. 오히려 속을 비우니 정신의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이는 수행자의 무서운 집념이다. 노력과 끈기 그리고 투철한 정신력은 스님의 인생관에서 뺄 수 없는 대표적 요소이다.



빔, 122×73cm, 종이에 수묵, 2015.
스님의 삶은 본질 그 자체다. 비워서 얻은 상충과 양극의 통일이다.

스님은 은일했다. 그리고 묵언했다. 오욕칠정에서 벗어나 탈속의 경지에서 삶을 일관하려 했다. 무사했다. 최고의 미에 도달하려면 자연을 재현하는 것 못지않게 자연을 떠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스님은 버려서 얻었다. 스님은 정직한 모범생으로 원리 원칙주의자이다.

스님의 몸 자체가 교과서이다. 스님의 모습은 초발심의 표본이고 겸허함 그 자체다. 처음이면서 끝이었다. 스님의 살림살이는 단순했다. 모든 물건은 질서 정연했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다. 사물을 대하는 자세가 깐깐했고 빈틈을 허용치 않았다. 성본 스님은 "스님을 모시는 내내 스님 앞에서 숨 한 번 제대로 쉰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실례로 스님은 글씨를 반듯하게 잘 쓰는 사람을 좋아했다. 잘 쓴 글씨를 보고 사람을 평가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신이 반듯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스님은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사셨다. 고개 한번 들어 본적이 없고 수행하고 오나가나 책이나 보며 살았던 분이다. 누구에게도 눈빛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사람을 만날 때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레 대했다. 그만큼 인자하고 겸손했다.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로 기백이 있었지만 빛만은 감추었다. 자신감이다.

스님은 현실적인 것을 중시 했다. 그리고 허세를 싫어했다. 단순했고 담박했다. 겉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은 싫어했고 금했다. 스님의 몸은 야윈 편이다. 신체 선은 가늘고 고우며 섬세하다. 그러나 곁은 야위었지만 뼈는 통뼈로 대인 기질이 있다. 스님은 검도 유단자로 운동 기질이 뛰어난 분이다. 동작이 민첩했고 발걸음이 빨랐다. 온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엄청난 유연성이 발휘된다.

손과 발은 길고 컸고 따뜻했다. 얼굴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느낌은 깊고 맑은 빛이 가득하다. 머리 위 정수리는 법랍이 높아 질수록 봉긋 솟아올랐다. 눈은 크기가 달랐다. 왼쪽 눈은 부릅 떠있고 왼쪽 눈은 곱다. 눈빛이 형형했고 살아있다. 눈썹의 색깔도 다르다. 왼쪽 눈썹도 짙고 숱이 많다. 눈은 자주 깜빡인다. 코는 조금 낮은 편이고 얇다.

스님은 치아가 좋지 않아 고생이 많았다. 위 · 아래 모두 틀니이다. 때문에 입은 합죽하다.

인중 선은 뚜렷하다. 특히 스님에게 인중은 감정선이었다. 누가 슬프거나 언짢은 소리를 할 때 더 뚜렷했다. 입에는 항상 힘이 들어 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은 더 분명하게 두드러졌다. 입은 꽉 다물어 있고 거기엔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숨어있다.

스님은 성질이 급했다. 성질이 펄펄 끓는 분이셨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다.

스님은 말이 빨랐다. 그러면서도 말을 더듬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우렁우렁하다. 그만큼 힘찼고 까랑까랑했다. 자신감의 또 다른 모습이다. 스님은 귀가 얇았다.

성본 스님은 은사스님에 대해 "말로 공부해서 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 가셨다"고 하면서 "스님의 진면목이 그저 세상에 묻히는 것이 안타깝다. 스님의 진영이 살아있도록 잘 그린 그림이면 좋겠다. 그러면 스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 제도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염원으로 진영을 모시겠다"고 했다.

예술 작품의 본질은 근본적인 양극성에 있다. 모든 시대의 위대한 예술은 대립하는 두 힘의 상호 관련지음에 의해 일어난다. 대조인 것이다. 미는 그 본성과 본질에 있어 대립하고 있는 두 요소를 통일한다. 나는 청화 스님을 공부하면서 결핍의 자유와 상생의 쾌락을 보았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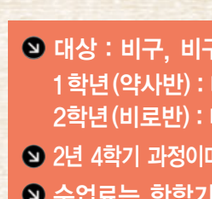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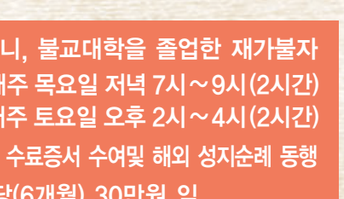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불자 세상보기

몰카는 '인격살인' … 윤리 교육 필요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얼마 전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우리나라의 몰래 카메라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여성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 동영상 파일을 넘긴 피의자 여성은 같은 여성을 상대로 서슴없이 몰래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별다른 죄책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고 보면 비도덕적 인간성의 일반화현상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만 하다. 그는 어쩌면 보편적인 휴머니즘에 대한 믿음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는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당분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몰래 카메라의 사진이나 동영상물을 즐겨 감상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진 성도착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시대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재미삼아 한 번 검색해 본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몰래 카메라의 가해자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스스로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아야 할 인간적 이유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일반시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에서도 뒤늦게나마 불법카메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지만 워낙 많은 종류의 초소형 몰래 카메라가 유통되고 있어 일일이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어 처벌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성범죄 등에 악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할 관련 법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건의 경우 단속과 처벌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몰래 카메라 사건의 발생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6623건으로 5년 사이에 약 6배나 증가했다. 여기에 신고 되지 않았거나 발각되지 않은 몰래 카메라 숫자까지 합치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너와 나 할 것 없이 무섭고 불쾌한 세상에 살고 있는 셈이다. 몰래 카메라 소비자의 단순한 호기심이 가해자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몰래 카메라 범죄는 말 그대로 '인격살인'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몰래 카메라 이용자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건전한 인터넷 사용과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도덕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방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은 교육현장의 기본적 신뢰관계마저 흔들 수 있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의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빌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쾌락 추구가 다른 사람의 고통증가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향유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똑같은 자유와 권리도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남의 몰래 카메라를 훔쳐보는데서 오는 나의 작은 쾌락이 상대방에게는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면 우리들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큰 고통의 방지를 위해 작은 쾌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인의 윤리적 결론이다. 이처럼 때때로 공리주의의 단순한 발상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시시한 일들에서까지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제1회 사관생도 독후감 공모

대상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을 읽고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1회 사관생도 불서 독후감 공모전'을 열고 9월 12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지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작을 발췌 · 정리했다. 〈편집자주〉

행복은 내 자신에게 달렸다



김 지 혜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어렸을 땐 엄마가 손목에 걸어준 염주가 예뻐서, 좀 더 커서는 '오세암'이라는 애니메이션에 감동받아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관학교에 입학한 이후, 의무적인 종교활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법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카카오스토리'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법륜스님의 희망편지' 내용을 전해주셨다. 매일 하나씩 올라오는 좋은 말씀들 중 특히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행복과 관련된 것이었고, 마침 전달받은 불서 독후감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 가지 불교서적 중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달라이 라마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본 달라이 라마는 평온한 얼굴을 한 스님이었는데, 이런 분과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묻고 답한 내용에서 행복해지는 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작가는 이 책을 한 마디로 '개인의 행복 찾기 지침서'라고 소개했다. 이 책을 통해 우울함, 화남, 기분 나쁜 감정 등 부정적 감정을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행복에 대한 토론' 편에서는 행복의 추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였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타인과 친해지기 쉽고, 회복탄력성이 좋으며 애정이 풍부하고 관용적이라고 한다.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대상을 비뚤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평상시엔 그냥 넘어갈 만한 작은 일에 트집을 잡기도 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낄 때는 굳이 내가 나설 이유가 없는 일을 돕기도 했고 선뜻 부탁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면 쉽게 타인을 도와주게 되며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공감과 함께 실천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내용은 ' 단순한 지혜' 편이었다. 여기서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 안에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혹은 나쁜 상황에서도 큰 마음의 동요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내면의 만족을 가져다주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삶이라는 유한성에서 오는 필연적인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며 고통을 회피하거나 숨기지 말고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고통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면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자기연민과 자책감에 빠지지 않고 죽음을 인정한다면 나 혼자만 비극을 겪는 듯한 고립감에서 헤어 나올 수 있고, 한결 수월하게 상실감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덕분이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유가 어찌되었든 내 마음가짐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똑같이 행사 연습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파이팅을 외치며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똑같은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누군가는 즐겁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내지만 누군가는 힘들어하며 포기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이 책에 따르면 두 부류의 차이는 역경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다. 힘든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한다면 스스로 행복과 멀어지게 되지만, 극복하고 난 후의 기쁨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임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고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행복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고, 또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당신은 행복한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1945년 8월 5일 히로시마에는 '리틀 보이'라는 앙증맞은 이름의 원자 폭탄이 투하된다.

당시 히로시마에 약 25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7만 명이 초기 폭발로만 사망했고 이후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한인 희생자로 상당 수였다.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이 가져다 준 업보이다.

2차 세계대전 정전 70년을 맞아 한중일 3국 불교계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쟁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의 불교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9월 15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각국 불교대표단은 예불 의식을 올리고 원폭 사몰자 위령비와 원폭 공양탑, 한인 희생자 위령비를 차례로 돌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대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추모 위령재를 열고 한인 피폭자들의 추모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한중일 삼국 불교계의 추모와 참회가 선언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아직도 세계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다. 전쟁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한중일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도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장 동아시아만 보아도 일본의 아베 내각은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빌미로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세에서 불교도들은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평화를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 불교 '황금유대'의 완성은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다.

문화재 전시행정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올해에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행정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불교계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시흥을)의 질의였다.

조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문화재청은 흰개미 예방 대책 마련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으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문화재청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흰개미 피해예방 대책으로 △전수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발견 △적극적 방제 추진 △흰개미에 대한 예방교육 연 10회(전국순회) 실시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진단 · 조사 등 연구 인력 보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의 경우 전수조사 이후 방제 · 방역을 하더라도 업체로부터 방제 · 방역 이후 준공보고만 받았고, 인력보강은 발표와 달리 조사인원만 1명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3명으로 전혀 늘지 않았고,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연구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흰개미 예방 교육을 10회 실시하겠다는 것도 허언에 그쳤다. 흰개미 피해예방 교육은 단 한차례, 지역별로 2차로 나눠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문화재청은 조사만 하고 정작 대책 마련과 정책 시행에는 손을 놓은 '용두사미'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다.

대책을 발표 해놓고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흰개미로 인한 목조문화재의 피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학계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때마다 문화재청은 면밀한 조사와 방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민낯은 복지부동의 전시행정이었다. 이제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별 이행계획을 마련해 흰개미 방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9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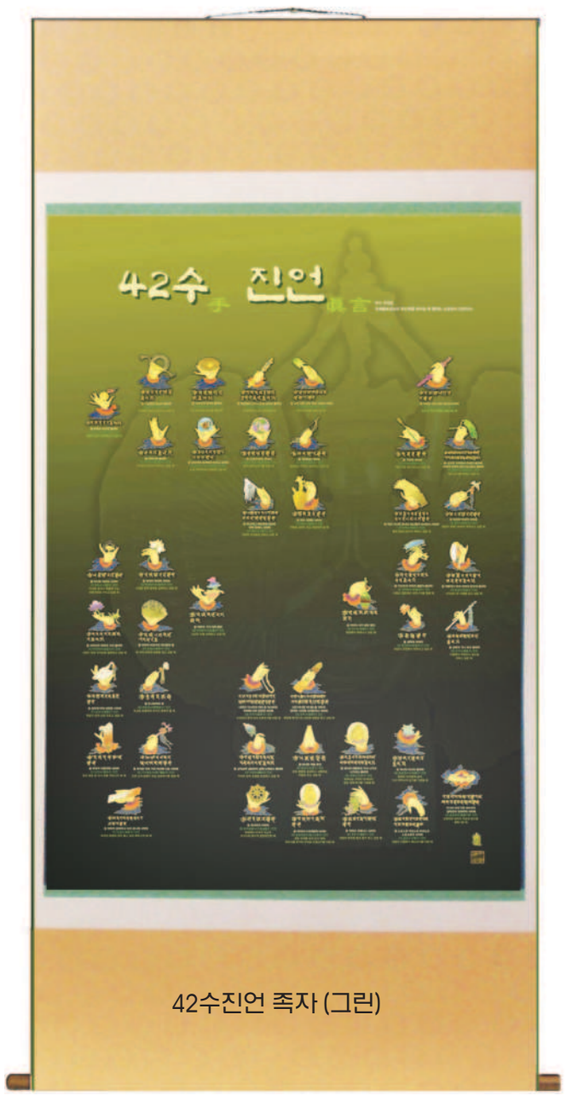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원효대사가 밝힌 정토왕생의 길



遊心安樂道
-마음이 극락에서 노니는 길-

한국불교의 위대한 성자 원효대사가 서방정토와
극락왕생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명쾌하게 서술한 정토신앙의 지침서!

원효 지/혜봉 역주/국판 양장/200쪽/값 12,000원

각종 점안의식의
작법절차를
집대성!



해사 편집/사륙배판/스프링 제본
312쪽/값 30,000원

점안의식집

**전래되는 의식집들을 비교분석하고 보완하여
여법한 점안의식을 완성!**

삼화상청, 신중작법, 불상점안, 삼보통청, 신중권공,
화엄시식, 조탑점안, 나한점안, 신중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산신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불상이운,
괘불이운, 파불급경가사소송법 등 수록

드디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반야심경 출간!

어린이 반야심경

어른도 함께 보는
알기 쉬운
반야심경 풀이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장선생님이 어린이
들을 위해 펴낸 책!

어린이의 수준에 맞춘 쉽고 재미
있는 해설, 편안하고 예쁜 삽화들
이 어린이들을 행복하고 지혜로운
반야심경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민병직 글 · 용정운 그림/전면컬러/
208쪽/값 11,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문화

한국불교 문화 70년

범패·불화 등 전통문화에 시선집중

문화 포교는 예술을 통해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찬불가의 태동과 전성기, 불교미술의 대중화와 현대화, 불법의 인연을 감동으로 전하는 영화와 연극, 그리고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사찰 음식과 산사의 풍경을 감동으로 전하는 사진까지 문화는 대중들의 오감을 자극해 불법을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해 불교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교의 방편 중 하나다. 이에 한국 문화 포교의 70년을 정리하고 향후 문화포교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970년대부터 찬불가 보급이 확대되었고 이후 교성곡도 활발히 창작되었다. 사진은 교성곡 '보현행원송' 공연 장면.



1970년 제 1회로 시작한 대한민국미술대전은 불교미술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다.



만봉 스님



석정 스님

찬불가, 합창단 창단 · 공연 활성화로
70 · 80년대 전성기 지나 침체기
재정적 지원 등 대중의 관심 절실

불미전, 동대 불교미술학과 개설
불교미술 현대화 이루며 발전해



서창업



김용호

음악 마음의 소리로 불법 전해

전통불교음악인 범패는 영산재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세계적인 음악으로 거듭났다. 이와 대비되는 현대적 의미의 불교음악인 찬불가의 개념이 생겨난 것은 1920년대부터다. 찬불가의 창작 보급은 용성 스님을 비롯해 학명 스님, 경허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가사를 써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불교노래는 대부분 창가풍 이거나 군가풍으로 더러는 우리의 정서가 담긴 타령조 혹은 학도가풍의 노래였다.

이처럼 어렵게 시작된 불교노래가 그나마 일본의 탄압과 우리 문화의 말살정책에 눌려서 기를 펴지 못하고 쇠퇴했다가 광복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복 후의 우리 사회현실이 너무나 어수선했다. 국토의 분단, 좌우익의 갈등, 게다가 불교권은 더 불행하게도 비구 대처간의 분쟁으로 196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김정묵 중앙포교사가 광복 직후인 1948년에 총 132곡의 노래가 수록된 〈찬불가〉라는 노래책을 강원도의 정선포교당에서 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산발적으로 생겨난 몇몇 어린이법회를 중심으로 1966년 처음으로 소년교화연합회가 발족되고 1969년에는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 불교음악이 싹 트기 시작한다. 1970년대에는 〈자비의 소리〉로 문서 포교를 하던 반영규 거사가 찬불가 보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 작곡가 출신의 서창업 선생에게 협조를 구해 곡을 만들고 이를 잡지에 싣게 된다. 또한 운문 스님이 어린이 법회에서 찬불동요와 의식곡 등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고 조계종 총무원은 최영철 씨가 작곡한 '삼귀의' '사홍서원' 등을 보급하게 된다.

합창단도 연이어 창단된다. 삼보법회 합창단을 시작으로 서울불교청년회가, 또한 조계사 · 도선사 합창단이 창단하고 이어 정옥녀 씨가 광명시에 청룡사 합창단을 창단하면서 찬불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한다.

특히 불광법회를 연 광덕 스님은 찬불가 보급의 절실함을 깨닫고 1978년에는 바라밀다합창단을 창단한다. 또한 광덕 스님은 찬불가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초파일 송가 파랑새 울고' (정부기 작곡)를 비롯해 교성곡 '보현행원송' · '부모은중송' (박범훈 작곡) 등 불교음악사에 길이 남을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또한 스님은 크고 작은 공연을 많이 열었는데 특히, 2001년 12월 28일에는 송년음악회 '교성곡 혜초' 를 한전아츠풀센터에서 공연했다.

1982년에는 도안 스님의 LA사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불교 역사상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동방의 빛' 이 공연된다. 이듬해 1983년에 불광법회 마하보디합창단(서창업 지휘)이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발표회를 열었고 이어 효동선원(지금의 일선사)의 중앙가릉빈가합창단(김용호 지휘)이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불교음악 발표회를 가졌다.

1984년에 서울 시내 여러 합창단이 모여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음악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80년대부터는 봉축음악회가 정착된다. 또한 서창업 선생이 작곡한 교성곡 '반야심경' 을 불광법회 마하보디합창단이 공연했고, 또한,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호암아트홀에서 불교계 최초로 불교국악연주회(1987년)를 가졌다. 1990년대에는 교성곡의 등장이 눈길을 끈다. 붓다의 노래(효경 작사 · 정부기 곡), 천수천안 관음송, 사바의 바다(반영규 작사 · 김동환 곡), 용성(도문 작사 · 박범훈 곡), 혜초(장지현 작사 · 김회경 곡) 등이 있다. 특히 '혜초' 는 진각종이 주관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참여해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 바 있다.

또한 1991년부터 불교방송이 5개년 계획으로 해마다 신작 찬불가 20곡을 만들어 발표했고 1996년 3월과 9월에는 불교방송에서 방송한 찬불가를 묶어 합창곡집을 냈으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관으로 〈찬불가〉라는 합창곡집이 나오기도 한다. 1997년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창작찬불가 공모' 를 하고 이듬해에 '제1회 창작찬불가 공모 결과' 를 발표했고 격년제로 진행되다가 2008년부터 불교합창페스티벌로 행사 명칭이 변경되어 합창경연대회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신작찬불가 20곡을 개발해 전국의 합창단들이 참여하는 신작찬불가 경연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좋은벗 풍경소리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1996년부터 매년 두 장씩 여름 겨울 불교학교를 맞는 어린이들을 위해 음반을 발표하는데 창립 20주년을 맞는 올해 마흔번째 앨범을 냈다.

2000년대는 니르바나오케스트라, 불교음악공동체 모임 '무소의 뿔' , 찬불가 보급모임 '육화림' 등이 활약하며 수준 있는 불교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은 올해 불교음악원을 개원해 국악으로 찬불가를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찬불가를 보급하기 위해 공연 무대에 오르는 스님도 주목할 만한데 도신 스님, 정율 스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재정 부족, 관심 부족 등으로 2000년대 불교음악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사, 공연 기획 등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반영규 거사는 "지금 불교음악은 재도약을 해야할 때다. 새로운 곡의 출현도 주춤하고 의욕적인 도전도 없는듯하다. 불교신도를 위한 음악회도 보이지 않는다. 뜻있는 사람들이 결사단체를 만들어 불교음악을 정리하고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할 때다. 특히 불교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처럼 부처님 일대기를 교성곡으로 만드는 일은 시급하다"며 의견을 전했다.

미술 현대화 대중화로 거듭나

불교미술은 지난 1700년 동안 세계가 주목할만한 문화유산을 남기며 한국미술사에 중요한 장르를 형성해왔다. 광복 이후 불교미술은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역량있는 작가들을 발굴 · 육성하고, 불교미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0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종무원으로 근무하던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노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28회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210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인간문화재, 대학교수 등 수많은 인재들이 불교미술대전을 거쳐갔다. 2012년 이후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불미전은 한 해는 공모전 한 해는 기획전으로 구성되어 작가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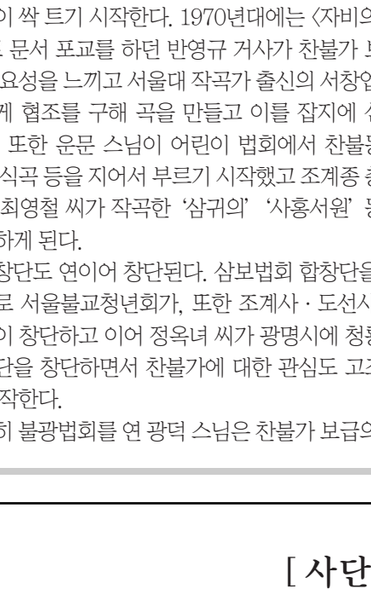
또한 현대 불교미술의 발전은 불교미술가 양성에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일찍이 금어로서 이름을 떨쳤던 만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은 이세환, 이인섭, 홍창원, 양선희 등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냈다. 또한 금어 일섭 스님 역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는데 올해는 그 제자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대규모의 전시를 여는 등 맥을 이어가고 있다. 석정 스님 역시 수안 스님, 손연칠 교수 등의 걸출한 제자를 길러내면서 불교미술을 알려갔다.

이렇게 스님들 문하에서 도제 시스템으로 길러지던 후학 양성이 제도권 교육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971년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의 탄생이 그것이다. 동국대 홍윤식 교수의 불교신문 연재에 의하면 "불미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이후 불교미술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불교미술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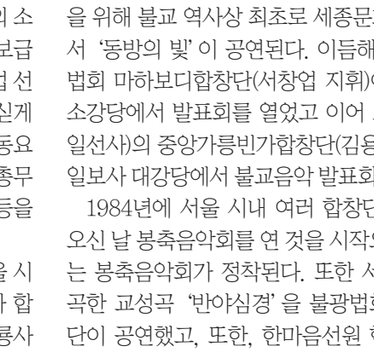
1964년 통도사로 들어가 본격적인 서화 수련에 들어간 석정 스님 은 이후 1969년 불교계 최초로 선서화전을 열어 불교계는 물론 화단의 주목을 받는다. 이후 선서화전은 붐을 이루게 되는데 그 대표적 작가로는 경봉 스님, 구산 스님, 탄허 스님 등이 있다. 이 때부터 사찰 불사가 있을 때마다 선서화전을 통해 기금 마련을 하는 등 선서화전은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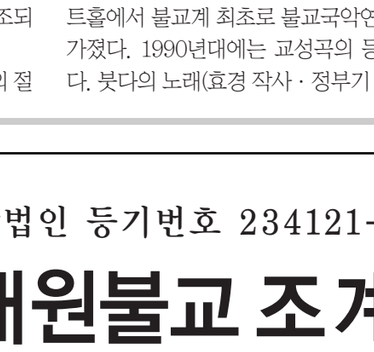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불사추진위원장 김홍중

"세계평화와 국태안민을 위한 수륙대재"
금번 본 종단에서는 2015년도 수륙대재를 봉행 하오니 모든 종도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례를 바랍니다.
- 행사일시 : 2015년 양력 10월 18일(셋째 일요일) 10시
- 행사장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78-6 조선해양문화관
- 문의전화 :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010-3565-2462번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문화
한국불교 문화 70년

음악·미술 '의식' 넘어 대중예술로


이만희 작가의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현재까지도 매년 공연되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1970년대부터 유행한 선서화전은 사찰불사 때마다 기금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일념장학회' 선서화전

작한다. 이후 불자들은 가정에 스님들의 글씨나 그림 하나를 집에 걸어두는 것을 큰 열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현재까지 선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동성 스님, 성륜 스님, 범주 스님 등이 있다.

1993년 국내 최초의 고려불화전도 주목할만하다. 1980년도 초반 일본 야마모토미술관에서 초유의 고려 불화전이 열린 이후 70여 점의 고려불화가 일본에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고려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홍윤식 교수 등의 노력으로 1993년 동국대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고려불화전을 기획하게 되었고 호암미술관과 함께 전시를 열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금동반가사유상은 2013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전시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등 불교미술 조각 역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조각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조각가들이 불교미술 영역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고 있다. 구도의 세계를 돌에 새겨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오채현 작가, 서양 조각의 비례법을 불상에 적용한 서칠교 작가 등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TV 속의 부처' 등에 불교 정신을 녹여 넣은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작품도 주목할만하다. 새로운 기법으로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해 석탑 불상 산사의 풍경 등을 작업해온 판화가 조향숙 작가의 작품도 기억할 만하다.

동국대 손연칠 명예교수는 앞으로 불교미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이 많이 탄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불화가들은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조선시대 작품을 계속 모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작품만이 진정한 전통이 될 수 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영화 대중성과 예술성의 결합

최초의 불교영화는 1949년 윤용규 감독이 제작한 '마음의 고향'이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지난해 2002년 주경중 감독이 현대적 감각으로 리메이크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4년 박영철 감독이 다시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제작해 기술 시사회를 갖기도 했지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1952년 윤봉춘 감독의 '성불사'는 징병을 기피한 주인공이 주지 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뉘우치고 자진 입대한다는 내용의 계몽영화로 당시의 시대상을 담으며 국방부 우수영화상을 받았다. 이어 신상옥 감독이 1955년 이광수의 원작을 영화로 옮긴 '꿈'과 현진건의 원작을 영화화한 '무영탑'(1957년) 등을 발표했고 양주남 감독이 '종각'(1958년)을 선보이는데 이들은 당시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 될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아제아제바라아제'






사진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향숙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동성 스님의 선화, 성륜 스님의 '열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영향을 받아 국난극복의 상황에서 활약한 고승들의 행적을 작품으로 선보이는데 이는 애국심을 고취 시키는 작품이다. 홍성기 감독의 '에밀레종'(1961년)을 시작으로 장일호 감독의 '원효대사'와 '석가모니', 이용민 감독의 '지옥문', 김승옥 감독의 '이차돈' 등이 동시에 선보인다. 1970년대에는 김화랑 감독의 '성불사의 밤'을 시작으로 1974년 김기영 감독이 제작한 '파계', 1979년 이영우 감독의 '사문의 승객'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1980년대에는 불교영화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작품성과 예술성을 모두 인정받는 수작들이 탄생한다.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김성동 원작)는 구도자의 진정한 고민을 잘 포착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권택 감독은 이 영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성장하게 된다.

1989년 임권택 감독은 '아제 아제 바라아제'를 내놓게 되는데 당시 배우 강수연의 삭발 투혼은 큰 화제가 되었고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룬다. 그리고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불교적 사유의 이미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극찬을 받으며 제42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다.

1990년대에는 '오세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화엄경', '유리' 등의 불교영화가 만들어졌고, 윤회를 소재로 한 '은행나무침대'가 흥행하며 강제규 감독의 이름 알리는 계기가 된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불교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2001년 박철관 감독의 '달마야 놀자'는 기존의 불교영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당시 유행하던 조폭 코드를 스님들의 이야기에 적용해 흥행에 성공하게 되지만 조폭 영화로 스님들을 희화화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0년 개봉한 영화 '할'은 우천의 깨달음의 과정을 담아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2013년 비구니 선방 백흥암 스님의 일상을 담은 독립 다큐영화 '길 위에서'(이창재 감독)는 독립영화로서는 5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호평을 받았다.

연극 극적 장치로 불교 이미지 전달

최초의 불교 연극은 1928년 홍사용의 '출가'를 꼽을 수 있으며 1929년 경기도 양주군 보광사에서 '목련극' 공연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30년대 들어 불교의 대중포교 원력과 불교개혁운동이 펼쳐지던 시대상황과 맞물리면서 불교 연극은 빠르게 확산되는데, 각황사의 성도절 기념법회에서 김소하의 다양한 희곡작품이 무대에 올려진다. 당시 1300~400명의 대중들이 모이면서 혼잡을 이루는 등 각황사의 연극공연은 큰 호응을 얻는다.

1948년 극단 극협에서 무대에 올린 유치진 작·이화삼 연출의 '마의태자'가 성황리에 공연됐고, 1955년에는 극단 대중극회가 '지옥과 인생'을 공연했다. 그리고 1967년 '이차돈의 사'가 국립극장에서 한달 동안 공연되는데 2만여 명 관객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1968년에는 불교 최초의 프로극단 탑이 창단되기도 한다.

1970년대는 극단 자유극장이 무대에 올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국립극단의 '에밀레종', 극단 신협의 대한민국연극제 출품작 '탑', 박제천 시인의 연작시를 극화한 '판각사의 노래' 등의 작품이 있다.

1980년대에는 뮤지컬이 등장하는 등 불교연극의 영역이 확대된다. 1982년 진관 스님이 극을 쓴 '선객'이 무대에 올려졌고 '구름 가고 푸른 하늘', '조신의 꿈' 등이 선보였다. 그리고 1984년 만해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엮어 발표한 '님의 침묵'이 발표돼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이는 불교 뮤지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교 연극중 가장 주목할만한 작품은 1990년 4월 초연된 이만희 작가의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이다. 현재까지도 매년 공연되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 작품은 한 인간의 세속적 번뇌를 통해 구도에 이르는 과정을 극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은 당시 서울연극제와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각종 상을 휩쓸면서 화제를 모았다.

1996년에는 뉴욕 라마다 극장에서 상연돼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강만홍 연출의 불교신체연극 '두타', 1998년에는 '느낌, 극락 같은'이 무대에 올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1999년에는 국립극단이 전년도 창작희곡공모당선작인 '아노미'를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시리즈로 무대에 올렸다.

2000년대에는 '붓다를 훔친 도둑', '한바탕 꿈인 것을', '붓다마이바디',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름다운 남자', '선', '지대방', '환화여 환화여', '매혹-회암사 그 천년의 눈물', '아버지의 가수' 등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지대방'은 원담 스님이 극을 직접 쓰고 불교연극 전문연출가 강영걸 씨가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이밖에도 2011년에는 MBC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뮤지컬 '원효'가 국립극장에서 올려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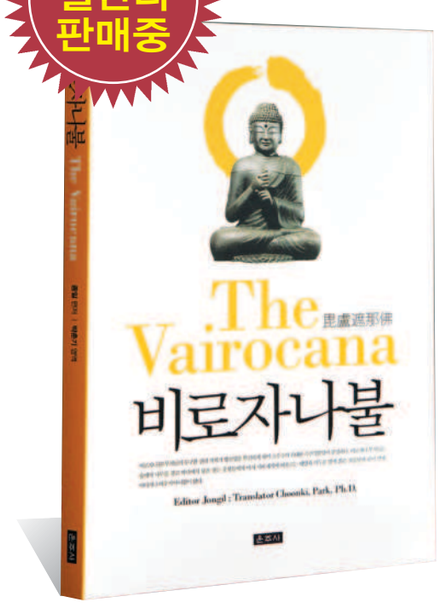
사찰음식 수행식에서 건강식으로

사찰음식은 스님들의 수행식이라는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웰빙'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유기농 음식, 채식 등의 음식이 각광받기 시작했고 사찰음식이 건강식으로 대두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진관사, 비구니회관, 봉은사 등에서 사찰음식 강좌는 큰 인기를 모으며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적문 스님, 선재 스님, 대안 스님 등 사찰음식을 전문가도 주목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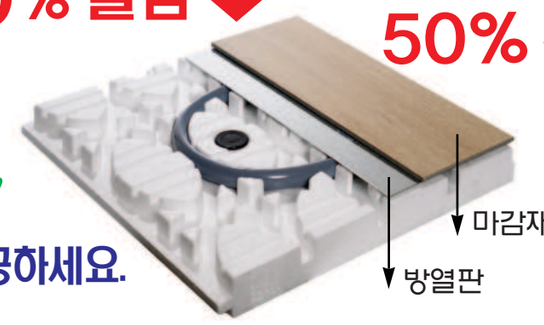
이에 조계종 역시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2009년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을 여는 등 사찰음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봉녕사, 봉은사 등도 사찰음식 관련 축제를 열고 있다. 또한 조계종은 2011년 9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불교와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한국불교문화체험 리셉션에서 대안 스님의 특강을 열어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과 우수성을 현지인들에게 알린 바 있다.

사진 산사의 이미지 렌즈에 담아

사진은 사찰의 풍경이나 스님의 일상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내 대중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문화포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찰 달력에 산사의 풍경을 담으면서 대중들에게 신심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도 불교사진은 주목된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로는 관조 스님을 들 수 있다. 1975년부터 2006년까지 관조 스님은 사찰 건축물과 불교문화유물 해외사찰문화 등을 렌즈에 담아냈는데 20만컷에 이른다. 이에 2012년에는 조계종 총무원과 관조 스님 문도회가 MOU를 체결하고 스님의 유작 사진 디지털화에 나섰다. 또한 재가신도들로 구성되어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사진협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으며 현재 1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면서 매년 사진집 발간과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傳法은 세상을 환히 밝히는 큰 빛

목종 스님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 1987년 범어사 청련암에서 출가,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부산불교방송 목종 스님의 월요법문, (사)생명나눔실천부산본부 부본부장, 해운대 구청, 부산백병원 지도 법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뇌사 판정 위원,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 해운대구 자살방지위원,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불교 TV BTN '가피'와 '신행담'을 진행하며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대광명사 주지로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수많은 포교당이 문을 열고 닫는다. 포교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산문 밖을 나온 많은 스님들이 포교당을 개원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일이 허다하다.

불도(佛都)로 불리는 부산에서 해운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중요도가 매우 높지만 '포교의 무덤'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이러한 포교의 무덤에서 매년 1000여 신도들이 찾오게 하는 사찰이 있다. 바로 해운대 대광명사이다. 9월 10일 대광명사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지 목종 스님을 만났다.

부산 해운대와의 인연

목종 스님이 부산 해운대에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 4월 범어사 해운대 포교원 반야원 주지를 맡으면서다. 강원도 토굴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수행하며 보내던 스님은 포교 활성화의 부탁을 받게 된다.

스님이 반야원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한명의 신도도 없었다고 한다. 스님은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고 지하철을 찾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가장 시급한 일은 해운대에 불교사찰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다.

"혼자 있어도 기도를 하고 예불을 드렸어요. 알리기 시작하면서 한명 두명 그래도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불자님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불교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스님은 불교를 모르며 활동하는 불자들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그렇게 문을 열게 된 것이 불교대학이다.

삼삼오오 모여 들기 시작했던 불자들도 2006년 봄 · 오전반 20여 명 오후반 15명이 불교대학에 진학했다. 그 때 당시 스님의 강의는 획기적이었다. 단순히 불교 경전을 풀거나 법문을 진행하는 형식이 아니었다. 부처님 앞에 찾아온 불자들에게 현실 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가르침으로 이어갔다.

"우리의 삶속에 적용이 가능한 가르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행복이더군요.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지만 불자님들은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적도 모르고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바라는 모습이라고 했다.

"행복을 구하기는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행복을 얻기 위해 조건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따라다닙니다. 돈이 있으면 조건이 좋아지면, 집이 있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등 여러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행복의 조건을 찾아다니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언제 행복했는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스님의 강의는 그 곳을 찾은 불자들의 마음을 때렸다. 원하는 부와 목표를 위해 부산 해운대를 찾아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인생의 답을 얻어가기 시작했다. 스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바라는 성공한 인생이 허망하고 기쁨은커녕 자신을 옭아매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좋은 조건이 행복을 주는게 아닙니다. 마음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보고 이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 가르치신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라'. 이것은 현재 대광명사의 슬로건이자 가르침의 방향이다. 그렇게 시작한 불교대학은 2년 만에 수강자가 100여 명에 이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으켰다. 그 후 개원 10년 동안 불교대학을 수료한 인원이 총 2081명이다.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스님은 바르게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강의를 통해 법을 전해도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려고 하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대학 강의 후 불자들에게 배운 바를 실천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지역을 찬찬히 살펴봤죠. 해운대는 겉모습이 화려해서 어려운 형편을 안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구석진 곳을 가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월세가 비싸서 독거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아도 월세를 내고 나면 한달 동안 생활비와 식비 그리고 난방비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병원은 꿈에도 못 꾸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해운대 포교 모범 사례 꼽혀
불교대학 2000명 넘게 몰려
지역봉사 등 실천 · 수행 강조
자살 · 무연고사망자 돕기 나서
천도재 · 위령재 무료로 지내

스님은 해운대의 독거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 한 것이 대광명사 사무량심 운동이다.

대광명사 사무량심 운동은 한 달에 두 번씩 독거 어르신들의 필요 물품과 반찬 도시락 제공을 진행한다. 매월 셋째 주에는 병원과 연계해 어르신 건강관리 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스님은 가장 큰 혜택을 얻은 것은 바로 참가한 불자 자신들이라고 말했다.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불자들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면 지식으로 알긴 하지만 그것이 가슴 깊숙이 삶 자체에 변화를 이끌어 주긴 부족한 면이 있었죠. 참가한 불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다고 말입니다. 바로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이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부산불교, 자비심 속에 자란다

대광명사는 법회와 함께 현재 불교대학을 통한 교육, 사무량심을 비롯한 대원염불공양회, 참선 교실, 거사림회 등 다양한 신행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 봉사단, 해운대백병원의 자원 봉사단 활동도 부산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목종 스님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루에 소화해야할 스님의 스케줄을 두고 항간에는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시간을 재야 할 정도라고 한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총장, 해운대구청 및 부산 백병원 지도 법사, 부산지방경찰청 경승,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하다. 이 중 스님은 인제대 부산 백병원 뇌사자 판정 위원, 해운대구 자살방지위원 그리고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의 부본부장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일을 통해 스님은 장기 기증 홍보 서약, 난치병 환우 돕기 활동 등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활동을 위해 전력 중이다.

특히 2007년부터 인연이 된 부산 백병원에서는 매달 법회를 봉행하며 환우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 된 인연으로 스님은 현재 부산 백병원내에서 뇌사 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 뿐만 아니라 뇌사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 환우들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뇌사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결정 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이 컸겠지만 당사자는 오죽 할까요?"

스님은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 기증을 한 환우들을 위해 직접 천도재도 지내주고 있다. 매주 수요일이면 천도재와 위령제가 빠짐없이 봉행된다.

"장기를 이식하면 크든 작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도재를 지내고 난 뒤부터는 그런 부작용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사망자의 종교와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의 혼이 위로받고 집착을 여의고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은 천도재를 통해 그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무료다. 그리고 스님은 천도재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그리고 자살자들을 위한 49재도 함께 봉행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들은 5년간 유골이 보관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외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분들을 위해 49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자살한 분들입니다. 생명보다 지독한 집착에 아파했을 그 사람들은 자살을 했지만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자살자의 가족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그들을 위한 위령재나 천도재를 마음 편히 부탁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자살자들의 가족들은 또 다시 자살을 결정할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 實戰四柱 강좌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강의일시 : 매주 월 ~ 화, 목 ~ 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수 강 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질병,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매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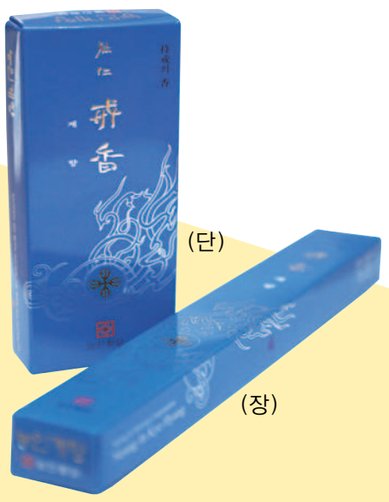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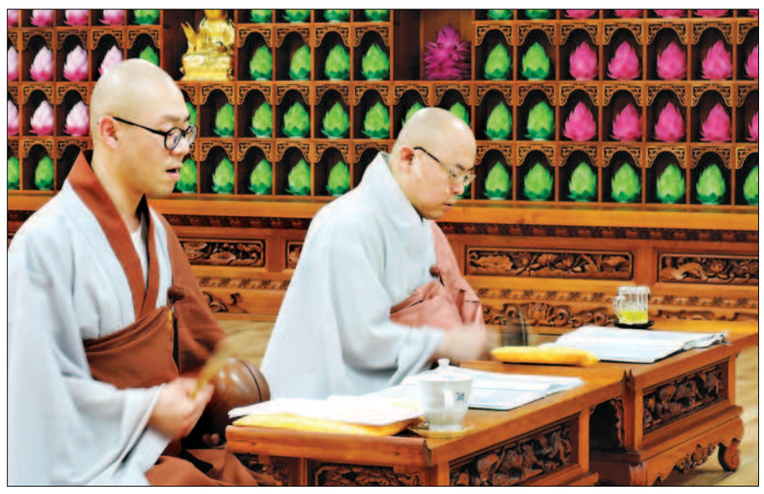
자신을 행복하게도 합니다”


부산 백병원 의료진과 함께 찍은 사진. 스님은 2007년부터 백병원서 법회를 열고 있다.


병원에서 다친 어린 환자를 돌보는 목종 스님의 모습



2013년 해운대구 자원봉사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 7월 2일 열린 순국열사 · 애국지사 무료 위령재 모습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을 위한 위령재는 자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스님은 무료로 지내는 위령재와 천도재를 위해 광고도 하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죽음의 순간, 출가의 길을 생각하다

스님의 활동 가운데 병원에서의 활동이 유독 눈에 띈다. 부산 백병원 법우회를 위한 활동과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진행하는 활동 등 환우들을 위해 더욱 마음을 따뜻하게 낸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불교법당을 개원하는 원력도 이루었다.

“아픈 사람들은 더욱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더욱 그러하지요. 자신들이 건강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조차도 기억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플 때는 다릅니다. 약하고 병든 그들을 위해 손 한번 잡아 주고 찾아가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 될 것입니다.”

스님의 이런 원력 뒤에는 죽음을 경험한 출가의 인연이 숨어있다. 법대 행정학과를 다니던 고학생 시절, 스님은 어려웠던 가정의 형편을 돕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학생이였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과외 금지령이 내렸어요.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학 학자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었지요. 그러던 중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괜찮다 싶어 택시를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후 겪은 아찔한 순간, 스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캄캄한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를 넘어 3살 때의 기억을 기점으로 무언가 환해지더니 다시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길가에 앉아 쉬면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가 없더군요”

스님은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 경험 후로는 인생관이 뒤바꼈다.

“바르게 살고 훌륭한 일을 하고자하는 의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나 자신이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칭찬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더군요 죽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진실하게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범어사에 들어갔고 출가를 하게 되었죠.”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진리를 찾을 것이란 확신이 스님의 발을 이끌었다.

포교는 곧 수행,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포교의 힘이 무엇인지 물었다. 어떤 방법이 왕도인지 재차 묻자 스님은 “없다”라고 했다. 단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했다.

“포교가 곧 수행입니다. 아무런 망상 없이 주어진 역할과 조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외엔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님은 그리고 현재 불교의 소극적 포교에 대해 안타깝다며 다른 타 종교의 공격적 포교에 대해 배울 바는 배워야 한다고 강조 했다.

“부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전법 활동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교에 대해 여러 왜곡된 인식들 가운데 하나가 소극적 전법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또한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역사적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불교를 많이 봅니다. 그 시선을 거두고 불교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들어내고 알리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전하기 위해 불교를 전한다고 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최고의 행복, 그 가운데로 세상 만인을 초대하기를 발원한다.

부산=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늘이 높아졌다. 요즘처럼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두둥실 떠가는 저 구름처럼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구름처럼 물처럼 걸림 없이 흐르는 대로 떠다니며 세상 가운데 답을 구한다 하여 불가에서는 수행자를 운수납자(雲水衲子)라 부르지만, 실상 스님들 가운데 모든 일을 내려놓고 훌쩍 길을 나설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속세와 인연을 멀리하고 출가를 하면 대자유인이 될 줄 알았건만, 스님들 또한 승가의 일원으로 살게 되면 크든 작은 인연에 걸려 발목이 잡히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만행(萬行) 한번 떠나보는 게 많은 스님의 로망이 되어버렸다.

십여 년 쯤 운 좋게도 나는 만행(萬行)을 떠나볼 기회를 얻었다. 불교 포교의 일번지라 부르는 조계사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맡았었고 한창 라디오 방송과 청년회, 장애인포교, 교도소 봉사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입적하신 묘심 혜안스님이 나를 불러놓고 물으셨다. “너 출가한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데 여태 부처가 되지 않고 무엇을 한 게야” 하시며 크게 호통을 치셨다. 그동안 나름대로 포교 일선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스님의 일갈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길로 바랑을 꾸렸다. 얽히고설킨 수많은 인연들, 복잡한 소임도 그 자리에서 놓아버렸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쉽게 내려졌다. 그동안 일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림 · 박구원

그 후 3년 간 거리의 수행자로 살며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경험을 했다. 온종일 길을 걷다가 마땅히 잠잘 곳을 찾지 못해서 허름한 창고에 몸을 누여보기도 하고 그것마저 허락지 않던 날은 거리에서 노숙을 했다. 길 위의 생활이 오래되니 굶는 날도 더러 생겼다. 겨울에는 얼굴을 때리며 불어오는 칼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지금도 그때 스민 한기가 남아 있다. 절집을 떠나보고서야 하루하루를 사는 일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 깨달았다. 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도님들의 정성스런 공양으로 편안하세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받아먹는 공양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서야 절감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산과 들을 떠돌며 수많은 탑과 불상들, 폐허가 된 사지(寺址)를 만났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사찰에서 문화재로 등록해 잘 관리한 곳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불교문화재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한땐 힘들고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와 깨우침을 주셨고, 사원에 여법하게 모셔져 신앙의 대상으로 공양을 받았을 부처님이 처참한 몰골로 산야(山野)에 버려진 채 계셨다.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 경북 의성 근처를 지나는데 마을 논 한가운데에 부처님께서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불두(佛頭)는 이미 훼손된 채 지는 해를 받으며 쓸쓸히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을 뵈니 먹물 옷을 입은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주섬주섬 바랑에서 사과 한 알을 꺼내어 공양 올리고 잠시 멈춰 서서 예불을 올렸다. 그때 길고 긴 참회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승려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生) 살겠노라 발원을 올렸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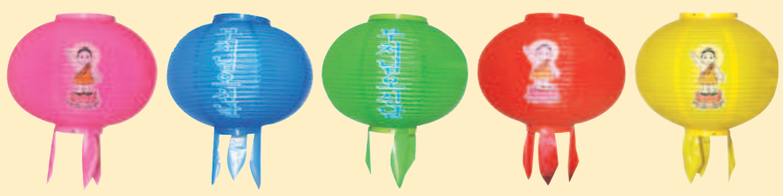
비록 노스님의 병환 소식에 만행길을 접어야 했지만, 그 시절 3년간의 만행은 나에게 출가의 의미를 되새겨볼 좋은 계기가 되었다. 언제라도 집착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머리 깎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다 한들, 진정으로 출가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도 깎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덕신 스님(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보련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극락왕생등


공 단 등

황 금 등

영 가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모두 空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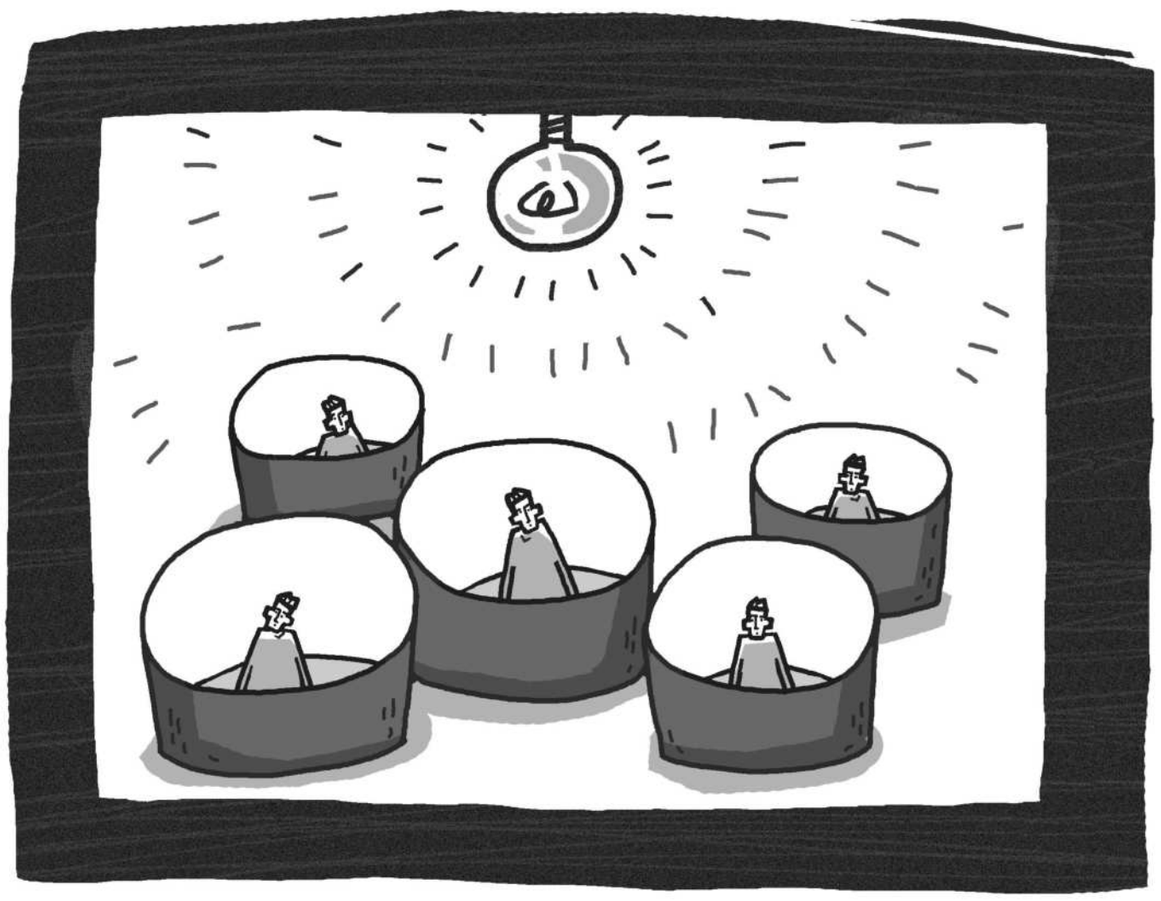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모두 공(空)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놔라. 이게 공해서 돌아가니까 거기다 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라면 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놓는 게 뭐냐? 왜 어떤 스님은 방하착(放下着)을 하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놓으라 그러느냐? 이것은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自性),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전통신기도 눌러야 통신이 되죠? 불을 켜려 해도 스위치를 올려야 켜지지요? 가설이 돼서 불이 켜질 수 있는 건데도 자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켤 때는 켜고 끌 때는 끄고, 자유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하니까, 부처님은 자비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다, 이런다면은 여러분의 몸은 어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떡하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똑바로 관(觀)해 봅니까? 똑바로 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해서 우리 국내를 살릴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님네 역시 머리만 깎고 목탁이나 치고 경(經)이나 읽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한번 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선 점을 딱 찍고 넘어간다면 그건 그대로 통과야. 그대로야.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법칙이야. 그런데 내 몸 하나 처단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처단 못한대서야 어찌 귀중한, 아주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이름의 법칙을 어떻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부처님 법은 너무도 신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시공도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 그 자체를 뛰어넘어라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나라에 이러한 도리를 증득한 분이 있다면 그 나라를 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데를 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거를 아는 자는 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었죠. 공부하는 인간이 살다 살다가 어떻게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큰 뱀이 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일편단심 공부를 했더랍니다.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군인들이 주둔을 해 가지고 거길 그냥 싹 모두 깨트려 버리고 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뚱이가 동강동강 났죠. 즉 그로 인해 그 동네가 망했다는 얘깁니다. 그 동네가 산산조각 난 것은, 자손들이 전부 미치고 병들고, 다 흩어지고 죽고 그러니까 그냥 망한 거죠. 그만큼 이거는 미신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미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림 · 최주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부한다고, 좌선만 참선이라 생각하고 앉았으면 만법을 활용할 수 있고, 만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실상적으로 생활이 참선이고 그대로 생활이 삼매(三昧)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육신은 망가지죠. 약탕관을 들고 다녀야죠.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약해지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와서 "저는 암인데요, 꼭 살려 주십시오. 집이라도 팔아서 시주를 할 테니 살려 주십시오." 내 가슴은 철렁했죠. 왜냐하면 애들은 여럿이고 오두막집이라도 팔면은 저거 저…. '저렇게 모르나.' 이런 답답한 느낌을 어떤 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나마 있는 오두막집을 팔아서 고생을 한다면 내 마음은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과거 생으로서부터 받은 업보라면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해. 그러나 사는 길이 있긴 있죠. 진실히 믿고, 어려워도 진실히 믿고 거기다가 '죽든 살든 네 탓이다!' 하고선 딱 놓으면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난 그럭해선 요구를 안 해요.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은 쥐고 있어야 된다. 암이니까, 그거 죽을 거니까, 아무 때 죽어도 죽을 거니까 돈은 있어야 자식들하고 산다고 하면서 돈은 꽉 쥡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변호사가 무료로 대변을 해 줄 수도 있고 판사나 검사가 참작해서 해 주지만, 돈이 많으면서도 돈을 내놓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보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서류를 해서 근거가 아니라면 상신을 할 수가 없죠. 뭘로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법정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집니다. 부처님 법에는 시주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또는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그것도 자유겠죠.

나는 설법한답시고, 어떻게 된 건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모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 있게 경을 봐서 하려고 한다면은 벌써 그 묘법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이익이 하나도 가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일구월심 여러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에 의해서 그 피 한 방울이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또 여러분이 저 사람은 체계 있게 못하니까 나 안 간다 해도 할 수 없다 이거야. 안 와도 할 수 없고 와도 할 수 없고, 진실히 믿어도 할 수 없고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전에도 그랬죠. 신도 분들이 내가 미약하고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한 명도 안 오셔도 좋다고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꽉 찼다고요. 허공에도 많다는 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다 주지 않았다고 굶거나 여러분이 갖다 줬다고 잘 먹거나 그러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기껏해야, 하루 온종일 먹어야 한 공기 반이나 한 공기면 하루 종일 먹을 걸…, 보리밥 꽁뎅이. 아, 우리 스님네들더러 물어보세요. 김치하고 먹으면 그만인데, 내가 왜? 잘 먹겠다, 덜 먹겠다, 더 먹겠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외려 부작연(不綽然)해. 외려 부담이 간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걸 사다 주면 오히려 부담이 가. '어이구, 자식들하고 자기네나 먹지 뭣 때문에 이걸 가져오나.' 이러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놔라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딱 찍어 놓는다면 그대로 法!

☞ 29면에서 계속

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는 지금까지도 스님이 돼서 여러분한테 절을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스님이니까 으레 여러분한테 보시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한테 음식을 받아야 하고 잘 먹고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해 본 예가 없어요. 이 세상천지와 더불어 사생(四生)이 전부 내 마음과 몸과 그 아픔을 같이하고 참, 혼연일체가 돼서 상부상조하는데 어찌 남의 일이며 내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남의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둘을 놓고 본다면 어떤 것이 귀중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그거를 냉철하게 알고 본다면 본래 산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그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저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맘이 안 아프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입에 붙은 밥풀같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가식이죠. 진실입니다.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하는 도리를 배우지마는 몸은 각각 있으니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랑하면서 또는 화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이 다 화목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복이 들어오며 얼마나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할 줄 안다면 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세계를 관해서 볼 수도 있고, 우주를 탐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분신(分身)을 수만 개로 만들 수도 있고, 들이고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 앞에 자꾸 전달을 해도 여러분이 실천 한번 해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한 번도 실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칼싸움을, 무술을 잘하던 사람은, 칼로 항상 맞아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한 사람은 강도가 들어와도 눈도 안 깜짝거리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당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 칼을 들고 들어오면 부르르르 떱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연히 이것이 떡그릇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떡그릇에 엎드러져 보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리를 스스로서 믿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 주인공을 딱 찍어 놓죠. 찍어 놓으면 그 주인공은 영화가 다 끝나도록, 소설을 다 보도록 죽을 둥 살 둥 하면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찍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게끔 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주인공으로서 딱 모든 걸 관해 봐서, 나에 관한 건이라든가 자식에 관한 건이라든가, 국가에 관한 건이라든가 이 세상을 관해서 보려면 세계를 똑바로 봐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데, 우주적으로도 다른 혹성의 세계를 관찰해야죠.

그렇게 관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딱 찍어 놓는다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런데 내 몸도 그렇고, 죽느냐 사느냐도 자기 마음대로지 구태여 그것을,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나 점찍어 놓으면 되듯이, 영화 속에서 다 죽어도 그 주인공 하나만은 살 수 있도록 찍어 놓는다면 여러분이 왜 걱정 근심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극치적인 삶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명주옷만 입고 무명옷 입었다고 해서 전자의 명주와 똑같아야 하고 전자의 명주를 입어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즉 명주도 지금 실크로 만들어서, 실크만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고상하게 색채를 다 내서 또 꽃을 만들어서 다 조화를 이루어서 딱 상점에 내놔야 잘 팔리겠죠. 이름은 바뀌었으나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지금 가르치는 것이 명주, 무명 고대로 그냥 가르치고 있으니, 실크가 벌써 나왔는데 명주 가르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죽이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부처님 법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숭상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 국내에서 부처님 법을 삼백 년, 오륙백 년 뒤떨어지게끔 해서 쓰겠습니까? 앞장서도 지금 서럽다고 할 판국에 그래 뒤떨어져서, 한 오륙백 년 뒤떨어져 가지고서는 그때에 가서 "아이고, 부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복으로써 비는 것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스님네들도 그냥 경을 가르쳐 주는 강원(講院)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스님네들도 앞으로는 명주, 그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근본은 똑같으니 실크로 만들어 보자. 실크로 나왔으니 실크라는 이름이 바로 명주라는 걸, 양면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겁니다. 실크에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고 찾는 대로 꽃 모양으로 놔서 세상에 내놔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슨 계획하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공부를, 공부 아닌 공부를 하시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본래 스스로서 청정하고, 스스로서 체계가 서 있고, 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청정함도 없는 게 진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라는 이름도 부수고 넘어가야 될 판국이죠. 이 커피잔이 만약에 부처의 이름이라면 커피잔을 부수고 들어간다 하는 건 뭘 뜻하느냐? 내가 이 커피잔에 물 들어 있는 걸 갖다가 마셔 버리면 그냥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이 커피잔의 이름을 말할 거는 없죠. 둘로 나누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나요, 바로 내가 급하면은 커피잔을 들고 물도 떠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비유했지만 잘들 새겨들으세요.

> **본래 스스로서 청정하고, 스스로서 체계가 서 있고 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청정함도 없는 게 진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이 일을 하려고 나가보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지저귀고 있거든요. 이 소리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중국 어디에서 그랬대요.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보기도 한 얘깁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까마귀는 무(無)의 세계의 영령들의 소식을 전해 주고, 까치는 지금 현실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준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전해 주는 거는, "어이구! 또 까마귀가 울어댔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네 집에 오늘 저녁에 강도가 들어서 죽을 테니까 피하라고 피하라고 막 가르쳐 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는 강도를 당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어이구, 그 까마귀가 와서 짖더니 이렇게 흉한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왜 까마귀 탓을 합니까? 일러 줘도 못 알아듣는 자기 탓을 하지. 그리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좋은 소식뿐이 아닙니다. 일가친척 사기꾼이 오는데 까치가 까악까악 짖었다 이거야. 일가친척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아닌 도둑질을 해 간다 이겁니다. 그거는 또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해야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막 재잘대고 그러거든요. 잘 들어 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의 창고에 금이 있는데, 그걸 도둑질해 갈 텐데 이 국고가 비면은 큰일 날 테니 야단이라고 아, 이러면서 지지고 볶거든요. 그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큰 야단이 났거든요. 자기가 얘기해 봤던들 믿어 주지도 않을 거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하면서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아, 들어가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겠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조심하십시오. 이 국고가 빌 테니까 철저히 지키라고 하십시오." 이랬더니 이 미친놈 보라고, 이 미친놈! "이놈아, 이 미친놈아! 네가 와서 그러는 걸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나도 미친놈으로 모가지 달아나가." 그러니까 나 말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 지나니까 정말 도둑을 맞았거든. 국고의 금덩어리가 그냥 다 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거를 나라에서 찾느라고 온통 뒤집고 야단들을 했는데 그때의 그 생각이 문득 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일러 준 게.

그러니깐 장군한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길 하니까 장군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거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놈이 그렇게 잘 들으니 내가 저걸 이용을 해서 '새가 뭐라고 그러는가? 어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서 내가 좀 더 나라에 이름도 올릴 겸, 돈도 벌 겸 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아, 찾아서는 떠억 "너, 아침마다 나가서 새소리를 들어라,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시켜서 가서 들어 보니까는 "얘, 고놈 나쁜 놈인데 얼마 안 있으면 모가지가 달아나갈 거다." 그러거든요. 허허허. 아, 새들이 그러고 하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럭했다 하면은 큰일 날 테니까. 쭈물쭈물하니깐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릇도 못하겠다고 해서 몹쓸 고생을 하고 자기 부모까지 다 잃고 관가에 끌려가서 자기 가족도 몹시 매를 맞고 그래서 스스로서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을 잘못한다거나…. 물론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은 값있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말이란 건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키우는 돼지들이 말을 하기를 "아, 저 집은 소를 팔아 왔는데 그 소 판 돈을 지금 가지고 있어. 저렇게 돈이 있는데도 가난한 척하고 있잖아?" 하고선 말을 하거든요. 돼지들이 꿀꿀꿀꿀 해도요, 그 가정 일들을 다 알거든요. 돼지 밥을 갖다 주는데 꿀꿀꿀꿀 하곤 돼지가 돼지 물을 먹으면서 아, 서로 고개를 이러면서 하거든요. 소를 팔아왔는데도 우리 밥은 물만 준다 이거죠, 물만 준다. 하하하. 그래서 그 소릴 들은 사람이 하도 우스워서 껄껄대고 웃다가 옆 사람이 "넌 미친놈처럼 왜 웃니?"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그 소리가 나온 겁니다, 무의식중에. "아, 글쎄 돼지들이 말이야, 밥을 먹으면서 이 집이 소 판 돈이 있는데도 먹을 걸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뜨물에다가 만날 술지게미만 줘 가지고선 우리들을 취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든다." 이러더라고 껄껄대고 웃었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불쑥 나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을 다 잃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실에도 저 까마귀나 까치처럼 사생의 말 못하는 것들도 그 뜻을 모두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참, 오백 나한을 만든 자체도, 소로 변장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도를 닦고 있다가 다시금 보살로서 등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적 떼들 오백 명을 부처님 앞에 귀의하게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다 잘 아시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은 제가 쓸모 있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치않은 말이라도 좀 더 믿으신다면 이 컵이라는 질서 있는 이름을,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기를 수 있는 인연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